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천만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품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8 호

"허물이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곧 부끄러워해야 장부(丈夫)의 기상이 있는 것"이라고 서산대사는 일렀지만 참회가 손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출장부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이 출장부도 뒤늦게, 참으로 뒤늦게 깨달은 일이 있다.

직장에서 20여년만에 만난 고교시절 동창이 있었다. 얼굴도, 이름도 서로 알지만 40대가 돼서야 가까이 접촉하게 됐으니 사실상 새로 얻은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는 멋쟁이 풍류객이었다. 술을 즐기고, 사진계에서는 일가(一家)를 이룬 작가였다. 도시 술은 입에 댈줄 모르고, 예술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한 직장인이었던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달랐다.

덤덤하게 지내는 사이에 그 친구가 정년퇴직하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정 경 희

게 됐다. 나이가 약간 앞섰다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낮은 정년 연령규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막상 그 친구가 그만 두고 난 뒤, 점심을 같이 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집에 없었다. 또 그 친구도 전화를 해주지 않았다. 경복궁에서 우연히 만나고도 덤덤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그것으로 그 친구는 잊어버렸다.

운이 좋아 나는 그로부터 십수년뒤 정년퇴직을

"친구여, 정말 미안하다"

하게 됐다. 그것은 직장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해온 직업인으로서 아무리 대범하려해도 견디기 어려운 충격임을 나 자신이 체험하고서야 알았다.

그때 비로소 십수년전 아무런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않고 헤어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을까.

또 그때 비로소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가 전화를 하지않았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자신 남의 직장에,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이건 또는 후배이건 결코 전화를 걸지 않는다. 사회인으로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지만, 나에게 허용된 마지막 소유물-알량한 자존심에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그 친구도 같은 심정이었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가끔 들리던 그의 소식도 끊긴지 오래됐다. 뒤늦게, 정말 뒤늦게 깨달은 나의 어리석음을 지금이라도 만난다면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흘러간 과거가 돼버린 것인지….

류석호… 정말 미안하다.

〈언론인〉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한국불교 미래 '수행 관건'

조계종 승 · 재가 설문 **발전저해요인 '분규' '문중이기주의' 順**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에대해 대다수의 불자들은 '수행'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종단내 각 기관과 단체 구성원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스님 182명 재가자 257명 등 4백39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 따르면 종단 스님들의 사회적 신망도를 묻는 질문에 18.5%가 매우 높거나 비교적 높다고 답하고 76.7%가 '그저 그렇다'와 다소 낮다고 답했다. 스님들의 신망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 응답자의 46%가 수행결여를 꼽았다. 특히 응답한 스님가운데 절반 가량이 수행결여를 꼬집어 승가내에서도 수행풍토 진작에 대한 자성과 열망이 팽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수행의 중요성은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의 답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응답자의 66.3%인 2백91명이 수행자의 수환력을 불교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답했으며 21.6%인 95명이 고승대덕들의 법력이라고 답한 것. 종단 발전의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도 종단의 분규(57.6%)와 문중이기주의(55.6%)를 지적했다. 종단 개혁의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행풍토의 진작을 든 것(59.2%)도 현재의 불교계에 많은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계종단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은 전망을 보였다. 5년후의 종단 위상에 대해 '높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30%에 그쳤고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 반면 10년후의 위상에 대해 52.9%가 매우 높거나 비교적 높을 것으로, 20년 후에는 62.9%가 매우 높거나 비교적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임연태 기자〉

관련기사 3면



◇연건평 240평으로 효의 본찰 용주사에 효행교육원이 착공됐다.

전통사찰 농지취득 '파란불'

월주스님, 농림장관 예방 "검토하겠다" 확답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일 이효계농림부 장관을 예방 "농림부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통사찰도 농지취득을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주스님의 예방에 배석했던 농림부 최일도 농지관리과장은 "농지법 제6조2항2호에 농지소유 예외규정이 있고 시행규칙 제4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농지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농림부 장관이 시행규칙에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인정하면 조계종의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허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령은 장관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농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면 공공수용등으로 매각되는 사찰토지가 제3자명의로 대토매입되며 발생하는 징재유실의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 또 전통사찰의 원형복원과 보존유지 및 메시지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도 보다 투명해질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훼손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北 조불련 박태호위원장 와병 공식활동 중단

북한 불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호위원장이 현재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지현정사(LA심인당 주교 · 평불협 미주본부 상임부회장)는 21일 "올해 79세인 박위원장은 와병으로 인해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조불련의 관계자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용주사 효행교육원 21일 착공

성보박물관도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21일 효행교육원 · 성보박물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성보박물관은 연면적 1백3평에 지상1층(75평), 지하1층(27평)규모로 98년 8월 완공된다. 용주사를 효의 본찰로 위상을 드러낼 화산효행교육원은 지상2층(1백20평), 지하 1층(1백20평)규모로 효행교육관, 생활관등을 비롯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고 98년 10월 낙성될 계획이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전통적인 효사상의 회복을 통해 현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장이 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무(영원암 주지), 정락(용주사 주지)스님을 비롯 임수복 경기도지사, 황일수 화성군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용암사 방화추정 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용암사(주지 현정)에 20일 오후 7시 4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전소됐다. 이날 화재를 처음 목격한 한지운씨는 "오후6시 예불을 한뒤 저녁공양을 마치고 생활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밖이 환해 나와보니 대웅전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관할 파주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조계종 사찰관제시스템 추진 23면
구족계 수계산림 6박7일 11면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행사 안내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제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겉옷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서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좌버스 대기.

주최: 현대불교신문 · 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1962~1997 漢拏 창립 35주년

重工業 외길 35年

"漢拏는 環境과 道德을 旗幟로 人間과 自然이 次元높게 調和하는 가운데 儉素, 勤勉, 效率을 經營信條로 때로는 極端的인 立地에서 極端的인 境地로 곤두박질하는 迂餘曲折속에서 몇 百年같은 三十五年을 지나오며 體質을 단련해 왔습니다.

이제 21世紀에는 어떠한 境地를 맞이하게 될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豫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딪쳐야 할 事態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形態이건 간에 부딪쳐 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것은 'Face The Fact'라는 말처럼 부딪쳐 봐야 하겠습니다."

-漢拏그룹 創設 35주년 紀念辭 中에서-

漢拏그룹 名譽會長 鄭仁永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그룹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해운 · 한라자원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 · 마르코폴로호텔 · 배달학원

사 설

대불청에 바란다

일제하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 창립된 대한불교청년회는 명실공히 한국청년불자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왔다. 77년의 오랜 세월은 결코 짧은 연륜이 아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쿠단을 거쳐 급격한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이제 고도산업과 정보화의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가위 상전벽해의 세월을 버텨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등직한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대한불교청년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많은 성과와 의미를 축적시켜온 고목이다. 그런 청년회가 최근 몇년간 조직이나 활동면에서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우선 조직면을 보더라도 청년회는 전국조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지방이나 단체의 세부조직이 잘 정비되지 못했고, 또 이들 하부조직을 관할하고 통합하는 중앙의 리더십이 부족했지 않았나 한다. 이번 제19대 중앙청년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직의 정비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재원의 확보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적절한 재정과 자원의 확보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뜻을 갖고 원(願)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으고 기부금을 확보하며, 또한 생산의 일정한 몫을 시주하고 보시하는 현대판 탁발(托鉢)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불교도들은 대체로 이런 류의 일에 서툴다. 세속의 잡사를 벗어나야한다는 생각으로 세속을 방편으로 이용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대승은 소승의 엄격한 무소유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자비(慈悲)와 보시(布施)가 불교도의 일인데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떻하겠느냐."

그래서 대승은 재물이나 소유에 대해서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사리와 사욕으로 재물을 탐한다면 지옥갈 업을 짓는 것이로되 부처님의 말씀을 이땅에 널리 올리게 하는 대승의 고귀한 사업에는 정재(淨財)가 필수불가결하다.

아상(我相)과 소유상(所有相)만 떨치면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법계의 소식이다. 70년전 만해스님이 불교유신론에서 주창한 바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대한불교청년회는 그 뜻을 다시금 새로이 되새겨야 할 줄 안다.

세속과 열반은 하나이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진짜라는 대승의 정신을 말이다.

이와 아울러 청년회는 불교 본연의 수행과 신행을 엄정하게 닦고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불교는 아라한과 보살의 고결한 위의를 바탕으로 문호가 형성되고 종파가 형성되어 공동체(僧家)를 이끌어온 전통을 갖고 있다. 수행의 깊이와 정신적 지도력이 없다면 앞의 사업은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일 뿐이다.

오계(五戒)를 정갈하게 수지하고, 예배와 독경에 게으르지 않으며, 장경의 의미와 실천에 정진하는 모습을 통해 청년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잠재적인 신도들을 그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답게 정보화 국제화에 걸맞는 조직과 활동을 기획하고 창안해나가라고 주문하고 싶다.

체(體)를 굳건히 지키면서 용(用)을 여하히 운용하느냐가 한국불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다운 유연함과 패기로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전위의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황룡사탑 · 미륵사지 복원하자"

문화비전 2000위원회 디지털박물관 · 문화관광벨트 등 14건 정부 건의

2천년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황룡사9층탑과 미륵사지의 복원이 중요사업으로 제안됐다. 또 지역공동체의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21세기 과제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종교단체나 학교 등에서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문화활동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문화비전2000위원회'(위원장 최정호.언세대 교수)는 20일 문화의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부에 '문화비전2000-문화의 세기가 오고있다'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 사업으로 △황룡사9층탑·미륵사지 복원을 비롯 △2000년 문화예술축제 △대지털 도서관 박물관 건립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14건을 건의했다.

특히 황룡사9층탑·미륵사지 복원은 조상의 기상을 확인하고, 한국관광의 새 명소로 제공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시하고 오랜 전통문화의 이미지 창출과 문화관광의 명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건의된 사업들은 향후 공청회와 함께 추진기획단이 구성돼 가능성을 타진한 후 최종 확정된다. 사업의 추진도 2000년을 기점으로 착수된다.

문화비전2000위원회는 21세기는 15세기 세종대왕 시대, 18세기 영·정조시대에 이어 우리 역사에서 3백년 주기로 나타나는 문화중흥기로 '제3의 한국문화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치의 상호공존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문화의 상호공존, 상생과 호혜로 전개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합동징수 합의 부분수정 필요"

조계종 관람료위 요구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는 22일 오후1시 회의를 갖고 총무원이 14일 정부와 합의한 내용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조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관람료위원회는 회의에서 "14일의 합의는 관람료 인상에 대한 종단의 자율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언제부터 공원입장료를 폐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한을 확약하지 않는한 이번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람료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합동징수사찰 주지스님들과의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일부 수정해 재결의했다.



◇조계종 중강신도회는 18~19일 화성 신흥사에서 6백여명의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신도교무금 '중신회' 지원 필요"

신도회 발전방안 종단에 건의키로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8~19일 화성신흥사에서 총무원장 월주, 포교원장 성타, 교육원장 암도스님 등 조계종 3원장을 비롯 신행단체 대표 등 6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신행단체대표자수련대회 개최하고 총무원에 신도회 발전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수련대회 첫날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신도교무금의 중앙신도회 지원 △교구본사는 신도교육과 수련회 개최 △사찰운영의 신도회 참여 등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소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총무원에 전달키로 했다. 소위 구성은 회장단에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송재건회장은 입재식 인사말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근본이념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불교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정기종회 11월1일부터 보름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제129회 정기중앙종회를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의 회기로 개회키로 했다.

이번 종회는 금년 종무행정 감사 보고와 내년 예산의 심의 승인의 건, 종무보고의 건과 128회 임시종회에서 이월된 종헌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 1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

내년부터 복지관 · 어린이집 등 운영
실버타운 · 병원 · 장묘사업 등도 계획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 진각종은 22일 통리원에서 열린 제311회 정기종의회에서 (가칭)회당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인준한데 이어 23일에는 발기인 총회를 갖고 성초 통리원장 등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등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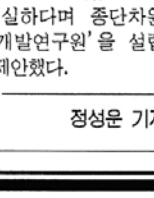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진각종은 고정자산(부동산) 5억원에 최소운영비 5천만 확보 등 보건복지부의 복지법인 설립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내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1차년도 사업개시일을 내년 1월로 잡고 있는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회당장학생 사업, 대구교구청 청도 수도원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으로 변경, 정부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수탁운영, 불교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불교복지기금 조성사업, 자원봉사센타 운영, 일반상담 및 해외근로자 상담실 개설 등이다.

조계종 내년예산 2백4억 긴축편성

조계종 98년 예산이 2백억을 넘어선 2백4억9천만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개최 이같이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정부와의 합의사항을 설명했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일반회계 예산을 소폭 인상하고 시설특별회계는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안은 11월 정기중앙종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대한법화종 5대종정 해수스님 추대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대호)은 1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대 종정에 해수스님(원로회의 의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禪은 정보사회 상상력의 보고"

조계종 '전법활성화' 심포지엄

'불교는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정보사회에 대한 종책적인 진단이나 준비, 좌표설정이 없는 것이 불교의 현실이다.

위의 물음에 현기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부소장)은 "조계종이 정보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선에 있다"며 "선을 조계종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선은 정보사회의 인간에게 정보에 갇힌 자기한계를 깨뜨리고 정보의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위원장 월주)가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최한 '전법활성화를 위한 불교 변화의 방향' 심포지엄에서 현기스님은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정보에 있지 않으며 인간의 정신이 자유로와질 때 이 능력은 갖춰질 것"이라며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선이며, 따라서 정보사회에 사람들에게 불교는 이미 다른 종교에 앞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자료로 제출한 '전통신행의 현대화와 과제'를 통해 △신도교육의 체계화 △위탁신행에서 자율신행 △강의 위주에서 감성위주의 실천신행으로 △신도조직의 세분화 △문화중심의 신행 △지역사회에 헌신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준스님(목포 길상사 주지)은 '한국불교에서 다양한 신도교육체계화·자율신행 강화 '방편개발연구원' 설립도 제안

유롭게 하는 방법이 선이며, 따라서 정보사회에 사람들에게 불교는 이미 다른 종교에 앞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자료로 제출한 '전통신행의 현대화와 과제'를 통해 △신도교육의 체계화 △위탁신행에서 자율신행 △강의 위주에서 감성위주의 실천신행으로 △신도조직의 세분화 △문화중심의 신행 △지역사회에 헌신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준스님(목포 길상사 주지)은 '한국불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불교의 방편이나 경전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개발, 누구나 불교에 접할 수 있는 보편화가 절실하다며 종단차원의 '방편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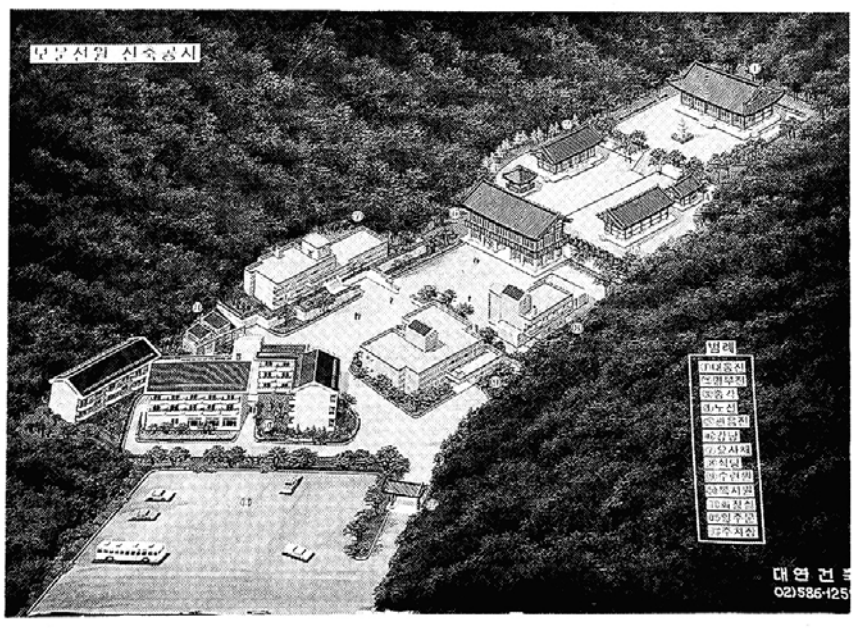
현대만평 박구원



불교발전 원동력은…

온양 보문사

대웅전, 지장전 낙성식 및 봉불식 보문 복지원 준공식



■ 초대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칠보사에서는 온양에 대웅전, 지장전, 누각, 복지원을 지어 봉불식 및 점안 법회와 준공식을 「고송큰스님, 운경큰스님, 관응큰스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져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선근 인연을 쌓으시고 가내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칠보사 회 주 강 석 주
주 지 김 오 월
보문사 주 지 황 현 관
전주지 오 정 묵

■ 일 시 : 불기 2541년(1997) 11월 10일(음력 10월 11일)오전 10시
■ 장 소 : 온양 보문사 대웅전
■ 증 명 : 운경큰스님, 관응큰스님, 고송큰스님
■ 연락처 : 02)732-1422/4 서울 종로구 삼청동 4
0418)545-6531 충남 온양시 염곡면 송정리

"수행 신도교육 전법 강화해야"

조계종 '종단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설문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벌인 설문의 결과는 '수행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불교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결론을 보였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불교는 여전히 수행을 통해 종교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 준 셈이다.

현재 조계종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낮은 편이라는데 68.1%의 답이 몰린 것과 5년후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30%라는 점은 불교계가 상당한 자정과 분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감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년후의 위상에 대해 48.8%의 응답자가 밝은 전망을 하고 있고 20년 후의 위상에 대해서는 62.9%가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도의 수적 증가를 예견하는 데서도 이런 희망은 잘 드러났다. 10년후의 증가추세에 대해 밝게 전망한 응답자는 43.4%인 반면 30.9%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년 후에는 49.3%가 증가를, 19.2%가 감소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의 원동력에 대한 의견은 복수응답의 결과 수행력(66.3%)과 사회적 역할(56.3%) 교리체계(26.7%) 법력(21.6%)의 순을 보였다. 이를 압축하면 수행을 통한 사회참여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대승불교 전통의 계승 발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저해요인으로 꼽힌 종단의 분규(57.6%) 문중이기주의(55.6%) 스님들의 인식태도(47.2%) 정치권력의 예속화(24.4%)등은 승가와 재가가 고르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범종단적인 '부종수교'의 합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신행의 형태에 대해서는 참선수행(12.1%) 교리공부(12.8%)에 비해 사회봉사(32.2%) 법회참석(20.3%)의 분포를 보여 참여불교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신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찰이 많다고 지적한 답이 57.5%를 보여 사찰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도들의 재적사찰 갖기 운동에 대한 반응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60.9%)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37.1%) 른 차이를 보였다.

조계종단의 스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이에대해 응답자의 38.3%는 수행을 40.1%는 전법활동을 들었다. 수행과 전법의 문제는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응답으로 분석할 수 있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종단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51.7%의 응답자가 부분적인 성과를 인정했으며 28.5%는 과거와 별 다를바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향후 개혁종단의 과제로는 59.2%의 복수응답자가 수행풍토 진작을 꼽았으며 45%는 신도의 교육화 조직화를 꼽았다. 사회적 역할의 증대를 주문한 응답자도 38%나 됐으며 종단의 안정을 바라는 응답자(28%)도 적지 않았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2.6%가 포교강화를 지적해 미래사회의 불교는 포교에 의해 지탱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역 사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복지사업(36.3%) 교양프로그램운영(23.1%)등의 순으로 답한 대목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견은 요양소나 양로원설립에 절반 이상이 호감을 보였고(57%) 열반당이나 염불당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2.8%였다. 연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바라는 응답자는 18.6%에 그쳐 금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응답자 중 요양소나 양로원을 원한 경우(44.1%)도 열반당(28.5%) 연금(25.1%)에 비해 높았다.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포교의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북한돕기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로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 사찰의 복원을 위한 접촉의 필요성을 든 응답자도 17.6%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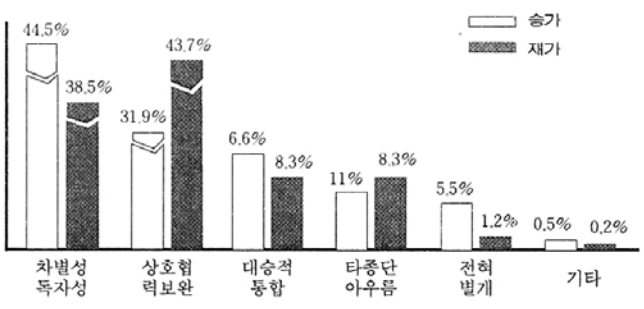
2백억 가량의 조계종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보통 28.4% 충분 15.4%)을 보였으며 재정확보를 위한 종단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자는 43.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단의 재정및 삼보정재의 관리방안은 사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42.3%)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교구본사의 주도적관리(22.3%)와 중앙의 취합관리(24.2%)를 주장한 응답자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39.6%)를 하되 불자에게는 받지 않아야 한다(32.9%)는 의견도 높았다. 완전 폐지는 14.1%인 61명이 주장했다.

종도로서 종단에 대해 얼마만큼의 일체감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 75.9%가 일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종단에 대한 종도들의 일체감 인식은 종단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란 점에서 종단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미래사회 불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타종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41%가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38.7%가 상호협력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점은 종단적 일체감과는 별개로 열린 종단정치의 필요성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단내의 스님들과 재가자가 갖는 타종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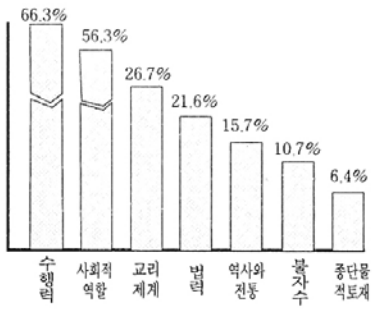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10년후 불교위상 희망적" 49%
"종단 사회적 영향력 낮은편" 68%

◇조계종과 타종단의 바람직한 관계



◇한국불교 발전 원동력



설문조사 주관 총무원기획실장 지홍스님

"분석내용 종책입안 십분활용"



"종단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은 응답자가 종단내의 중요 활동가들이란 점과 연령별 분포가 고르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우며 특히 현재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낱낱히 지적됐다는 점에서 종책 입안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문을 주도한 조계종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설문분석이 종단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특히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중요성이 다양한 응답을 통해 확인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종책 기조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설문을 통한 종책 수립의 근간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종단 수행체계의 확립, 포교활동 강화, 대사회적 역할 확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수행체계의 확립을 위해 종단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포교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포교사의 양성, 포교방법의 개발, 포교활동의 지원책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복지, 교육프로개발, 관혼상제의 불교 의식화등을 주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목어

부처님 뵙고프면

올 가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국에 나투셨다고 가정해보자.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야단일 것이다. 아마 나라안이 떠들석 할지도 모른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상상이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와 대화하시는 녹음테이프가 시중에 나돈다면 어떨까.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계신 부처님의 형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없지만 설사 계신다 해도 부처님을 모습으로만 보려해서는 안된다고 부처님은 일러주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하면 이 사람은 곧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금강경〉 사구게의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해결사이셨다.

중생의 고민과 번뇌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 그때 풀어주셨다. 자비로운 음성, 쉬운말로 일깨워주신 그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안에 오롯이 정리돼 있는 8만4천법문 아닌가. 우리는 마음만 내면 수시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친견을 원한다면 먼저 책방으로 가자. 가서 경서를 구해 읽자. 거룩하신 부처님,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도 되고, 욕야녀도 되어,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렵지않게 부처님을 친견하고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데 불자들은 왜 그 길을 외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절반은 한달 평균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권이상의 책을 사는 사람은 29%로 조사됐다. 불자들은 이보다 더 책을 안 읽고 안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책의 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책방가는 날'로 선포했다. 불교계도 가정, 절, 신행단체에서 이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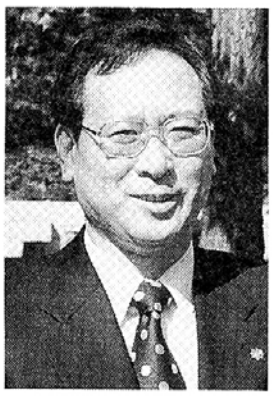
특히 스님들이 앞장서주시면 좋겠다.

정기법회를 마치고 단체로 책방가는날을 정하거나, 법회전후에 독후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부처님 친견법회가 확산 될 것이다.

수요 인터뷰

"청년불자 신행단합에 역점"

대불청 19대 중앙회장 당선 이상대 씨



대한불교청년회 제19대 중앙회장 선거가 19일 열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상대씨(42)가 총 2백4표 중 1백24표를 얻어 당선됐다. 98년 1월1일부터 3년동안 대불청을 책임지게 된다.

이상대씨는 20여년전부터 부산 보리(대각)불교청년회 회장, 정토구현 부산불교협의회 부의장, 대불청 중앙부회장·국제위원장, 부산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집행의원, 천리안 보살풍호회 초대 시샵 등을 두루 거치면서 왕성한 불교활동을 펼쳐왔다. 또 95년도에는 대불청 불청대상을 수상, 불교계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쁜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약하는 대불청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의원 모두가 불청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런 욕구와 저의 출마의 변이 일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의견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 역점두실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칭)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랜 숙원이었던 불청 법인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자립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행의 실천'을 통한 불청혁신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행결사 오계실천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년불자들이 올바른 수행관과 불교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부회장제 도입, 동호회 개설 지구별 특화사업 강화 등을 통해 조직혁신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 차기 집행부 운영 관리에 묘안이 있으시다면.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불청이 아니라 회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적 신행의 고양과 대사회적 대응능력 확대도 불교청년들의 중대한 과제인만큼 이 부분을 충족시킬 생각입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군법사들의 연석회의로 구성하려는 (가칭)불교미래연합에도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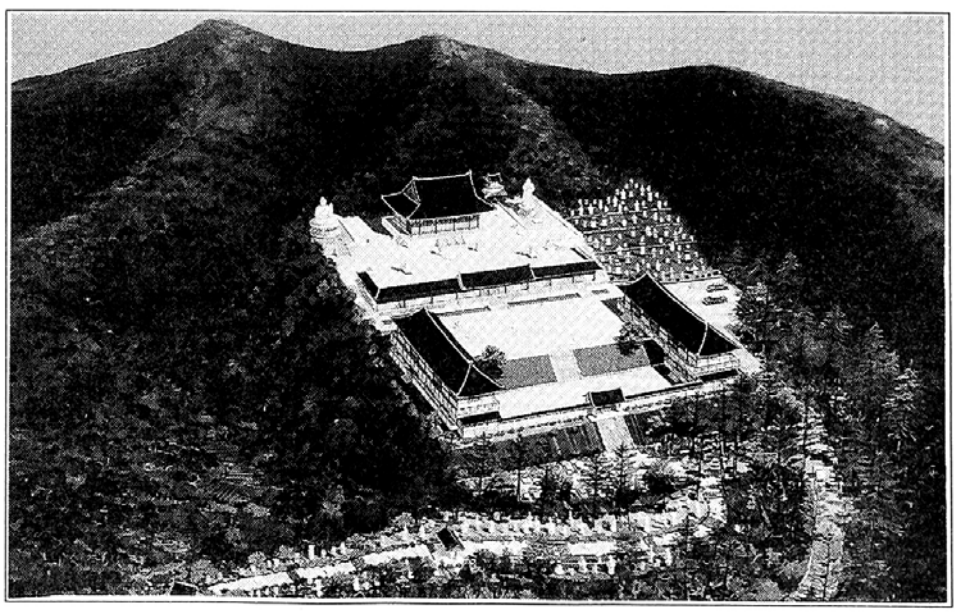
도리산 육지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님

도리산 육지장사 건립기공식 및 出世지장보살님 점안법회

생활불교, 포교의 전당 삼보사에서는 14주년을 맞이하여 2000년대를 향한 포교10년 계획을 세우고, 도리산에 현신하신 지장보살님을 모실 육지장사와 불교청소년법당·회관을 건립코저 산자수려한 양주땅 이름도 고운 백석 지장성지 도리산 육지장사 건립 기공식 및 出世지장보살님 점안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541년(서기 1997) 11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
- 전 화 : 02)352-6406.352-6407,
  0351)871-0101.871-6574

주 지 윤지원 신도회장 홍성걸
거사림회장 박순배 연화회장 차정순
※1차년도 세울건평 1500평



■ 육지장사 조감도 ■



사불삼매 '지장보살 나투시네'

Focus

"옴바라마리다니사바하…," 〈지장경〉을 옮겨 쓰기도하고 지장왕보살을 갖가지 색상으로 칠하고 있는 보살들은 '사경삼매'에 흠뻑 빠져있다.

손대면 묻어날것 같은 쪽빛 가을 하늘아래 울긋불긋 치장한 단풍들이 제 빛깔을 뽐내는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서 21일 열린 지장왕보살 김교각스님 기념관 개관기념 사경·사불대회장. 60여명의 불자들이 스님의 원력을 되새기고자 〈지장경〉을 쓰고 지장왕보살을 채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옥이 비기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스님의 서원을 다짐하는 표정이다.

김주일 기자

"북한사찰 해방전 자료 수집을"

지현정사 '북한불교 동향과 통일…' 강연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질 충격을 감안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합니다."

전국통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이 21일 주최한 '민족불교학당'에서 '최근 북한불교계의 동향과 통일의 길'을 주제로 강의한 진각종 LA심인당 주교 지현정사(평불협 미주본부 상임부회장·사진)는 이같이 주장하며 "통일 이후 현 국가 소유의 북한 불교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라도 사찰 소유 부동산들의 등기권이나 지적도 등을 수집해 놓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현정사는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한 남한 불교단체의 식량지원은 조선불교도연맹의 북한내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실정과 관련, "중앙당으로부터 조선불교도연맹 소속 직원의 급여를 자체조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며 "공명심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승적 사상에 입각한 남북교류의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현정사는 18~25일까지 일시귀국했다.

김정은 기자



◇대금강승선무 회주 원욱스님과 소림사 선무지도자 석덕건스님이 교류협약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금강승선무 소림사와 결연

합동무술 대회 개최·사범교류 합의

우리나라의 대금강승선무(회주 원욱스님)와 중국 소림사 무술이 손을 잡았다.

대금강승선무 회주 원욱스님은 사범 20여명과 7일 소림사를 방문,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합동무술대회와 사범교류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림사 인근의 무술학교와 교류해 왔으나 소림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협약체결에 앞서 펼쳐진 양국 선무도 시범에서 소림사의 선무지도자 석덕건스님은 "한국의 선무는 중국선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석덕건스님은 소림사 영화당 선무의 19대 전수자로 현재 소림무술의 최고지도자다.

임연태 기자

교차로

회계사 대적광전 준공법회



숭산 화계사 주지는 20일 '대적광전 준공 및 3존불 4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3층 건물 대적광전은 요사채, 국제선원,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中 서화원 방문단 접견



태응 불교TV 사장 스님은 21일 중국 항주 원풍서화원 양순강 상무부원장과 소덕수 부원장의 내방을 받고 서예작품 4점과 독수리 그림 등 5점을 기증받았다.

경찰의 날 감사패 받아



설정 조계종 종회의장 스님(사진 위)과 동성 마산 봉국사 주지(동부경찰서 경승실장)는 21일 제5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모범적인 경승실운영과 활발한 경승활동 등의 공로로 김형진 충남지방경찰청장과 마산 동부서장으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오명씨 초청 '정보화'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4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제로 90주년 기념 문화관에서 오명 동아일보 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불교병원에 천만원 기탁



황규선 신한국당 의원은 23일 동국대에 경기도 일산에 추진중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제1회 동국예술제 개최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은 28일 동국대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제1회 동국예술제를 개최했다.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

한기호 한국전문신문협회장은 11월 7~8일 '정보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20회 전문신문 경영인세미나를 갖는다.



충북대서 구들학회 세미나



최영택 구들학회장은 27일 충북대에서 '새 주거문화생활을 위한 구들학회 세미나'를 가졌다.

대부도 둥지소년의 집 방문

김인택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회장은 11월 1~2일 대부도 둥지소년의 집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친다.

세종문화회관서 공연

김영임 국악인은 30일 오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회심곡'을 중심으로 '97 김영임 소리' 공연을 마련한다.

전신주 없이 전기사용 수덕사 전력시설 화제



예산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사찰환경의 미관을 헤쳐온 전신주(電信柱)가 없는 전력공급 시설을 수덕사에 설치해 화제다. 8월 25일부터 10월10일까지 경내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를 해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인해 수덕사는 65본의 전주와 2.9Km의 지상에 설치된 전력설비가 철거되고 입구에서부터 정혜사까지 모든 전력설비가 지하로 매설됐다.

"장인정신으로 옛도자기법 재현"

화관문화훈장 받은 도예가 이은구 씨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활발하게 세계에 알리고, 항상 내우는 자세로 매진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20일 문화의 날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의 영예를 안은 도예가 청파 이은구씨(54, 이천문화원장)는 연신 감사할 따름이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이씨는 돈독한 불심과 장인정신으로 30여년째 분청사기만을 빚어 왔다. 또 11년 전 이천도자기축제를 처음 기획해 군에서 도, 도에서 전국축제, 세계축제로 발전시킨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이천을 세계적인 도자기문화의 메카로 관광코스로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가다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옹골찬 도공의 장인정신으로 옛 도자기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도필선 기자

"불교방송 전산화 도움 됐으면…"

전자장비 7천만원어치 기증 최강녕 사장



"불교방송 정보관리국 관계자들이 전산망 구축을 위해 애쓰시는 것을 보고 회사의 유휴(有休)기계를 기증하게 됐습니다. 불교방송이 잘돼야 우리회사도 잘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불자여서 보시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 유지 보수 전문업체인 (주)토탈테크 최강녕(39) 사장은 7천만원 상당의 전산 호스트 장비를 21일 불교방송에 기증했다. 불교방송은 이 전산호스트 장비를 경영종합정보망(MIS)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사장은 불교방송의 전산호스트 장비가 두 대가 됨으로써 행정전산망 구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방송 전산망이 미비한 것이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계가 불교방송 전산화와 나아가 인터넷 방송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사장은 이달 말 불교방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강지연 기자

고유기능 전승자 6명 선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재석)은 19일 금박입히기 기능보유자 김익홍(만다라불교미술실 대표)씨와 구리 청동 쇠 착색 기능보유자 추용근(전통공예사 대표)씨 등 6명을 올해의 고유기능전승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수준의 전통기능인들로 내년부터 5년간 매달 80만원의 기능전승 지원금을 받는다.



◇김익홍씨



◇추용근씨



ABU 총회 참석자 와우정사 참배

열반종(총무원장 해근)은 21일 용인 와우정사에서 '제34차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서울총회'에 참석한 50여개국의 방송대표들을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일본 NHK, 호주 ABC, 필리핀 RPN 등 30여명의 대표들은 와불, 청동미륵반가사유상, 통일범종 등을 비롯 경내를 참배했다. 참석자들은 "고요하고 기품있는 한국의 산사를 참배하게돼 기쁘다"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와우정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된 안내책자를 선물했다. 〈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안성 도안사 1,156,500원 △불교문화 204,930원 △부산 동의대 한의학과 170,000원 △서초정토법당 100,000원 △불교어머니회 27,400원 △故 이정옥 1,000,000원 △이춘경 600,000원 △양영우 200,000원 △혜만스님 120,000원 △마경숙 120,000원 △신태호 120,000원 △정승미 110,000원 △서봉순 100,000원 △김경희 100,000원 △이광형 100,000원 △백종민 100,000원 △장준분 50,000원 △박준자 50,000원 △장보혁 5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295,000원 〈22일 현재 총 843,800,52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경도대회

1.대회명 :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경도대회
2.대회주제 :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
3.날 자 : 1997년 10월 26일~30일(4박5일)
4.장 소 : 일본 경도 입정교성회 경도지회 보문관

5.취 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정치, 외교,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행각과 포교, 사상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등 불교의 인적, 물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등을 받아들여 국기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효등 헤아릴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등 상호 교환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5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차대회는 서울에서 각계의 축하와 불교계 종단 지도자들의 참여속에 성대히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에 3차대회는 한국불교 종단지도자 200여명과 일본 중국 불교계 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경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도모하고 인류구제를 위한 공동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난민구제,지구촌 환경보존,인력교류,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질서를 구축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21세기에 석존의 가르침을 세계로 펴는데 3국 불교도의 역할과 사명을 공고히 하는 대회가 될 것 입니다.

6. 목적

가) 한·중·일 삼국불교도 우호교류를 통해 3국 민간교류 확대에 기여
나)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정착 노력에 일조
다) 3국 불교문화 교류와 제반 문화, 정보교류 활성화
라) 유학생 상호 교환등 인적자원 양성
마) 동북아 불교의 연대활동을 통해 지구촌 난민구제, 환경보존사업 등 대사회적 공동 사업 적극 추진
바) 3국 불교에 대한 이해증진
사) 3국 공동사업과 평화운동, 환경보존, 문화교류 등을 통해 공존공영의 의식고취와 계몽

7. 참가인원
- 한국-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 중국-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 일본-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8.대표단 조직

▶ 대 표 단 장 : 현주 조계종 총무원장
▶ 고 문 : 석주 조계종 원로, 청하 통도사 부방장, 법흥 원효종 종정, 대천 관음종 종정, 박형철 천태종 참의원장
▶ 부 단 장 :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월서 종단협의회 상임부회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지하 중앙승가대 총장
▶ 집행위원장 :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 대 표 :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태연 재일본 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 명예회장, 현근 조계사 주지, 철형 쌍계사 주지,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동광 도선사 주지, 무상 봉은사 주지, 광우 전국비구니회 회장, 우담 태고종 교무과장, 해공 태고종 재무부장, 정산 천태종 감사원장, 일정 진각종 교육원장
혜웅 관음종 원로원장, 혜정 일승종 총무원장, 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일공 원융종 종정, 대호 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법종 보문종 부원장, 호강 총지종 법장원장
지명 조동종 승정원장, 금광 진언종 종리원장, 무찰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 부 위 원 장 : 도각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처장
▶ 집 행 위 원 : 능관 조계종 사회부장, 성관 조계종 호법부장, 성광 조계종 사서실장, 지성 태고종 총무부장, 자원 종단협의회 사무차장
국성 천태종 총무부장, 효암 진각종 문사부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송월주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402호 전화 02)732-4885 FAX 02)737-7872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자비원

고 문 : 인 현
총 재 : 석 봉

부 총 재 : 성타 능선
이 사 장 : 송산
상 임 이 사 : 법성
이 사 : 김학규 이해상 김성겸 우제형 기용우 이종우 김상현
감 사 : 대원 신덕균
복지봉사원장 : 성용

문 화 원 장 : 원표
연 수 원 장 : 백담
총 무 부 장 : 경신
교 무 부 장 : 진웅
사 회 부 장 : 혜월
재 무 부 장 : 보성
복지봉사부장 : 법운
문 화 부 장 : 상호
연 수 부 장 : 담원
봉 사 국 장 : 강현

대 의 원 : 영복 창호 형래 정호 혜진 혜민 혜성 종진 지성 두하 대원 원광 원공 법륜월 무월심 김숙희 순체 보현행 자명 보현(무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0331)262-1577, 263-1353

우리 모임에선

대구 택시정법회 11돌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26일 오후 능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대구지역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부에서는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이 유공자 표창을, 2부에서는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이 기념법문을 했다.

상주산업대 법우회 총회

상주산업대교직원법우회(회장 김명환)는 25일 문경 대승사에서 순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40명의 회원들은 법회가 끝난 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으며, 사불암 등을 답사했다. 지난 92년 9월 20일 창립된 법우회는 예천 연꽃마을에 의류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주법우회 추계공양

상주시법우회(회장 박용식)는 18일 시내 왕산에 모셔져 있는 보물 제119호 상주복룡리 석불좌상(비로자나불)에 대한 추계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상주시로부터 문화재관리권을 위임받고 있는 법우회는 이날 상주사암연합회 회장 만성스님, 상주포교당 주지 정관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을 올리고 성보보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同회 회원 100명은 24일 통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충북지장회 간병인 교육

충북지장봉사회(회장 여현정 법사)는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청원군 문의면 지장정사에서 직업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1개월간 간병, 호스피스, 염습교육을 수료한 50여명의 봉사회원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 불교의식에 맞는 염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

중앙승가대학 강사인 보각·혜도스님, 청주불교방송 이사장 각현스님, 자광원 김정자원장,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노석성원장 등이 강의를 맡는다. (0431)54-2258

불기협 총회 • 8돌법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1월3일 오후 6시30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제22차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자축연을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 및 감사 선출, 한국불교기자상 제정 등이 논의 된다.

'자비의 묘약'으로 뭇생명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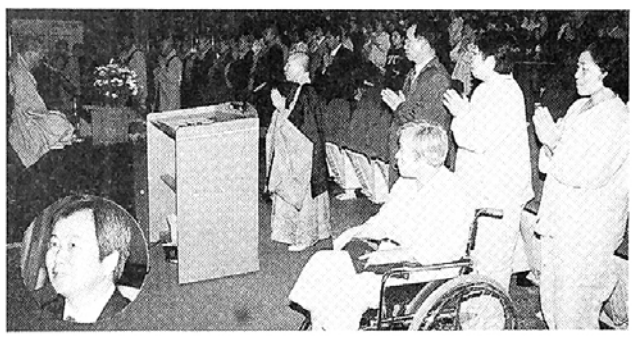
탐방 서울대병원 불자회

국내 첫 병원법회…85년 창립·회원 150명
불우환자·연꽃마을후원등 보살행 활발

18일 서울대병원 지하 A강당에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가 한 마음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불자회(회장 조보연교수·교육연구부장) 회원 1백50명과 환자·가족 50명등 2백여명의 수계제자들은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을 계사로 보살5계를 받으며 불자로서 거듭 태어나는 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포교에 앞장서 온 직원불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보연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년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빠짐없이 법회를 열어온 것은 신도들을 위해 불원천리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정락 태정스님 등 지도법사님들의 큰 원력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86년 당시 지도법사를 맡았던 정목스님은 "의사·간호사는 보살이자 준수행자"라면서 "부처님께서 성불 후 대의왕(大醫王)이 되리라 하셨듯이 보살행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푸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자들, 그들에겐 부처님의 법음(法音)만큼 좋은 묘약이 없다. 사진은 18일 봉행된 서울대병원 불자회 수계법회(원내는 조보연회장).



국내 첫 병원법회인 서울대직원불자회는 85년 5월 조명숙(현 부회장) 외과간호과장과 김인숙 수간호사 등 불자 간호사 10명의 발기로부터 비롯됐다. 성열스님(강남포교원)이 초대법사를 맡았으나 법당이 없어 처음에는 직원불자들만 강당을 빌려 법회를 보았다. 그러다가 초대회장인 한용철교수가 병원장으로 취임(86.5)한 얼마 뒤인 87년 4월 6평 가량의 법당이 어린이병동 1층에 생기면서부터 환자·보호자들도 같이 법회를 보는 등 본격적인 병원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정기법회와 두 달마다 떠나는 성지순례를 발판으로 보살심을 내면화하는 한편 환자위문, 초파일 연등 만들어 달기, 불우환자 돕기(매년 환자 4~5명에게 1백만원씩), 소쩍새·연꽃마을 후원 등 적극적인 신행도 꾸준히 펼쳐왔다. 이처럼 열성이다 보니 나중에는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들어서게 됐다.

작은 법당이지만 직원들과 환자·가족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와 수행·기도처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물론 이같은 서울대병원법회의 성장은 9년째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은진스님(서울 지장사)과 조계사 불광사 소속 주부자원봉사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재경 기자

'보련회' 서울지회 창립
경전공부·수지침 강의

의료보험연합회 서울지부 직장법우회인 '보련회 서울지회' 창립법회가 3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백화점 내 사업장 회의실에서 열린다.

초대회장에 내정된 강영옥씨 등 발기인 9명은 창립법회 때까지 매주 월요일 정오에 지도법사인 연화장세계 이일행법사의 지도로 〈초발심자경문〉 강독과 수지침 강연회를 번갈아 여는 등 불심을 다지면서 회원 확보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번 보련회 서울지회의 창립은 의료보험연합회 직원불자회인 보련회(회장 오정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90년도에 창립된 보련회는 연화장세계 임기준법사의 지도로 매달 첫·셋째 월요일 정오에 경전공부와 수지침 강의 등으로 신행을 펼쳐왔다.

병원법회 전국 17곳 활동

환자·가족 '휴식처'…교계지원·자원봉사 절실

"병든 사람에게는 선택해 때맞춰 먹이고 의약을 쓰며, 걱정 기쁨 진심을 품지 않게 하며 간병인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라." 〈증일아함경〉

가장 불우한 이웃들이 있는 병원. 어느 곳보다 부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85년 5월 서울대병원직원불자회가 창립한 이래 생긴 병원불자회는 모두 17곳. 열악한 환경 아래서도 매년 한 두 곳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립된 인천길병원불자회(회장 장석배)와 올해 11월초 법당개원 예정인 영남의료원 영불회(회장 강복수) 등 6곳을 제외하고는 자체 법당을 마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귀의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국립경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한국보훈병원 등 자체 법당이 있는 병원법회의 지도법사 스님들은 지난 95년 2월 병원법당 지도법사협의회(간사 지홍스님)를 발족시켜 정보를 공유하며 병원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동안 추진된 (가칭)병원불교연합회의 구성은 직원불자들의 시간 제약, 업무가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답보상태.

병원법회 관계자들은 교계의 지원으로 자체 법당을 마련, 지도법사 스님이 법회를 꾸준히 지도할 경우 병원포교의 활성화는 어렵지 않다고 지적한다. 자원봉사 등 불자들의 물심 양면의 지원이 큰 힘이 됨은 물론이다.

◇전국 병원법회

병원법회	연락처
서울대병원 법당	02)760-3176
국립경찰병원 법당	02)430-2555
삼성의료원 불교실	02)3410-2114
한국보훈병원 법당	02)225-0361
국립의료원 법당	02)265-9131
국군수도통합병원 법당	02)651-0955
서울중앙병원 법당	02)224-7892
동국대경주병원 법당	0561)770-8237
동아대의료원 염불회	051)240-2111
부산대병원 법우회	051)254-0171
부산백병원 불교법우회	051)894-3421
부산시립의료원 불자회	051)850-0243
열경의료재단불교병원 의우회	053)655-0300
영남의료원 영불회	053)620-4372
동국대포항병원 불교회	0562)73-8111
경북대병원 불교법우회	053)420-5125
인천길병원 불자회	032)460-3114



◇열린가람은 17일 개원기념으로 노인무료합동결혼식 및 경로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포항에 복지법인 생겼다

운흥사 '열린가람' 17일 개원
노인·장애인 후생사업 전개

포항불교계에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 탄생했다. 운흥사가 10월14일 경북도의 승인을 얻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스님)'이 바로 그곳.

열린가람은 17일 개원기념으로 노인무료합동결혼식 및 경로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사진 한장 없이 살아온 11쌍의 노부부들은 이날 백년가약을 서약하고 제2의 인생출발을 다짐했다. 관장인 난승스님은 "가난하고 의지할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0562)48-6165

포항=이윤호 기자

불자예술인회 법당 상량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회장 박규채)는 11월 11일 천왕산 본각사(주지 벽해)에서 예술인법당 상량식을 봉행한다. 약 12억원의 예산으로 2년전부터 공사가 시작된 대웅전은 지상 86평, 지하 100평 규모. 요사채 등 부속건물 완공에는 9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불자예술인협 정회원은 3백여명이며, 일반회원은 2만5천여명에 달한다.

(02)655-0533



이목당 서운대종사 부도·비 제막식

이목당 서운대종사 부도 및 추모비 제막식이 23일 오전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에서 문도대표 세웅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헌향 헌화와 성수(법수선원 조실)스님의 법어, 월주(조계종총무원장), 설정(종회의장) 스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벽암(원로회의의원) 숭산(원로회의의원) 탄성(원로회의의원) 월탄(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지선(백양사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은해사 일연성사 추모학술대회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성사 현창(顯彰) 학술대회 및 성지순례가 10월19일 일연학연구소와 경산문화연구소 주최로 은해사와 운문사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타스님(일연학연구원 이사장 은해사주지), 무비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권영철박사(효성가톨릭대대학원장) 김세기관장(경산대 박물관) 최식의원(경북도정각회)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 10개 시민단체 공선협 발대

제15대 대선을 두달 남겨놓은 지난 18일 선거문화개혁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대구 공명선거실천 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이 대구YMCA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구경실련 대구흥사단 대구여성회 대한불교대불회 원불교청년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금권선거 척결 △부정선거 감시 △공정보도 달성 등을 다짐했다.



우리는선우 창립 6주년 법회

우리는선우(이사장 남지심) 창립6주년 기념법회가 18일 선우법당에서 봉행됐다. 부처님 점안식도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서 김종서 교육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자로서 항상 보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승사 주지 법성스님을 비롯 남지심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제34회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본 계단은 6·25 피난시절인 1951년도에 큰스님네가 감로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사부대중들에게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불의 지름길'이란 보살계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청정율사이신 자운대종사께서 보살계를 설하시어 수계받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운대율사의 수제자인 가산 지관 큰 스님께서 그 계맥을 이어받아 제34회 보살계의 큰법문을 3일간 (오전 10시, 오후 2시 두번) 설하오니 많이 수계 동참하시어 국태민안과 가내안녕을 이루어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계법사 : ① 전계대화상 : 가 산 지 관
② 갈마아사리 : 오 륜 법 회
③ 교수아사리 : 황 사 혜 충
■ 수계일시 : 입제일 - 음력 10월 4일(양력 11월 3일) 오전 10시
회향일 - 음력 10월 6일(양력 11월 5일) 오전 9시
■ 수계장소 : 감로사 천화계단
■ 동 참 금 : 3만원
■ 지 참 물 : 꽃, 공양미, 과일 약간씩
※ 보살계 수계산림후 회향방생 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

수광원(壽光院)입방 안내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풍광이 수려한 경기도 안성 도솔산 도안사에 재가불자들의 염불전문 수행처인 수광원을 개원합니다. 재가불자들의 염불수행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수행과 생활의 보금자리로 마련된 수광원에는 누구나 입방이 가능합니다. 단지 대중생활에 불편이 없는 분이면 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뜻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도솔산의 조용하고 안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세상번뇌를 떨쳐버리는 일심염불과 산행을 통한 적당한 운동(도량돌이)·균형있는 식사와 무리없는 규칙적인 생활은 노후의 새로움으로 활력있는 삶이 되실것입니다. 친지나 이웃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방일
1997년 11월14일 오전10시 30분(음10월 15일)
동참금
매월100,000원(생활비)
지 도
김열권 선생
인 원
20명(접수순에 의함)

대한불교조계종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도솔산 도안사
주지 숭 암
연락처: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0334-676-8700

법회안내

삼화사 (0394)34-7661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주지 원행스님
약사재일기도 매월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특별법회: 법당준공 및 불상점안 법회 10월28일 오전11시

한성포교원 (02)207-8296
어린이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생호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주지 법농스님
청년회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5시30분
거사회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오후6시
초삼일법회 매월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지비도량 참법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성흥사 (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7시

법림사 (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미타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사부대중 다례한마당
북한산 화계사 대축제

수유리 화계사(주지 숭산)는 11월1, 2일 양일간 '화계 대축제'를 개최한다. 화계사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만드는 이번 한마당은 11월1일 경로잔치 및 전통 춤사위 공연에 이어 2일 산사다례, 사생대회, 화계예술제, 풍물놀이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 (02)902-2663

불자가 꾸미는 무대
'맑고 향기…' 자선음악회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불자들이 직접 꾸민다.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2월초 음악회를 마련, 노래와 춤, 국악, 연주 등으로 무대를 빛나게 할 계획이다.

전문 음악인이 아니라도 좋다. 법음의 메아리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음성공양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신청마감은 30일까지. (02)741-4696

삶의미푸는100일법문
장산스님 '생명실상신' 강의

100일동안 이어지는 생명실상신(生命實相身)법문이 부산 동명불원의 장산스님에 의해 열린다.

생명실상신이란 삶에 의문이 있거나 생명에 의문이 있는 것을 풀기위한 법문을 말한다. 이 법문은 9월29일부터 98년 1월10일까지 계속되며 금강경(9월29일~10월19일), 화엄경(10월20일~12월8일), 법화경(12월9일~1월7일) 법문에 이어 사경대회 및 회향법회(1월8일~10일)로 마무리하게 된다.

보현삼매품, 비로자나품, 초발심 공덕품, 보현행원품 등 부처님말씀의 향기속에서 삶의 의문을 풀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051)624-7667

미얀마평화탑 참배
국제불교지도자협

국지불교문화지도자협회(회장 묵탁스님)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위한 미얀마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6박7일 일정으로 11월7일에 출발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미얀마의 양곤 파간 만달레이 몽야 등 유구한 불교 역사를 지닌 도시들의 불교사원 파고다 등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 외에도 양곤의 세계평화탑 까바에 모셔져 있는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미얀마 종교성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성지순례는 2천5백년전에 세워진 쉐다곤 파고다, 와불, 보타타웅 파고다 등을 참배하게 된다. (02) 734-0165

山寺서 만추의 서정을
동국대 송광사 순례

동국대학교사회교육원(원장 서윤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1일~11월1일 삼보(三寶)사찰의 하나인 승보(僧寶)사찰 전남 승주 송광사(松廣寺)로 '97 추계명찰순례를 떠난다.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잡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고자 한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정혜결사 도량으로 더욱 유명한 송광사는 16국사(國師)가 출현, 한국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02)260-3048

구수한 문화재이야기
중앙박물관 불교미술강좌

탑과 불상.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은 무엇일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11월8일 오후2시 '불교미술의 이해'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연다. 불교미술의 대가인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가 평생동안 현장답사한 불교문화유적을 오랜 경험과 구수한 입담으로 소개한다. (02)739-3872

혼자서 기도하는 법
천중사 천수경 강의

법당이 아니더라도 장소 구분없이 혼자 기도할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릉 천중사(주지 규범)는 3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매주 목요일 〈천수경〉과 〈관음기도문〉을 강의한다.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이 맡게될 이번 강의는 '혼자서 기도하는 법'에 수록된 〈관음 기도문〉의 내용을 발췌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02)914-3558



◇맑고 향기로운 법음의 메아리. 올 12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3회 맑고 향기로운 가족음악회' 모습.

나의 수행일기


김 희 종 〈성보고등학교 교사〉

"금강경 독송으로 我相 녹여요"
49일 철야기도등 '잠·음식조절' 수행

지난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있었던 티벳 네팔 태국 성지순례는 나에게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되었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동산, 세계의 지붕 수미산왕(에베레스트), 티벳불교의 성지 포탈라궁 등등. 불심으로 가득한 순례지의 스님들과 불자들을 만남으로써 더욱 더 불법의 진리에 다가서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아울러 원초적 대자연의 신비와 오묘함을 느끼면서 생활에 지친 분별심을 내려놓기에도 좋았다.

이번 성지순례는 금강경독송회 원당법당 회원 16명이 함께 한 것으로 82세의 최고령자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재가수행자들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친 계기가 되었다.

순례중에 느낀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6년간 설산에서 고행하셨는데 성지를 찾은 우리들에게는 단 일주일 동안 고통을 줌으로써 업보해탈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고산병' 등 순례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여 지옥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선을 넘나 들었지만 일행이 함께 느끼고 부분적으로나마 깨친 진실된 그 내면의 울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고교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내의 불교학생회를 지도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본격적인 신행은 약 10년전 박희선박사님의 생활참선 모임인 '수요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동시에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인 김재웅법사님과 홍익대 김원수교수님을 모시고 〈금강경〉 독송과 발원 및 정진을 계속 해오고 있다.

어느날 우연히 만나게 된 〈금강경〉 독송과 생활참선은 그때부터 내 삶을 이끌어 주는 수레바퀴가 되어 하루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집중으로서의 생활참선과 무심으로서의 〈금강경〉 가르침의 일치를 체험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이들의 연계를 오랫동안 화두삼아 정진하였다.

우선 생활참선은 호흡과 의식을 단전에 두어 단전에서의 정신집중이 철저히 요구되는 집중법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금강경〉 독송은 어느 한곳에 집중하여 일심을 이룬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자신의 모든 분별을 잘 해탈시켜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음을 체득하는 무심공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아상을 닦아 밝아지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면서 나는 몸뚱이 착의 근본뿌리인 아상을 닦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막연하기에 '잠 해탈'과 '음식 조절'로 수행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누구든 고통과 재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한 평생 동안 이불처럼 덮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정도 철야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차츰 능력이 생기면서 부터는 일주일에 철야기도 시간을 목 금 토 3일로 늘리다가 49일간 계속 해 보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잠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고 여러가지 좋은 체험도 하게 되었다.

특히 철저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밤새워 〈금강경〉을 읽은 날이면 초췌하리라고 짐작했던 얼굴 모습은 간 데 없고 더욱 말쑥해진 얼굴이 거울에서 인사하고, 손이며 다리며 살갗의 모든 피부들은 우유로 목욕을 했는지 윤기가 가득 넘치고 있었다. 마음은 그지없이 편안하고 경건해지면서 밝은 환희심으로 가득차고 그동안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은 아침 햇살의 이슬처럼 자취를 감춰 버렸다.

처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수행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몸에 배었다. 잠과 음식을 해탈하는 수행은 스님들은 물론 번뇌 속에 사는 일반 생활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게 시 판

♣ 인사
△진각종 사감부장=대구교구청 의밀심인당 주교 의현정사.

♣ 알림
△직업간병인교육=지장정사(주지 현정)는 11월5일부터 28일까지 제2기 직업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수, 목, 금요일(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 (0431)54-2258

△천마재활원 합동결혼식=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은 11월1일 오후2시 부산시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재활원 원생 배종호·이정자, 정진구·이영희, 이태근·이경숙씨등 3쌍의 결혼식을 갖는다. (051)247-4084~6

♣ 강좌
△생태계보호 운동=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11월5일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 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강사는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02)765-6324

△부모와 자녀 대화기법=대전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11월6일 대덕중앙새마을금고에서 오후 1시30분~3시 30분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기법'을 주제로 이민정선생('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저자)을 초청하여 부모님을 위한 강좌를 연다.
(042)633-1141~3

△발반사 건강요법=대구 자비의전화 불교사회교육원은 10월3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발반사건강요법강좌를 개설한다. 자비의전화는 오전 10시에 불교사회교육원은 오후2시와 7시30분에 각각 강의를 시작한다. 기간은 3개월이며 회비는 10만원. (053)951-3340

♣ 모집
△보육사·특수교사=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은 보육사(남2여1) 특수교사를 모집한다. 보육사는 50세 이하로 마을에 상주 가능해야 한다. (0371)762-9870

△여직원=대불련총동문회(이사장 명호근)는 일반업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대졸 이상의 여직원을 모집한다. (02)723-9811

♣ 교육
△청소년자원지도자 연수=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11월14~17일 3박4일 동안 현성성사 '97 청소년 자원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 청소년 관련 종사자 80명 대상. (02)735-8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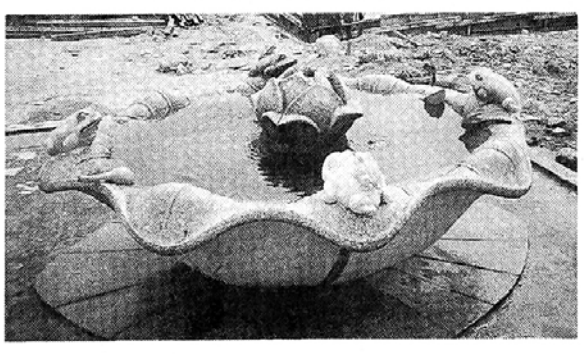
♣ 답사·순례
△송광사·운주사=국토문화순례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11월8, 9일 양일간 송광사와 운주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02)725-1284

△관음사·천왕사=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11월 15, 16일 1박2일간 관음사, 천왕사, 약천사 등 제주도 일대의 사찰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32)663-7776

♣ 전시
△장승업전=한국민족미술연구소(소장 전영우)는 11월2일까지 간송미술관에서 '오원 장승업 100주기 특별전'을 갖고 있다. 산수화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이 전시된다. (02)760-0442

♣ 법회
△보살계수계=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1월3일부터 5일까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을 초청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1)809-0926

△생명나눔회 1돌=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구(회장 심업)는 11월1일 오후5시 불교종합병원 1층로비에서 창립1주년 기념대법회를 연다. (053)6560-911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서산 태안 무량사 약사여래 대불조성 좌불7분 조성
● 전남 여수미륵사 관음상 대불 조성
● 전남 고흥 금산면 금산정사 대불조성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호국불교를 개척할
이 시대의 원광법사를 모집합니다.
승가여!
세존께서 우루벨라 세나니 가마 병장촌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현장으로 달려가 법을 전하십시다.
군불교는 젊은 스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 선발 일시 ●
■ 원서 교부 및 접수 : 97. 10. 22~10. 29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97.10.31(금) 14:00
■ 면접 장소 : 군불교 총본산 군승단
■ 신검 및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응시 자격 ●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2년(학사학위 이상 : 97년도 졸업생까지) 경과하고 포교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일반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을 졸업한 조계종 스님으로서 군포교 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임관시 연령 만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 / 군불교 총본산 군승단 (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41(97)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이 성 타
군 불 교 총본산 군승단장 이 치 영

신비의 옥(玉)이란!
옥에는 5가지의 덕(德)이 있다.
신비의 옥에는 (仁·義·智·勇·潔)등의 5가지 德이 있으니 이를 어찌 귀히 하지 않겠는가!
玉의 특징인 기의 자연 발생과 인체에 관한 실험결과(북경대 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불면증, 심장질환자, 귀울림병, 두통, 어지러움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놀라운 치유효과의 발표가 있는 신비의 옥(108염주, 목걸이)를 염가로 사암 주지스님께 보시하고저 합니다.
※ 한정판매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 원 사
(0331)262-0606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불교문학 가을수확

시·소설등 10여권 '독자 눈길잡기'
박범신·백금남씨 연작소설 발표
'미륵' '종이인형의…' 등 작품성 돋보여

단풍물이 도심 한복판까지 고아하게 밀려든 가을에 걸맞는 불교소설과 시집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불교문학계를 달구고 있다.

〈미륵〉(밀알 刊·전3권) 〈출가〉(우리출판사 刊) 〈흰소가 끄는 수레〉(창작과 비평사 刊) 〈매달려 가지 마라〉(한림원 刊·전2권) 〈종이인형의 사랑〉(선녀와 나뭇꾼 刊) 〈푸른코끼리〉(벽호 刊·전3권) 등 여섯편의 소설과 〈그리운 여우〉(창작과 비평사 刊) 〈꽃잎이 지는 길목에서〉(천우 刊) 〈들꽃의 그리움 가슴에 담고〉(빛남 刊) 〈다시 나를 바라보며〉(홍법원 刊) 〈돌아보면 그가 있다〉(창작과 비평사 刊) 등 다섯권의 시집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의 원융무애 사상을 구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 작품들은 불자들의 불교문학에 대한 갈증해소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박범신씨의 〈흰소가 끄는 수레〉와 백금남씨의 〈출가〉는 다섯편의 소설들이 각각의 인연고리로 연결된 연작소설이다. 1993년 절필선언을 했던 박범신씨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고뇌를 담아 4년만에 발표한 〈흰소…〉는 '흰소가 끄는 수레' '제비나비의 꿈' '골방' '바이칼 그 높고 깊은' '혼잣말' 등 다섯편의 연작소설과 말미에 자서전적 소설 '그해 내린 눈 지금 어디에'가 실려있다.

이중 '흰소…'는 법화경 '삼계화택(三界火宅, 불난집)의 비유'를 모태로 해 불교색이 짙게 드러난다. 출가에서 화두까지 불교적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한 〈출가〉는 '출가' '죽비' '염주' '연비' '화두'의 다섯편으로 나뉘어 각각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전개해 진정한 출가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 백금남씨의 신작이다.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행각을 담은 구도소설 〈미륵〉과 〈매달려 가지 마라〉는 현실 사회 속에서의 불교적 구도행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륵〉은 〈소설 반야심경〉 〈업보〉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시대의 정치적 우울을 구도적 서술에 담아내며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다뤄온 혜범스님의 작품이다. 미륵을 꿈꿔온 젊은 구도자 정각의 수행역정과 그를 향한 한 여인의 억겁의 사랑으로 우주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설이다. 〈매달려 가지 마라〉는 저자인 윤두병씨가 구도자로서 겪었던 고뇌와 열정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한 실화소설로 주인공 윤석규 외의 인물들은 실명 그대로 사용해 절절한 감동을 준다.

장애인의 눈물겨운 사랑을 그린 방귀희씨의 〈종이인형의 사랑〉, 무기수와 결혼한 최양숙씨의 자전적 실화소설 〈푸른코끼리〉 등도 눈길을 끄는 신작소설이다.

이들 소설 외에도 새로 선보인 시집 〈그리운 여우〉(안도현) 〈꽃잎이 지는 길목에서〉(박윤성) 〈들꽃의 그리움 가슴에 담고〉(장기연) 〈다시 나를 바라보며〉(효경스님) 〈돌아보면 그가 있다〉(이원규) 등은 현실사회의 모순과 사랑 등 각각 다양한 주제가 담긴 시 속에 불교적 사상과 향취를 듬뿍 우려내 독자들에게 한발짝 다가선다.

강지연 기자



◇최근 발간된 불교소설과 시집들.

불심시심 〈104〉

강의 어구에 정자 하나

何處名區勝 (하처명구승) 어느 곳이 명승지 뛰어난 구역인가
雙江合一亭 (쌍강합일정) 두 줄기 강물 한 정자로 모이네
紫嵐雲濕濕 (자애운습습) 붉은 언덕 구름은 축축하고
翠檜風冷冷 (취회풍냉냉) 푸른 회나무 바람만 쌀쌀
漁父垂竿立 (어부수간립) 낚싯대 드리우고 서있는 어부
牧童吹笛停 (목동취적정) 목동은 불던 피리 멈추네
遊人還錫下 (유인환석하) 지나던 나그네 지팡이 날려서
十里路沙汀 (십리답사정) 십리의 모래사장 밝아 거니네

용암(龍巖)대사가 '합강정의 운에 따라(次合江亭韻)' 지은 시이다. 두 강이 흐르다 만나는 곳에 서 있는 정자이기에 합강정이라 하였을 것이다. 명승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즐거움에 맞아 감상하기에 족하면 그것이 바로 명승지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대사는 여기에 이르자마자, 어디가 명승지였던가 하면서 곧바로 두 물이 합쳐진 이곳이 명승지라고 대뜸 결론짓는다.

두 강이 합쳐졌으니 물살이 거셀 것은 뻔한 이치이고, 물살이 거세면 양 언덕이 가파를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살이 거세면 물안개가 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다음 구에서 언덕을 이야기했고, 그 언덕에는 짙은 구름으로 가려 있음을 아름다이 보았다. 왜 하필 붉은 언덕(紫崖)일까, 저녁 햇살에 반사된 빛, 또는 계절적으로 가을의 단풍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검붉음의 이 붉음(紫)은 신선의 경지로 많이 응용되는 용어이다. 자운(紫雲)은 상서로운 구름을 나타내고, 자천(紫泉)은 신선이 마시는 우물이고, 자궁(紫宮) 자각(紫閣) 자정(紫庭) 등은 황제의 거처를 말하면서 동시에 신선의 처소를 이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명승지에 걸맞는 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대응되는 회나무의 서늘한 바람이 더욱이 정자의 그윽한 풍경을 더해준다.

시선을 다시 저 강 아래로 돌리면 낚싯대를 드리운 어부의 한가로움과 해저녁의 갈무리를 하기 위하여 소를 모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어울려 강 마을의 저녁풍경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경치를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으니, 석장을 날려 백사장을 거닐어 보는 것이다. 지는 해 등에 지고 한가로이 거니는 한 스님의 요적한 뒷 모습을 보는 듯한 한 폭의 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살풀이 춤을 추는 법우스님.

법우스님 승무 '사뿐사뿐'

11월5일 대전 우송회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법우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이 11월 5일 저녁 7시 대전 우송회관에서 첫 전통춤 발표회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기능보유자 이매방선생에게 승무와 살풀이춤 등 전통춤을, 중요무형무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송암스님에게 범패, 법고무, 바라, 작법무 등을 사사한 스님은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승무'이수자로 지정됐으며 현재 영산재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법우스님이 승무와 살풀이춤을, 스님의 무용계 선배와 도반들이 동참해 허튼춤 선비춤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 (042)271-3395

문화재의 생명력 '시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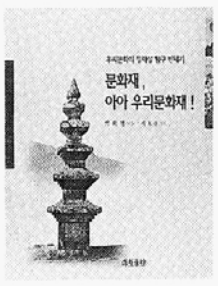
박희진씨 '문화재, 아아 우리문화재' 펴내

완벽한 아름다움의 예술품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감동에 벅차 말을 잃고 만다. 그러나 시인은 넘치는 환희속에서 감성을 아우르고 단어를 선별해

'자브름하게 감으신 눈을
이젠 뜨실 수도 벙으러질 듯
오므린 입가의 가는 웃음결도
이젠 영 사라질 수 없으리니
그것이 그대로 한 영원인 까닭이로다"

〈박희진시 '관세음상에게' 중〉

이렇게 노래해 그 아름다움을 만인이 공유하게 한껏 드러내 준다.



원로시인 박희진씨(66)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들을 순례하며 느낀 진한 감동을 한권의 시집으로 엮었다.

효형출판에서 펴낸 〈문화재, 아아 우리문화재〉는 전우주적 가치를 자랑하는 대가람이나 완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불상, 도자기뿐만 아니라 고사(古寺)의 기왓장 하나에서까지 영성적 투시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는 '미(美)'와 '존재의 의미'를 한껏 만끽하게 해주는 78편의 시를 싣고 있다. 한국화가 이호신씨의 수려한 사찰 전경그림들과 관련 문화재 사진들이 한층 시 읽는 맛을 생생하게 해준다.

지난 40여년동안 '우리문화의 정체성 탐구'를 평생 화두로 삼은 박시인은 이 시집에서 단순히 옛 선인들이 남긴 유물 유적으로서의 문화재 보기를 뛰어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는 인식의 지평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최근 몇년동안 전국 각지의 사찰을 순례하며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으로 사찰시 쓰기에 몰두해 온 박희진시인은 내년 2백여편의 사찰시를 엮어 〈백사백경(百寺百景)〉이란 이름의 시집을 펴 낼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문화소식

한·중·일 민족음악 발표
박범훈교수 '동점' 공연



최근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박범훈교수(중앙대·국립국악관현악단장)가 30·31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 일본음악집단, 중국 중앙민족악단과 함께 '2000년을 여는 아시아의 소리' 합동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는 백대웅씨(중앙대교수)의 교향시곡 '천안삼거리', 일본 미끼미노르씨(일본음악집단 예술감독)의 '비파협주곡', 중국 유금문씨(중국중앙민족악단 예술감독)의 '모리화'가 연주된다. 2부는 이건용씨(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의 '달맞이', 당건평씨(중국음악대학 작곡과 부교수)의 '후사', 박범훈교수의 '동점'이 각각 연주된다. '동점'은 불교가 인도로 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인 실크로드를 연상해 표현한 작품이다.

중국 원로화가 초대전
29일 한국일보 갤러리

한중수교 5주년을 맞아 중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옌한, 야오유둬, 팡청, 위원저우 등 4인 초대전이 29일까지 한국일보사 갤러리(02-724-2320)에서 열린다. 4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팡청의 '포대화상' '미륵' '면벽도' 등 카툰적 화법의 그림이 눈길을 끈다.


◇팡청作 '면벽도'

전남의 불화 '볼 기회'
옥과미술관, 11월22일까지

전남의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선양에 힘쓰고 있는 곡성 옥과미술관(관장 성춘경)이 개관1주년을 기념해 '전남의 불화전'을 개최, 전남 곳곳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우수한 불화들을 일반에게 선보이고 있다.

11월22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044호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 대각국사 진영을 비롯 전남의 유형문화재인 여천 흥국사 관음보살도(제187호), 해남 대둔사 십일면천수천안관음보살도와 준제관음보살도(제179호),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진영(제176호) 등 23점의 불화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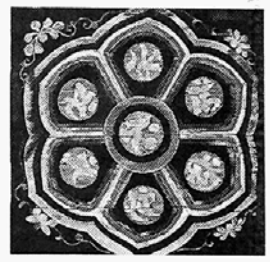
통도사 대웅전 단청 모사전

11월9일까지…기둥·공포·천장등 44점

현존하는 우리나라 단청중 최상의 것중 하나로 꼽히는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 단청문양을 모사한 모사특별展이 11월 9일까지 통도사 만세루와 경내에서 열리고 있다.

통도사대웅전의 기둥, 가구, 공포, 지붕, 천장 등의 단청을 그대로 모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실내의 어두운 조명에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던 단청의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조화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사작품 44점을 감상할수 있다.

이번 대웅전 단청의 모사는 김창균(문화재전문위원) 마성우(한국불교미술협회원) 박근형(문호재수리기술자) 김지연(동국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연구원)씨 등 14명의 작가가 담당했다. (0523)82-1001


◇통도사 대웅전 천장의 '연화다라니문반자초' 모사.

하! 수상한 시절, 미륵세상이 오긴 오려나
대통령은 미륵보고 웃고 미륵은 대통령보고 웃고
전국서점가 베스트셀러 에고
혜범스님 장편소설
미륵
문득 고개들어 하늘보면 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륵세상
「소설 미륵」은 에루동업(俯老同穴)과도 같은 억겁의 사랑을 키워온 한 여인과 미륵을 꿈꿔온 젊은 구도자의 질박한 수행역정을 통해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불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길잃은 슬픈 중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미륵이있다.
모든 인간에게서 미륵을 본다.
세상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모두의 가슴에 미륵하나 묻어두고 산다.
미륵의 월급쟁이, 미륵의 농부, 미륵의 구도자, 미륵의 대통령…
세상의 온갖 때를 말없이 닦아내는 걸레같은 사람들
세상의 썩은 물을 말없이 걸러내는 연꽃같은 사람들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륵같은 사람들
아! 그리워라. 꿈과 일과 밥이 하나되는 세상이여.
길을 가다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이 눈부시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륵세상이 오긴 오려나.
"나는 이 땅의 승려로서 새시대를 기다리는 중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민족의 번영과 희망을 안겨줄 미륵대통령이 나투시어 새역사를 경영해줄 것을 염원합니다"
「소설 반야심경」「소설 업보」의 작가 혜범스님이 깊은 산중 암자에서 길러낸 한 모금의 감로수와도 같은 소설 미륵. 미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며 화두이다.
전국서점 절찬판매중
전3권/각권 값6,000원/신국판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번지 개암B/D 2F 밀알 TEL5290140~5·FAX5792312

굼벵이의 꿈 매미의 노래
부록 : 신선이 되는 길
모든 애벌레 몸속에 한마리의 매미가 살고 있듯
모든 사람들 가슴에도 자유의 매미가 살고 있다
하잘것 없는 굼뱅이가 갖은 고난을 겪고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소리를내는 매미가 되고 이어 본래의 자리인 대생명(大生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인생교사'로서 작은 미물인 매미가 우리에게 체질화된 조급증과 이기심을 털어버리고 '기다림'과 '베푸는 삶'의 미학을 깨닫게 한다.
사람이 심기신(心氣身)수련으로 탈바꿈하여 신선이 되는 길잡이로 "신선이 되는 길"을 부록으로 실었다.
글과 조화를 이룬 삼화가 책의 묘미를 더해준다.
●禪을 주제로 굼벵이와 매미의 비유를 통해 초월자의 모습을 그려낸 동화소설로 자연에 묻혀 영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동아일보-
●굼벵이가 매미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우화로 꾸며 대생명의 순환법칙을 깨닫게 한다. -한겨레신문-
●이 책은 카오스로 치닫는 이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독본이다. -서울신문-
·국판(양장본)/138쪽/값 5,500원
· 글/ 고준환(경기대 법학과 교수),(하나로 포럼 禪定會) 대표
· 그림/ 하수경(전주대 회화과 교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번지 개암B/D 2F 대화 TEL5290140~5·FAX5792312

출판 소식

서운선사법어집 발간



이목당(二木堂) 서운(瑞雲)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서운선사법어집〉이 발간됐다.

서운문도회에서 펴낸 이 법어집은 방송작가 윤청광씨가 서은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법어와 오도송을 비롯 스님이 평소 집필했던 글들을 모아 놓았다. 또한 스님의 생전모습을 담은 화보도 수록했다.

여성관련 문헌자료 전시



◇박영돈씨

재야 서지학자 박영돈씨가 그동안 수집해 온 우리나라 여성문인의 글씨, 탁본, 여성과 관계된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여성관계 문헌자료 전시회'를 31일까지 교보문고 전시장에서 연다.

한국애서가클럽의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허난설헌의 시집인 〈난설집〉, 신사임당의 필본, 탁본 〈팔양경〉, 〈인락국전〉필사본 등 120여종이 선보인다.

'화두와…' 가을호 나와

계간〈화두와 실천〉(실천불교전국승가회 刊) 가을호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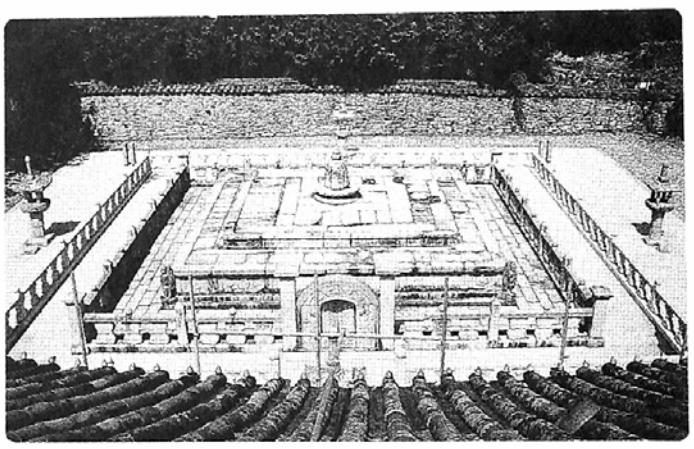
이번호에는 특히 기획시리즈 네 번째 '유전공학의 발달과 인간상실'을 통해 유전공학과 불교인간, 유전공학과 불교사상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정승석교수(동국대)는 '유전공학과 불교사상'제하의 글에서 "생명복제는 업의 의타(依他)복제이며 유전공학은 윤회를 신뢰하지 못한데서 발달한 것"이라면서 "공업공생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받아들일때 유전공학이 인간의 자기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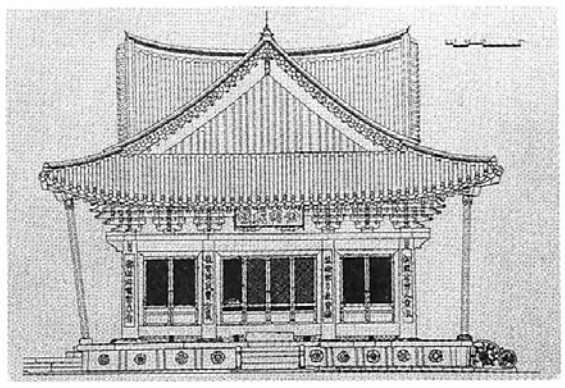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제27차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을 선정 발표했다. 〈환경과종교〉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 〈그리운 것들은 산뒤에 있다〉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등을 비롯 문학, 역사, 정치, 경영 등 10개분야 총 35종이다.

통도사 실측보고서 나왔다

불교건축 상징성·기법 자세히 소개
사진·도면실어 복원자료 활용가치





◇통도사 사리탑 전경

◇대웅전 전면 실측도

한국 사찰건축의 총체적인 축도로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연구대상으로 꼽히는 통도사의 핵심당우인 대웅전과 사리탑을 실측조사한 〈통도사 대웅전 및 사리탑 실측조사보고서〉(총 429쪽)가 나왔다.

이번 통도사 실측조사보고서는 지난 96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지정문화재 재평가 과정에서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국보 제290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결과들을 묶은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2억원이 소용된 이번 실측작업은 불보종찰 통도사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동안 금산사, 실상사 등 몇몇 사찰의 주요 목조건물에 대한 실측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처럼 전체적으로 실측작업이 이뤄지고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는 처음이다.

이 책은 △통도사의 연혁 및 성보문화재(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 △통도사의 건축(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소장) △통도사 건축의 조영사와 가람구성(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열교수) △통도사 석조금강계단의 연구(동국대 문명대교수) △통도사 대웅전 실측조사(우리건축사무소 김태조소장, 대원고건축연구소 심대섭대표) △종합고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분마다 사진과 도면그림을 실어 통도사의 전체적인 면모를 상세히 정리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실측조사 대상인 대웅전과 사리탑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자료와 심도깊은 논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건축이 가졌던 모든 상징과 공간적 기법들이 하나의 절속에 응집되어 있음을 낱낱히 보여준다.

특히 책의 앞부분에서 통도사 전경과 대웅전, 사리탑을 비롯 통도사의 구석구석을 원색화보로 담았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이번에 실측한 도면도판 전체를 실어 복원자료로써 활용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신라 범종등 불교공예품 융성"
이호관씨 '한국의 금속공예' 펴내

지난해 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서 정년퇴임한 이호관 문화재전문위원이 한국 금속공예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한국의 금속공예〉(문예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이씨는 "우리의 생활전통과 관습, 고유신앙에다 불교의 전래에 따라 가장 화려하고 다양했던 것이 삼국시대의 금속공예품이었다"면서 "이에 비해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의 강한 영향을 받아 중국적인 것으로 변질돼 간 반면 범종, 사리장엄구 등 불교관계 공예품이 발달했다"고 고찰하고 있다. 또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를 계승하면서도 특유의 조화의 묘와 비례의 미가 돋보였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에 따라 불교의 영향아래 발전했던 금속예술이 자연히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책에서 주조·단조 등의 수법과 도금 및 입사 상감 등의 장식기법이 각 시대별로 특색을 갖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고전 발굴보존 정부기구 필요"
애서가클럽, '문화유산으로서 책' 심포지엄

책은 그 자체가 전통과 문화를 전해주는 중요한 매체이자 우리선조들의 생활과 생각을 후대에 까지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한국애서가클럽(회장 정성구)이 지난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책' 학술심포지엄에서 문화유산인 책의 올바른 전존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윤병태교수(충남대)는 "책도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문화재로서의 책 보존과 활성화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남권희교수(경북대)는 정부부처 산하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고전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대한 통일성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발굴과 사찰소장의 자료발굴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문화재관리국 제2과장인 고수길씨는 전적의 일반공개, 노출을 위한 지정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가지정전적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점검을 계속하고, 유물의 소독과 수장금고의 대여와 수리, 복원 및 영인사업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적문화재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심경호교수(고려대)는 "전적문화재는 발굴보존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유산 사랑 "자주 접하자"
조직위 '문화유산을 찾아서' 펴내

문화유산의 참가치를 알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현장을 자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가 있는 답사-문화유산을 찾아서〉는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전국의 문화유산을 안내하기 위해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최근의 답사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발맞춰 주제가 있는 답사 안내서로서 전문가 안내 없이도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통마을, 문학작품의 산실, 정자 및 누각, 선조들의 노래가락, 주요사찰, 국난극복의 애국현장 등 11개 대주제 아래 각각 답사지개요, 문화유적, 교통지도, 볼거리,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는 지난달 부터 문화유산 답사안내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netsgo.com/dapsa 이다.

화두 | 김원각 지음

"지식에 가린 본마음 화두 통해 보자"



마음의 비밀을 깨치는 것, 자기 마음을 의지대로 몰고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깨침의 목적이 있으며 그 극치는 유무와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놓은 것이 〈화두〉에 소개된 화두들이다.

이 책속에 던져져 있는 화두는 인생의 본질, 즉 마음을 해결해 주는 문제 제기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은 내던짐으로써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신의 본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시인이자 동국대 역경위원이기도 한 김원각씨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1700 화두 가운데서 대표적인 140공안을 간추려 알기쉽고 간결하게 풀이했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화제의 책

간추린 인도불교사 | 정의도 번역

가톨릭 신부가 쓴 불교역사와 교리



〈간추린 인도불교사〉는 가톨릭 신부이면서 동양학, 인도학자이자, 불교연구가인 에티엔 라모트 주교가 쓴 불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입문서이다.

기본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온 불교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책은 인도불교를 4가지 형태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샤키야무니 불교'는 기원전 6세기의 샤키야무니의 불교를 살펴보고, '성문의 불교'에서는 스승이 남긴 교의에 가장 가깝게 머물렀던 제자들이 펼친 불교를 설명했다. '대승'에서는 기원 전후에 형성돼 가장 야심찬 종교적 이상과 교의, 교단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승불교를 고찰했다. 또 주술과 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탄트라는 '금강승'에서 짚어냈다. 〈시공사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4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라다	일 타	효 림
5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6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7	명상길라잡이 ·	박 석	도 솔
8	신반야심경강의	혜 담	불교시대사
9	선(작은책 2)	석 지 현	민 족 사
10	조주록 탐구	고 목	삼 양

구입문의:(02)737-0695

책이있는 시간 · 책이있는 공간 · 시공사

마음으로 떠나는 사찰여행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미영순 지음/295쪽/값 7,000원

가끔은 배낭 속에 쌍안경 챙겨 넣고 먼 길을 떠난다.
세상이, 그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궁금해서.
바쁠 것도 없고 기쓸 일이란 처음부터 있지도 않다.
내 앞의 그 무수한 이들이 밟고 간 길을
헝얼헝얼 콧노래로 따라가노라면
발 밑에 다져진 흙만큼이나 많은 그들의 세상살이가 펼쳐진다.
마주오는 이의 옷깃 스침도 소중하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뜻도 소중하다.
그 소중한 인연 따라서
물 소리 바람 소리 따라서
그냥 구름처럼
내가 없는 세상 속으로 나를 주으러 홀쩍 길을 떠난다.

내가 없는 세상 속으로
나를 주으러 간다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값 6,000원
삶을 꿰뚫은 1,700가지 쌀막한 생각들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값 5,000원
어렵게만 느꼈던 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는 안내서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 값 6,500원
숨어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

인생 美學
앤소니, 샐리 샘슨 편저/김도원 옮김
/값 6,500원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1백 살까지
각 나이에 대한 단상을 세계 저명인사들의
편지와 일기, 작품과 연설문 등에서
가려 뽑아 놓은, 나이에 관한 앤솔로지

유서
박심중 외 14인/신국판/값 5,500원
이 지상에 뿌리고 가고 싶은
15인의 마지막 말들

밤새 홀쩍 크는 아이들
김영희 지음/값 6,000원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로 불리는 김영희가
그녀의 다섯 아이와 벌이는 사랑과 전쟁,
그리고 갈등과 화해의 솔직한 이야기

발끝에서 손끝까지
김영희 지음/값 7,000원
가슴 깊이 담았다가 소설로 빚어낸
진한 사랑의 이야기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 교계 학술연구단체 하반기 논문 67편 분석

응용불교학 연구 '학자 관심'

'깨달음의 사회화' 기여… 교학집중 여전

근대불교사 · 범어 · 백화문 연구 부진

한국불교학을 주도해 가는 한국불교학회, 성철선사상연구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의 올 하반기에 발간하는 불교학 논문 67편을 분석한 결과 교리철학 · 경전 등 교학 연구가 46.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학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응용불교학 등의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연구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불교학〉(제23집 · 한국불교학회) 〈백련불교논집〉(제7집 · 성철선사상연구원) 〈불교학보〉(제34집 · 동국대학교) 등 6개 불교 학술지에서 나온 학술논문 총 67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리철학 20편(29.8%), 불교문화 12편(17.9%), 불교경전 11편(16.4%), 불교사 8편(11.9%), 응용불교학 8편(11.9%), 언어 4편(5.9%), 불교문학 2편(2.9%), 계율 · 수행 2편(2.9%) 등이다.

화엄 · 유식 · 선 · 여래장 등 대승불교 연구가 주류를 이룬 교리철학과 불교경전 분야의 비중이 큰 것은 선과 교학의 전통이 강한 한국불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학 집중 현상은 교학의 발전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이와함께 불교가 사회의 제반 문제를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의 다양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논리학 · 심리학 · 비교종교학 등의 응용불교학 연구는 11.9%(8편)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타학과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시도되었던 응용불교학 연구들이 불교학계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변화로 풀이된다.

응용불교학은 불교가 관념의 종교라는 한계를 넘고 삶의 구체적 현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이론작업으로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는 "신행, 포교 등의 학술적 이론이 미미한 분야를 연구해 불교학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며 응용불교학이 늘어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불교사 연구 논문 8편중 근대불교사 연구는 1편으로 근대불교 연구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율 · 수행에 대한 연구도 전문 수행인을 위한 '청규'와 '화두참구'에만 국한되고 있어 재가불가의 올바른 계율관과 신행을 이끌어 주기 위해 신행 · 포교 관련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 분야의 연구에서도 지관스님의 금석학 관련 논문을 제외하면 중국 고대어인 '백화문법 연구'가 유일하다.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는 "한국불교는 한문경전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경전을 기록했던 백화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며, 이것이 경전 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불교학이 팔리어 범어 등 원어 뿐 아니라 백화문 연구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증욱 기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 3월 개최한 '세계 승가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올 하반기 발간되는 학술지

단 체	학 술 지	발간월 · 주제	연락처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23집	11월 · 자유주제	(02)260-3120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34집	11월 · 자유주제	(02)710-9329
성철선상연구원	〈백련불교논집〉 7집	11월 · 선(禪), 자유주제	(02)265-5215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학보〉 6집	10월 · 자유주제	(02)765-9602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15호	11월 · 불교와 유교	(02)3411-6167
원효학회 · 연구원	〈원효학〉 2권	11월 · 원효의 신(信)	(0561)42-9922

"불보살 가피는 화엄법계 연기법"

윤원철교수 주장



"불보살의 가피(加被)는 개인의 염원과 불보살의 자비가 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엄법계의 연기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가 18일 성철선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백련불교 아카데미에서 '가피, 구도, 제도(加被, 求道, 濟度)'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불교가 기복종교라는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말인 가피, 구도, 제도 등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불보살의 가피란 불교의 종교 ·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가피의 주체 신격화 유일신적 사고의 오류"

윤교수는 "많은 불자들이 가피를 주는 주체로 약사여래 등을 생각하고, 이들 주체를 타종교에서의 신(神)처럼 여기곤 한다"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교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종교 다원화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일신에 대한 일방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서양의 종교관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가피의 개념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교수는 "동양의 종교관은 신앙 뿐만 아니라 이성을 강조한 철학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는 서양의 'Religion(종교)'과는 다르게 신앙과 이성을 바탕으로 종(宗), 교(敎), 학(學)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불보살 가피의 올바른 개념은 화신이 보신을 통해 법신의 세계를 보여 준다는 삼신불 사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화엄법계의 연기"라며 "가피, 구도, 제도 등의 개념을 새롭게 세워 원시, 부파, 대승 등 다양한 불교교리의 입장에서 재정립하고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불교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욱〉

'원흥사 창건 일본불교 견제 위해"

김경집 박사 '1902년 창건설' 주장

대한제국이 정토종 등 일본불교를 견제하기 위해 동대문 근교에 창건했던 도심사찰 원흥사(元興寺)는 한국불교의 전통 법맥을 보전-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창건 시기를 둘러싸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원흥사의 창건과 그 시대적 의의'를 발표한 김경집박사(동국대 불교학)는 "원흥사는 대한제국 광무 6년인 1902년에 창건됐다"고 밝혀 그동안 1899년 · 1906년 창건설 등의 연대 논쟁을 일축했다.

이같은 주장은 종토종 대승도(大僧都) 황안진수(廣安眞隨)가 1898~1902년까지 한국에서의 포교사를 기록한 〈정토종한국개교지(淨土宗韓國開敎誌)〉를 토대로 제기됐다. 김박사는 "이 책에는 1902년 원흥사 개당식에 초청을 받았던 황안진수가 5백여명의 스님과 3백여명의 재가신도가 참석했던 당시 개당식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며 '1902년 창건설'을 뒷받침했다.

또 "황안진수는 일본불교의 교세가 경성내에서 위세를 발휘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제국이 주도한 것으로 창건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원흥사 창건의 시대적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흥사는 산중불교에 길들여진 한국불교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생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대한제국이 원흥사 창건이후 적극적인 흥불(興佛) 후속 정책을 시행하지 못해 2년만에 폐사되었다.

연해주서 발해불교사원 발견

러시아학자 밝혀… 금당지 · 불상 등 출토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서북쪽에 거대한 규모의 발해 불교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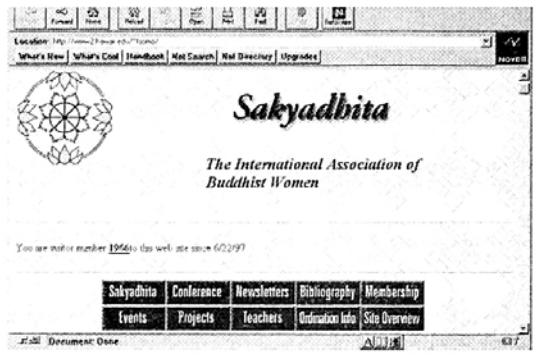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현재 이 지역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볼딘(Boldin)학예실장(블라디보스톡 극동고고학연구소)이 21일 동국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한 강연에서 밝혀졌다.

볼딘 학예실장에 따르면 크라스키노 성벽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해사원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 가마터와 우물터 등을 발견했다는 것.

지금까지 상당부분 발굴이 진행돼지 않아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춧돌이 30개나 되는 금당지와 사찰내 가마에서 직접 기와를 구운 흔적이 있어 상당히 규모가 큰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출토된 유물은 석불상 3구를 비롯 청동불상과 청동보살상이 각각 1구씩이며,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기와도 다량 출토됐다.

볼딘실장은 "재정이 어려워 발굴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나 발해사원지는 연대가 확실하고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발해사원 건축 및 불교미술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라고 말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의 딸들

육아 · 수행등 세계여성불교계 「조망」

세계여성불교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줄리안 밀튼이 하와이대학 서버에 개설한 '부처님의 딸들'(Sakyadihta)이다.

이 사이트는 1987년 인도 부다가야에서 청설된 국제여성불자연맹 홈페이지로 1991~1996년까지 연맹 소식지의 전산본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서의 신심'(96년)의 주제로 스리랑카 민족-종교 분쟁을 다룬 에세이를 비롯해 여성의 역할 · 육아 · 수행 등을 주제로한 글 40여편이 소개된다.

〈만개한 연꽃:여성을 위한 불교 입문〉(비론출판사), 〈지혜의 여성〉(뉴욕출판사) 〈버랑에 선 여성불자〉(아틀란틱서적) 등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여성불교 관련 서적 76권의 작가, 출판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또 ISBN(국제표준서적번호)을 알려주고 있어, 불자네티즌은 이 책들을 국내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달라이 라마, 틱낫한, 페마 쵸드론 등 9명의 스님들이 출가를 염원하는 여성불자들에게 감로수 같은 설법과 계율도 전하고 있다.

주소는 http://www2.hawaii.edu/~tsomo/

국제소식

中 성직자 30만명중 스님 20만명

중국의 성직자 30여만명중 승려 수는 20만명으로 밝혀졌다. 이 수는 도교 2만5천명, 이슬람교 4만명, 기독교 2만2천명 등 타 종교 성직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중국 국무원이 중국 헌법 36조에 따라 조사한 중국의 종교 백서 '중국의 종교 신앙자유 상황'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종교인구는 1억여명이며 종교단체는 3천여개에 달한다. 독립문제로 중국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티벳에서는 1천7백여개 사찰에 4만6천여명의 스님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종교인구 수는 개방이후 중국이 종교자유를 존중해 더욱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美 헐리우드스타들 '티벳독립' 앞장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는 헐리우드 대형 스타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주석 강택민의 발목 잡기에 나섰다. 이 스타들은 리차드 기어, 샤론 스톤, 해리슨 포드, 올리버 스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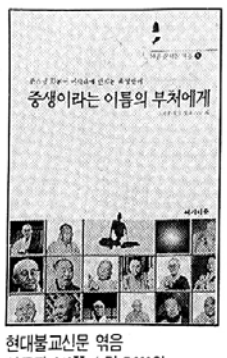
이들은 강주석이 워싱톤을 방문하는 28일부터 '티벳을 밟고 있는 중국군의 군화'를 그린 대형 그림을 워싱톤 거리에 거는 것을 시작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또 미국 공영방송사도 '티벳의 꿈', '전선' 등의 다큐멘타리도 방영해 티벳을 유린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 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강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한 백악관 저녁 만찬이 열리는 29일에는 리처드 기어, 해리슨 포드 등이 백악관 주변에서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리처드 기어 등은 지난 4월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한 클리턴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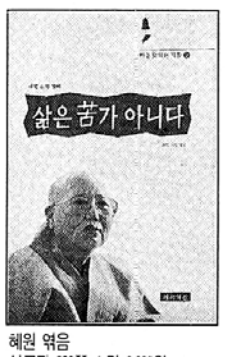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마음 맑히는 책들 ②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금강경 대강좌

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6

운문의 똥막대기 (上)

*누가 운문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뒷간의 똥막대기다."

*나 혜개가 말한다. "운문은 집이 가난해 변변히 차리지도 못하고, 일이 바빠 갈겨 쓸 틈도 없구나. 걸핏하면 똥막대기를 가져다가 문짝을 떠받치니 불법의 흥쇠를 가히 알겠다.

*송하여 가로되, 번갯불이 번쩍하고 부싯돌이 튀긴다. 눈 깜박할 새에.그것은 지나가 버렸다.

雲門屎

雲門因僧問, 如何是佛. 門云, 乾屎 . 無門曰, 雲門可謂, 家貧難辦素食,事忙不及草書. 動便將屎 來, 擡門 戶. 佛法興衰, 可見. 頌曰, 閃電光, 擊石火. 得眼, 已蹉過.

운문은 벌써 세번째 등장하고 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동산을 〈이 밥통아〉라고 면박주어 하룻밤을 번민하게 했고(제15칙), 또 "종소리만 들리면 어째서 옷을 걸치느냐"고 대중을 질타하던 것(제16칙)을 기억한다. 세계는 이렇게 광활한데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의 죽은 삶을 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던 목소리가 아직 쟁쟁하다. 그 운문이 어려서 출가했고 율장에 심취하다가 황벽의 제자인 목주에게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했다. 온갖 수모와 푸대접을 받다가 급기야 문틈에 발을 이심전심(以心傳心), 둘은 말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운문은 설봉의 문하에서 몇년을 지내며 선의 깊이에 침잠해 들어갔다.



그림 · 이준석

설봉으로부터 법의 인증을 받은 운문은 각지를 순방하며 곳곳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영수(靈樹). 지성(知聖)선사가 20년간을 주석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지성 선사는 대중들의 리더격인 방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곧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신비스런 예언을 하면서. 어느날 지성선사는 갑자기 종을 울려 대중들을 산문밖으로 모았다. 그분이 이제 도착했으니 나와서 맞으라는 것이었다. 다들 우르르 몰려 가보니 그곳에 우뚝 운문이 서 있었다. 운문의 종종은 독특하다. 앞으로 두어 차례에 걸쳐 그것을 더듬어 보려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일화를 보자. 지성 선사가 입적한 후, 운문은 영수의 방장이 되었다. 그곳을 관장하는 관리가 취임식에 참석했다. "못난 제자가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 겸손한 물음에 운문은 이렇게 대답했다. "눈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目前無異路)." 이 대답은 의미심장하다. 운문은 아마도 일주문 앞을 가리키며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산문밖에 마을로 나 있는 길은

"못난 제자 가르침을 구합니다"
"눈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찍히고서 운문은 한쪽 눈을 열었다. 목주는 나머지 반쪽 눈을 틔워주려고 그를 설봉에게 보냈다. 설봉은 밥그릇을 들고 어슬렁거리던 덕산을 시험대 위에 세운(제13칙) 바로 그 사람이다.

운문이 설봉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설봉이 거하던 산 밑에 다다른 운문은 한 승려를 만나 이런 부탁을 했다. "설봉화상이 집회를 열거든 두손을 맞잡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불쌍한 사람, 어째서 목에 찬 칼을 벗지 않는가〉라고 말하시오. 절대로 내가 시켰다는 말은 말고 말이오." 그 승려는 운문이 일러준 대로 연기를 했다. 설봉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 그 승려의 멱살을 붙들고, "어디 말해 봐, 말해"라고 을렀다. 승려는 예기치 않은 반응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설봉은 "그거 네가 한 말이 아니지?" 하고 재차 다그쳤다. 처음 승려는 자기가 한 말이라고 우기다가 서슬퍼런 추궁에 사실대로 실토했다. "실은 절강에서 온 어떤 스님이 시켜서 그리 했습니다." 이 말에 설봉은 대중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들이여, 산 밑으로 내려가 5백 수행승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을 모셔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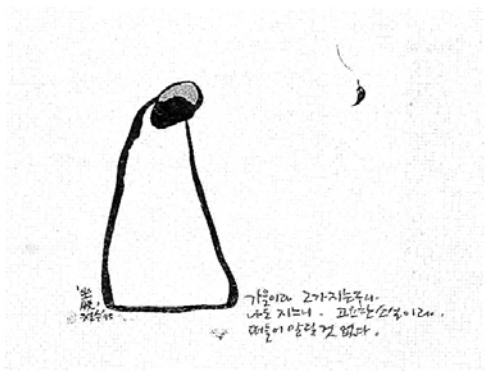
다음날 운문이 도착했다. 그를 보며 설봉이 물었다. "어떻게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운문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오직 하나이다. 그러나 이 대답이 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하나뿐인 길은 무엇이고,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느날 운문은 궁중에서 열리는 잔치에 초대되었다. 정부의 고위관리 하나가 운문에게 물었다. "영수(靈樹)의 과일은 익었습니까(靈樹果子熟也來)." 운문이 주석하고 있던 영수(靈樹)는 〈신령스런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관리는 그 신령한 나무에 과일이 잘 익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이 물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우선 소문난 운문 당신의 정신적 경지가 어느 정도이냐, 즉 선의 궁극적 진리를 과연 깨쳤느냐. 둘째, 당신은 한 산문의 지도자로서 수백의 제자들을 선의 진리에로 잘 이끌고 있느냐. 어느 편이든 속기를 벗지 못하고 거들먹이 배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질문에 운문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느 해인들 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什麼年中, 得信道生)" 여기서 독자들은 일년 내내 달려 있는 과일이나, 갑자기 정지해 버린 사진 속의 풍경을 떠올려서는 안된다. 운문은 지금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운문의 〈하나뿐인 길〉이 그 어디쯤에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6〉



◇이철수 作 '좌탈'

아뢰야식 일체세계 저장…윤회 주체
7식번뇌 제거하면 8식청정 되찾아

번뇌식으로써의 말나식은 다시 어떤 모체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데 특징이 있다. 제7말나식이 앞의 오식과 육식을 되받아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좀더 근원적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제7식의 근거가 되는 식을 제팔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알라야 비야나(alaya-vijnana)의 음역으로 장식(藏識) 무몰식(無沒識)이라고 번역하며 일체를 포함하는 마음,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마음이라는

팔식(八識) (下)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가지 심식설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 광대한 뜻을 가진 것이 이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은 앞의 말나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일체의 세계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과보의 마음임과 동시에 그 저장된 세계를 다시 말나식을 통해 나가게 하는 종자의 마음이다.

유식론에 의하면 자신과 산하대지는 물론 인식되어지는 일체 세계는 아뢰야식에서 나타난 그림자이다. 그뿐아니다. 아뢰야식은 모든 생명의 원동력으로 윤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전생업의 총보 이면서 금생과 내생업의 종자인 아뢰야식은 칠식과 함께 강력한 애착력이 있어 삶과 죽음을 되풀이 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전생의 크고 작은 번뇌들이 가득히 저장되어 있으면서 인연이 도래하면 제7 말나식을 다시 충돌질하여 번뇌를 짓고 업을 짓는 것이다.

유식론에 의하면 아뢰야식은 칠식에 의하여 오염되기는 하지만 그 참된 성품은 아주 참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칠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착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식인 말나식 기준으로 앞의 6식과 뒤의 8식을 정화해야만 한다.

아뢰야식 속에는 7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중생의 모든 더러운 법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청정한 법도 들어있다. 이렇게 자신과 세계, 범부와 성현을 모두 갈무리하고 있는 이 아뢰야식은 모든 것의 근원처이며 발생처이며 보관처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중생이라고 하여도 마냥 중생은 아닌 것이 중생의 아뢰야식속에 있는 칠식의 번뇌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대로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언제나 변화 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든다고 할 때 전오식은 곡식을 나르는 다섯명의 일꾼에 해당되고 6식은 곡식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7식은 그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곡식의 주인에 해당되고 8식은 창고와 곡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창고와 곡식의 주인이다. 곡식의 주인은 더러운 욕심으로 쌓아둔 창고의 곡식을 영원히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 본래 창고 속에 들어 있는 곡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곡식은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어서어서 창고 주인이 죽기 전에 회심하고 그 곡식이 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만인들에게 심고 거두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4

불교와 수학

29

돈교와 점교

김 용 운

한번에 깨치면 돈오…단계 거치면 점수
지식의 축적 '점' 생각하는 힘 '돈'

돈(頓)은 일정한 단계를 밟지 않고 비약적으로 높은 종교적 입장에 당도케 하는 것이며 점진(漸進)이나 단계적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대승의 깊은 이치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그 것과는 대조적으로 점교는 차례를 밟아 점진적으로 오랜 수행을 겪어 대오의 경지에 이른다. 때때로 불교계에서는 돈·점(頓·漸) 논쟁이 벌어진다.

그 내용을 들고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 주자학의 이기(理氣) 논쟁을 방불케 한다. 이(理)가 있고 그 위에 기(氣)가 나타난다. 아니다. 기가 있음으로써 그 속에 이가 나타난다는 식의 대립이다. 모든 현상을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까지는 공통인데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리(主理), 주기(主氣)로 나누어진다. 특히 오랜 조선 주자학의 논쟁 역사를 갖는 한국인에게는 심각한 논쟁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철학적인 논의이기에 보는 입장에 따라 어느 쪽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나와 같은 범속한 사람에게는 돈, 점 어느 쪽도 그럴싸한 논리이다.

이에 관한 비슷한 문제에 수학자는 관심을 가져왔다. 즉 수학적인 진리(법칙)에 도달하는 것은 직관일까? 아니면 누적된 지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일까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능과 지식을 혼동하는 데서 나온 것 같다. 우선 지능과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지능과 지식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수학에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또는 기호와 문자는 지식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능은 생각하는 힘이며 지식이 많다 해서 반드시 지능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다음의 수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 전후 관계를 살펴 보고 빈 칸( ) 속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라

4, 5, 3, 9, 10, 8, 24, ( ), 23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다.

4, 5, 3, 9, 10, 8, 24, ( ), 23,
+1 -2 ×3 +1 -2 ×3 +1 -2

다시 말해서 차례로 +1, -2, ×3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 속에는 24에 1을 더한 25를 넣어야 옳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배열되어 있는 숫자의 전후 관계를 유추해서 "+1, -2, ×3"이라는 수열의 규칙을 스스로 생각해 내어야 한다. 이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열의 규칙을 생각해 낼 힘이 필요하다.



그림 · 최주현

지능이란 '생각하는 힘', 다시 말해서 지식은 '새로운 국면에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식의 축적을 점(漸)으로 한다면 생각하는 힘은 돈(頓)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수학 연구는 이 점(漸)과 돈(頓)의 얽힘 속에 발전해 간다.

불교적인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은 수학과 같은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과도 같이 수행 단계가 필요한 것은 같지 않을까?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백화사설초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한국산 약초



★ 특허출원 제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함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生活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에까지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사장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불가능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裏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옹·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中에서)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刊))
간염,장염,요초감염,맹장염,편도선염,인후염,각종 종기,타박상,위암,직장암,간암,자궁경암,방광암
◎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장염,요도염,인후염,급성 충수염
◎ 백화사설초(진존인 저, 동도문화사 刊, 한방의학대사전중)
급성 충수염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고불식에서 유나 철우스님이 습의도감 도일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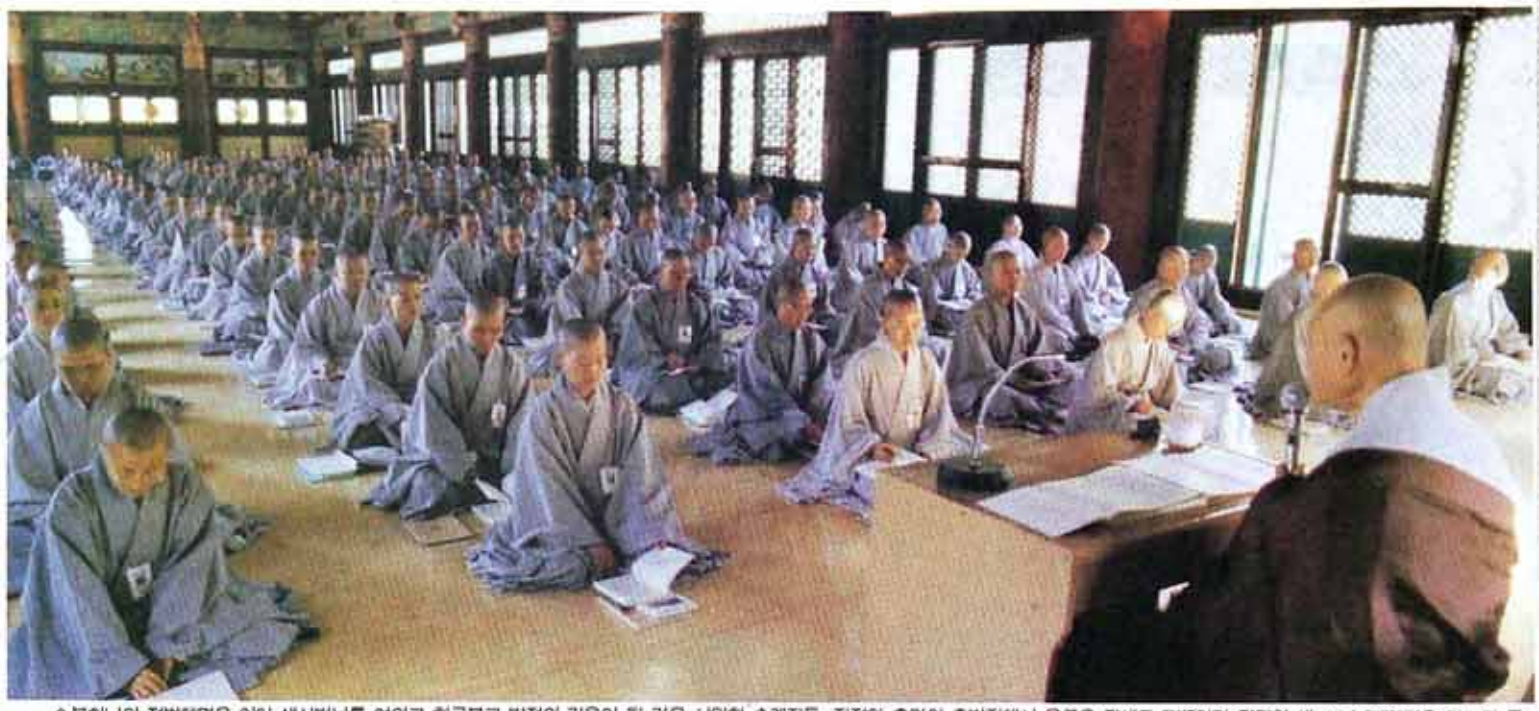

◇식당작법 습의를 하고 있는 수계자들.


◇사미니스님들이 차수를 하고 안행에 임하고 있다.


◇적멸보궁에서 1보1배정진.


◇구족계 수계식에서 연비의식이 진행되고 있다.(94년 자료사진)


◇가을단풍 아래 수계를 받고 돌아가는 스님들의 모습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여주는듯 하다.


◇부처님의 정법혜명을 이어 생사번뇌를 여의고 한국불교 발전의 거울이 될 것을 서원한 수계자들. 진정한 출가의 출발점에서 옷깃은 자세로 6박7일간 정진한 새 스님 3백33명은 불교의 통량과 중생구제에 몸바칠 것을 서원했다.

"정법혜명 잇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세속의 부모친척과 온갖 티끌을 버리고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하는 것은 명예와 이양을 위함이 아니옵니다. 생사번뇌를 여의고 … 이몸이 부처의 몸에 이르도록 계율을 범하지 않으리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출가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에 설치돼 있는 금강계단에서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한다(通度·통도)고 해서 통도사(通度寺)라 한다'고 했던가. 조계종 제1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授戒山林)이 전국에서 3백33명의 수계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11일부터 17일까지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엄수됐다. 영축산 자락마다 진홍의 단풍잔치가 요란한데 통도사의 깊은 적요 속에서 수계산림의 입제식이 시작되어 수계제자들의 발원문이 낭독되고 있었다. '소리 없는 소리' 그 속의 외침을 듣는자 누구인가. 수행의 큰 길을 이제 막 열어제치는 그 소리를 말이다.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다" 서원 영축산 단풍보다 더 붉다

"계는 본래 악을 그치고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정은 이치를 거두어 육천에서 초월케 한다. 계는 진실로 자기마음에 두어야 한다." 종정 월하 스님의 고불식 법어를 들으며 지긋이 깨무는 수계제자의 아랫입술마다 영축산 자락의 단풍보다 더 짙은 서원의 빛이 서려 있다. 그 고요 속에서 유나인 철우스님이 습의도감인 도일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했다. 3백33명의 수계자들이 장궤합장한 가운데 6박7일의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은 이렇게 입제됐다.

입제식이 거행되는 설법전안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와 엄숙 그 자체였다. 수계제자들과 앞쪽에 거룩한 위의로 좌정한 3사7증 큰 스님들의 근엄이 어쩌면 오늘의 한국불교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습일 것 같다. 3사7증스님은 수계식을 증명해 주는 비구 율사스님이다. 3사는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이며 7증은 7명의 존증아사리로 구성된다. 전계대화상은 계를 설명하고 전해주는 스님이고 갈마아사리는 갈마(가르침)법을 시행하고 계반을 자격이 있는가 설명해주는 스님이며 교수아사리는 불법대의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스승. 7증사는 존증아사리로 수계를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스님을 일컫는다.

수계제자들이 어느새 사사로운 출입을 금하는 금단방(禁房)이 둘러쳐진 설법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계산림의 일사불란한 일정이 이어졌다.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새 스님 333명 탄생



산림의 첫시간은 식당작법과 습의. 대중이 똑같이 나누어 갖고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고양시키는 공양을 펼치는 바루공양은 법공양 의식과 다르지 않게 엄숙히 진행됐다.

'모든 수행자가 대중속에 모였음이 백갈래 시냇물이 큰 바다로 모여듦 같네.' 〈찬승공덕경〉이 독경되는 가운데 진행된 예배·안행시간에는 초심자처럼 절에 들어가는법(入寺法)에서부터 절에서 생활하는 법(在寺住法)등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기러기가 줄을 맞춰서 날아가는 것처럼 사뿐히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안행은 일렬종대로 차수를 하고 개미 등 미생물을 밟지 않도록 일곱 자(尺) 정도 멀리 내다보며 걷는다. 다음은 가사·장삼 입는 법을 배우는 실습의 시간. 가사·장삼·두루마기 등 법의를 입고 벗는 일도 모두가 도를 닦는 수행의 한 부분이어서 옷고름을 매고 푸는 손길마저 아름답기 그지없다.

율학(律學)은 불교의 생명인 비구 2백50계 비구니 3백48계를 수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과목. 성우스님(파계사·교수사)은 "승단은 계율사상에 흠망이 좌우되므로 큰 지혜를 이루는 첩경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의본(사미니는 대애도경) 강의는 스님들의 행주좌와(行住坐臥)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율장에 근거하여 일러주고 〈법망경〉 강의는 대승의 위상인 보살로서 지켜야할 계율을 통해 출가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정신을 설하는 과목. 율학의 엄격함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의 취재마저 불허하는 추상같은 교수사 스님들에게서도 흠뻑 느껴졌다. 수계자들은 잠시 휴식시간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작멸보궁에서 1보1배를 하며 오직 부처님법만 스승 삼기를 염원했다.

저녁공양은 불식. 몸가짐을 단정히 하기위하여 일렬로 서서 대중울력으로 세면물을 나른뒤 차례대로 발끝에서 얼굴까지 깨끗히 씻고 자리에 앉아 참선에 든다. 조용한 산사에 법고소리가 잔잔하게 메아리치면 저녁예불로 이어진다. 예불에 이어 사분계본을 40여분간 독송하면 1시간 40분간 참회정진 시간이다.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오욕심(색·식욕·수면·명예·재물욕)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붙어난다.

새벽 3시 도량석 목탁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가르면 기침시간이다. 세면후 법당에 운집한 수계자들은 예불과 90분 백팔참회로 하루를 연다. 속세의 어느 누가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고행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산림에 든 수계제자들의 하루하루는 묵언의 깊은 고요 속에서 정제되는 수행의 서원으로 무르익었다.

통도사 일주문 나서는 스님들 무욕걸망 멘 어깨엔 불국토 미래가 걸려있다

수계제자들만 엄숙한 것은 아니다. 유나스님을 비롯한 습의도감 습의사스님들도 매일 7시부터 도서관에서 회의를 열어 계율의 지중함을 강조하는 강도높은 수계산림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다. 때문에 수계산림은 하루이면서도 7일이고 나아가 새스님들의 광생수행의 일정 그 자체로 이어지는 듯하다.

마지막날 3사 7증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본단 비구계 본소계단 비구니계 수계식이 엄수됐다. 석가모니불이 염송되는 가운데 연비의식이 진행되고 새스님 3백33명이 여법하게 탄생했다. 산림의 마지막 의식은 회향식이다. 습의도감스님이 유나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면서 수계산림은 장엄하게 회향됐다. 새 스님들의 가슴마다 일대사 인연을 깨닫고자 서원하는 죽비소리만 울리고 있을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계산림을 증명한 큰 스님들의 눈길에도 새스님들의 올곧은 수행여정을 믿는 마음이 여실히 배어 있었다. 그래서일까. 회향식을 마치고 흰고무신에 걸망을 메고 삼삼오오 일주문을 나서는 스님들의 어깨위에 짙은 가을산빛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글=김원우 · 사진=고영배 기자

취재수첩 "강원현실 고려 수계자격 보완해야"

구족계란 6개월간의 행자과정과 3주간의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사미(니)가 선원 4안거 성만, 4년과정의 종단인가 교육과정수료 후 제4급 승가고시를 거친다음 비구(니) 법계를 품수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18회 구족계 수계산림(授戒山林)은 새로 적용되는 교육·의제법 시행을 앞두고 사미 2백13명, 사미니 1백77명등 총 3백90명이 접수하여 가장많은 접수현황을 보였다. 그런만큼 탈락자도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탈락자가 많은 것은 갈마(가르침 권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수계지원자들이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지원한 것은 물론 근본적인 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동안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단인가 강원을 졸업했다 해도 사교과만 설치된 강원이 대부분이어서 탈락자들의 반발이 컸다. "이미 출가해 수행도중에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는데도 계를 받을 수 없나요?"라고 거듭 묻던 한 사미의 표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반면 이력에 전과가 있는 것은 고려가 안돼 대조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규정이 제대로 하달이 안돼 발생했다는 설명이지만 역시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산림을 총괄하는 총무원 총무국장 지현스님은 "과거 총무원 교무부가 주관하다 작년부터 총무부로 이전됐다. 올해의 미비했던 점을 거울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계산림의 한 관계자도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원이 사찰의 강원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족계 수계기준을 확정해서 문제가 노출됐다.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느때보다 엄격하게 실시된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중간 퇴방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규정을 잘 준수했다. 특히 유나스님을 비롯한 임원스님들과 습의사스님들의 계율중심의 강도 높은 수계산림 운영도 새로운 모범으로 평가됐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노모품(老耗品) ①

何喜何笑 하희하소
命常熾然 명상치연
深蔽幽冥 심폐유명
如不求錠 여불구정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웃으랴
이 목숨 언제나 불타고 있나니
어둡고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등잔을 찾을 줄 모르는구나

見身形範 견신형범
倚以爲安 의이위안
多想致病 다상치병
豈知非眞 기지비진

제 몸의 생김새를 바라보라
거기에 기대어 편안타 하는데
망상 투성이에 병이 따르니
그것이 참이 아닌줄 알고 있는가

老則色衰 노즉색쇠
病無光澤 병무광택
皮緩肌縮 피완기축

다만 성냄과 교만으로 가득채우네

老則形變 노즉형변
喩如故車 유여고거
法能除苦 법능제고
宜以仂學 의이륵학

늙으면 곧 형색이 변해서
낡은 수레같이 되고 말지만
법은 능히 온갖 괴로움 없애나니
마땅히 힘써 이를 배워라

人之無聞 인지무문
老若特牛 노약특우
但長肌肥 단장기비
無有福慧 무유복혜

사람이 법을 듣지 못하면
늙음이란 저 황소와 다를 바 없어서
다만 자라서 살만 찔뿐
복덕과 지혜란 아무것도 없네

生死無期 생사무료
往來艱難 왕래간난
意猜貪身 의의탐신
生苦無端 생고무단

나고 죽음에 아무 뜻이 없다면
오고 감은 다만 괴롭고 힘든 일
마음이 이 몸을 의지하고 탐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일 뿐이네

"늙으면 형색이 낡은 수레 같이 되지만 법은 온갖 괴로움 없애니 힘써 배워라"

死命近促 사명근촉

늙으면서 형색은 시들어지고
병을 얻어 생기도 없어지며
가죽은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지고
죽음은 다가와 명을 재촉하네

身死神徙 신사신사
如御棄車 여어기거
肉消骨散 육소골산
身何可怙 신하가호

몸 떨어지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버려진 수레를 모는 것같아
살은 썩고 백골은 흩어지니
이 몸을 어찌 믿고 의지하랴

身爲如城 신위여성
骨幹肉塗 골간육도
生至老死 생지노사
但藏患慢 단장에만

이 몸을 성처럼 삼아서
뼈로 기둥세우고 살을 입히지만
태어나면 늙어 죽음에 이르는데
나고 죽음에 아무 뜻이 없다면
오고 감은 다만 괴롭고 힘든 일
마음이 이 몸을 의지하고 탐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일 뿐이네

慧以見苦 혜이견고
是故棄身 시고기신
滅意斷行 멸의단행
愛盡無生 애진무생

지혜로와야 괴로움 바로 보나니
그러므로 이 몸을 버리는 것
뜻 여의고 행업 짓지않으면
갈애는 다하여 무생인을 얻게되네

不修梵行 불수범행
又不富財 우불부재
老如白鷺 노여백로
守伺空池 수사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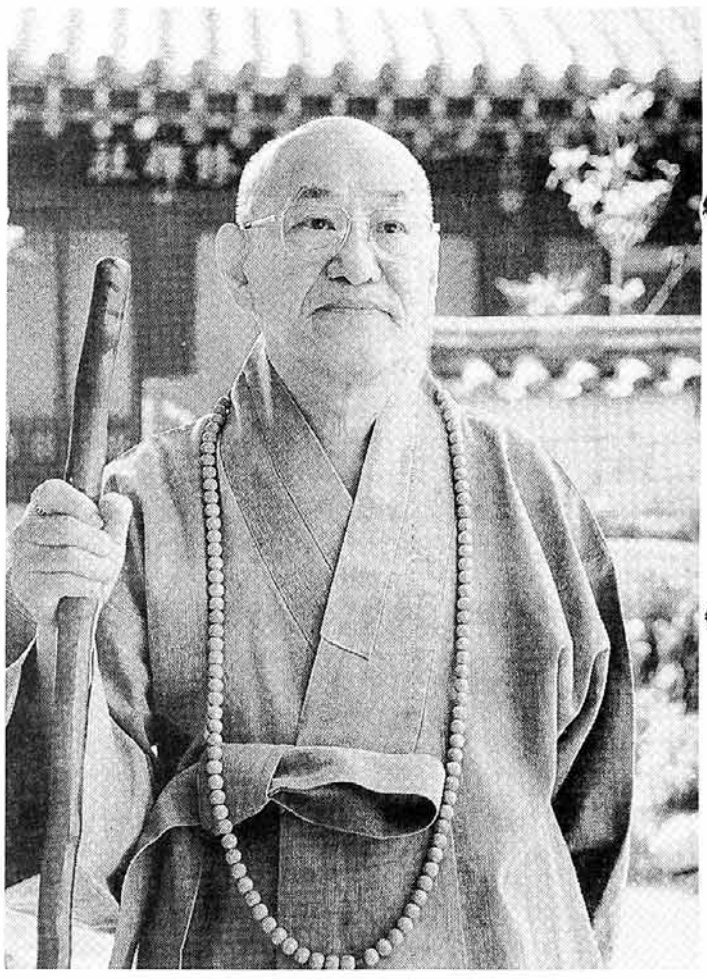
바른 행을 닦지도 않고
재물조차 모으지 못하면
늙어서는 마치 해오라기가
한갓 빈 연못을 지키는 것같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물러 섬 없이 정진하면

능가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약력
- 1923년 서울 生
- 50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계
- 5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계
- 58년 조계종 총무원 사무처장
- 60년 불국사 주지
- 69년 범어사 주지
- 70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회장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앞다투어 21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교실상은 2,3천년전 모습 그대로 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구태의연하게 지탱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합니다. 아니 시대를 이끌어가며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교역시 21세기에 맞는 종교로 승가 재가 모두 심기일전하여 바르게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옛 시대가 개체는 있었으나 전체가 없었던 때이라면 현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개인중심으로 개인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도 천하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모두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계화의 물결속에 커다랗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의식만 세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출가한 이후 내심 세계화에 관심이 컸고, 나름대로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펴왔습니다. 거창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60년대만해도 이미 한국불교가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것은 국가간의 교류나 종교간 교류를 통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제불교기구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가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66년 제8차 태국대회때 우리도 가입했습니다. 불교국가인 월남에도 전쟁발발 전에 다녀왔습니다. 교류차원이었습니다만 혼란한 정국이라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협의회 결성 준비모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당시 5대종교지도자가 모였을때 우리 교단이 소극적이라고 비쳐졌습니다만 나라도 능동적인 모습이어야 하겠다 싶어 뛰었던 거지요. 특히 일본에서 수학한 인연으로 일본과의 교류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청담스님을 모시고 일본 천왕과 함께 법담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네들의 스님공양은 최대 귀빈대접이었고 그 자리가 무르익자 천왕숙소에서 주무셨지요. 내가 한 일이 모두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발심과 활동들이 인연이 되고 기반이되면 세계화는 먼 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널리 수지독송하는 훌륭한 경전인 〈화엄경〉, 〈금강경〉 등에 설해 놓은 내용은 주로 개인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경전 모두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우주나 인류전체를 상대로 설한 경전은 오직 〈법화경〉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연닿는 대로 〈법화경〉을 공부하라고 권해왔습니다. 〈법화경〉은 우주, 인류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입니다. 한마디로 세계화된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뜻이지요. 팔만대장경 속의 많고 많은 경들이 세부적인 각론에 비유된다면 〈법화경〉은 총론과 같은 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셨으며, 임제스님도 중국불교가 쇠퇴하는 것을 어쩌지 못했고 사명스님이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도통한 이라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우주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인이라 해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지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체를 잡을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습니다. 백년전보다는 10년전이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것이 없는것만 못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 이래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그이후로는 백대제자, 또 그다음의 제자등 수백억만명이 수천년동안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지금쯤은 극락이 되고 천당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더욱 나빠져만 가는지 한번쯤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은 덮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 덮으려하면 위선만 쌓이니 과감하게 드러내 바로잡아야"

개인이든 단체든 잘못된 것을 덮어둔다고 능사가 아니듯이 불교계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자꾸 덮어 두려고하면 위선만 쌓입니다.

〈법화경〉은 이미 3천년전에 세상의 혼탁함을 예견하고 그때를 대비해 개인 개인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사람을 제도하려는듯한 논조로 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를 우상화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적을 이룬다하면서 어리석은 중생을 현혹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의 연원을 살펴보면 불교가 쇠하면서 도교의 영향을 받을 때 발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가신뒤에 불교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고 이것을 차단할 방법으로 4대교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4대교법은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진리인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후에 어느 중이 '나는 부처님에게 친히 이러이러한 법문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게 정법이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말아라. 그리고 거부하지도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의 진의를 잘 따져보고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줄거리와 맥락이 통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진리입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여러 검토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4대교법입니다. 또한 "백년뒤에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공부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다' 해도 믿지 말아라"했습니다. 또한 "큰스님이 공부하시는데 시봉하면서 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다' 해도 믿지 말아라" 했습니다. 모두 부처님 생전의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번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큰스님 수행한담

전체 살리는 길 열려요"

전체가 나아져야 내가 나아지니 올바른 법을 들었으면 이웃에 늘 전해주어야 합니다 불자에게 전법은 사명입니다



◇70년 10월 13일 청담스님(사진 중앙)주재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지도자대회에서 능가스님(사진 왼쪽)은 회장에 피선됐다.

"죄 짓고나서 기도한다고 없어지나요 기복보다 이웃위한 신행 앞장서세요"

설하신 법문의 핵심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한 이후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정법이 사법으로 굳어져 버린 경향이 짙습니다. 이럴때는 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불교는 원래 인연법이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면 인연에 없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부처님전에 보시금 갖다 놓는다고 그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교는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중심의 사고에서 전체를 인식하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흥하거나 망하는 것이 곧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고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정법선양은 그 시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펴나갈 때 그 가르침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이 한창일 때 ,성철스님, 청담스님께서 앞장서서 활동하실때 심부름 하느라고 열심히 따라 다녔습니다. 그때 도교의 유물인 산신각을 때려 없애자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대처승과 싸워 이겼으니 다음에는 불교를 빗나가게 하는 산신각을 불태워 없애자고 운동을 벌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신각을 받들면서 절에서 자란 스님네들이 대부분이니 스님들 스스로가 동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될 리가 없지요. 결국 다수에 의해 양적으로만 팽창했지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질의 세계이지 양의 세계가 아닙니다. 양적 세상에는 흥정 타협이 있지만 질의 세계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을 뿐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가 나쁘다 해도 진리는 진리이고 세상이 좋다고 해도 사법은 사법입니다. 그처럼 명백한 것이 진리의 존재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를 살리고 내가 살려면 우선 천하를 구하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법화경〉 속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 길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껏 개인적인 기복에 익숙해 있는 우리 풍토에서 이런 말 하자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안하면 안되겠기에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으로 가피를 받고 있는 것이라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은덕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불호념(諸佛護念)즉 일체 부처님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과 십중덕본(十衆德本) 모든 중생들에게 덕의 근본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근본을 심어줄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법문을 들으면 다른 이에게 자꾸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체가 나아져야 내가 나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를 향해 정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법을 들었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러 업때문에 장애가 많더라도 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정도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물러섬이 없는 믿음으로 정진 또 정진하고 실천 또 실천하다보면 바로 전체를 구하는 길을 찾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았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내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것도 바로 이 전체를 살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법화경〉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 서울 인사동 고서점에서 "호랑이 잡는 법화경"이라는 말을 듣고는 없는 돈을 빌려서 〈법화경〉을 구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렇게 평생 떠나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불교의 세계가 늘 상 화두로 잡혀있었나 봅니다.

울산고등학교 교감시절이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 범어사로 수학여행을 인솔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산스님을 친견하고는 그자리서 주저않았습니다.이 길이 내 길이다 확신이 섰던거지요. 그래 사직서도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은사 동산스님 덕분에 나는 출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은사스님은 출가도 이끌어주셨지만,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또 나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산스님은 마치 불교정화와 종단 안정을 위하여 마지막 정성을 다 바치는 분같았습니다. 나는 늘 상 이 나라 불교의 앞날을 걱정해 마지 않으셨던 동산스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총무원 사무처장을 맡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심 나는 종단일 보다는 산사에 남아 수행에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종단일의 중요성과 그 일에 성심을 다 할 수 없는 마음상태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심사숙고하던 끝에 스님을 찾아뵙고 모든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내가 말씀드리려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는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화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장차 이나라 불교는 어찌될 것인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단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분부대로 나는 임기동안 흔들리지는 맘없이 종단일을 소임으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스승을 잘만나라는 조사들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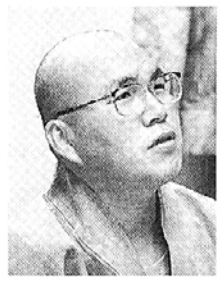
세상에 살았으면 속된 표현으로 집에 재산도 많았고 교육자로 성공해서 지금쯤 총장도 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치쪽에 발들여놨을지도 모를일이지요. 출가한 뒤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친척아저씨가 나를 몇번이나 설득하러 왔어요. 그때마다 지리산으로 도망을 했지요. 결론은 출가하길 참 잘한 일입니다. 망상과 껍데기뿐인 생활에서 구제된셈이니까요. 또 이 길을 걷게된 그 가피를 회향하는 것은 〈법화경〉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세상에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불교의 진리에 맞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복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고, 개인중심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체 우주를 향하는 사고로 대전환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생활속에 불법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법을 펴는 일임을 명심하면서 일상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27

부모은중경



현 진
청주 관음사

자식들이 저지르는 불효 예들어 경계 효행의 지침서… "참회하고 회향하라"

해인사 학인시절, 장경각 안내소임을 본일이 있다. 해인사를 찾는 신도들이나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사찰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이었는데 법당 벽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소임의 일부분이었다. 그때 벽화의 유래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처음으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독송하게 되었고 새삼 보은인연(報恩因緣)의 지중(至重)을 느낄 수 있었다.

해인사의 여러 벽화 가운데 부처님이 해골더미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리는 장면이 바로 〈부모은중경〉 서분(序分)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장면에서부터 보은의 법문이 시작된다. 마른 뼈 무더기에 절하신 까닭을 물었을 때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의 어버이일 것이므로 예배한다는 부처님의 대답은 사뭇 감동적이다. 이 세상에는 인연아닌 것이 없는 셈이니까.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설하는 경전'이라는 뜻의 〈부모은중경〉은 〈불설부모은중경〉이 원제이다. 〈부모은중경〉만큼 부모의 슬픔과 사랑을 깊이있게 이야기한 고전은 없을 것이다. 이 경을 통해 부처님은 효의 윤리와 인간의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애의 마음은 한량 없는데 자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효와 불의를 일삼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 경전에서는 자식들이 저지르는 불효를 가지가지 예를 들면서 꼬집고 있다. 부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꾸짖는 것처럼 느껴진다.

'죽어서 헤어짐도 슬프고 괴롭지만 살아서 헤어짐은 더욱더 서러워라. 자식이 집을 나가 먼 길을 떠나가니 어머니 모든 생각 타향에 나가있네'

열가지 큰 은혜 가운데, 먼길 떠난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은혜를 게송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부모의 탄식과 슬픔이 애잔하게 와 닿는다. 더군다나 출가사문의 길을 걷고 있는 나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자은(慈恩)이 있다면 어머니에게는 비은(悲恩)이 있음이다.

'양자식지친력(養自息知親力)'이라는 말이 있듯 누구나 자식을 낳아 길러 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게다.

〈부모은중경〉은 효행의 지침서이다. 본문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백천 개의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쑤시기를 백천겁 동안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다만 보답하는 길은 부모를 위해 〈부모은중경〉을 서사(書寫)하며,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모를 위해 죄업과 허물을 참회하는 불교의 회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기적인 관계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용서하는 자비의 정신이 부모의 한량없이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효행의 근원이다. 나만 존재한다는 아집과 아만을 버릴 때 부모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이 우러나는 까닭이다. 어찌보면 정조대왕이 〈부모은중경〉의 판본을 만들어 용주사에 봉안한 것도 이러한 불교적 효행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부모은중경〉은 그 내용이 짧은 경전이므로 누구나 쉽게 독송할 수 있고 자신의 효행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더군다나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을 실참실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내 경우에는 기도를 회향할 때마다 〈부모은중경〉 사경(寫經)을 꼭 한다. 판본은 모시지 못하더라도 사경본 만큼은 모시자는 생각에서다. 출가의 정신은 적극적인 효의 실천이지만 수행이 따르지 못하면 더 큰 불효의 그림자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불교적인 자각으로 효의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에서는 효의 범위를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혈육지정의 효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구제하는 대승적인 효를 지향하라는 뜻이다.

효의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는 오늘날 다른 어떤 경전보다 〈부모은중경〉 신앙은 절대적이다. 모두가 〈부모은중경〉의 마음으로 돌아가 귀한 생명을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효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147

그림 · 조향슥

무욕도 없어지다니

"세계에 숨어 의지할데 없으니
산과 물도 장애물이 못된
큰 바다는 티끌보다 작고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우녀와 인담 합두들의 가버문 제의였는데 사바세계 무욕도 시절의 동료들이 거의 모이게 되었다. 제석천 천인들도 이런 일은 이 33천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 해서 그들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석천신이 환희각천으로 가서 그곳을 살펴보는 동안 선견성 구름광장의 한 전각에서는 온통 무욕도 수행자들이 모여 두런두런 구름자락을 밟고 있었다.

생사를 구름이 일다가 스러지는 것으로 노래한 사람들이 일찍이 저 아래 지상에서는 있었는데 그들이야말로 하늘 속의 구름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으리라.

그런데 이곳 욕계 제2천 도리천 32천과 제석천은 온통 구름자락으로 휘감겨 있어서 여러 성안의 누각과 전각들의 기둥에 박혀있는 보석들까지 구름에 잠겨있기 십상이었다.

그리하여 이곳 인다라망의 화려한 빛들도 그 빛이 너무 눈부실까 보아 구름자락으로 가려주는 것인지 모른다.

선견성은 4면이 4만8천유순으로 된 아주 커다란 성이다. 성이기보다 차라리 끝간데 모를 하늘 속의 고원이다.

그런 고원이 층층의 건물마다 층층의 구름이 피어오르거나 스러지거나 하면서 어느 곳 하나 초조한 삶이 자리잡을 수 없는 풍요한 시간으로 넘치는 것이었다.

밤낮 하루가 사바세계의 백년인 이곳 천인들의 수명은 1천세였다. 얼마전에 이곳에 올라온 우녀는 무욕도 해상에서 8만유순의 하늘 속으로 그 영혼이 태어나 이 제석천 천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녀는 한 성에 정착하지 않고 며칠에 한번씩 다른 성에 속하는 나그네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다. 제석천의 명령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번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자신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상태에서 무심코 이 성 저 성을 드나드는 무애의 경지에 그가 살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점해진 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벌써 합두도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음악천의 노래삼매를 즐기는 수도원에 있다가 그곳에서 먼 청정천의 성관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 모임에 나온 것이었다.

우녀와 합두가 먼저 와 있는데 인담이 남각 무전과현 수원 수월들을 데리고 왔다.

누구보다 먼저 이곳 천상을 살았던 만화는 그동안 다른 중생계를 찾아다니는 수행자였다가 다시 한번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불이는 이곳에 와서도 그 전생이 임춘이었듯이 시인이 되어 천상의 시를 지어 읊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와 소석 그리고 효영 명오 상수 상을과 우식 만우들도 왔다.

하지만 일찍이 이곳 세 쌍둥이 천신으로 태어났던 박월 길성 순풍이는 천상의 업이 남았으므로 천인의 마지막 고통 직전에 다시 한번 천인의 나날을 살고 있다가 우녀가 이곳에 오자 그들이 승다시피 살아온 서쪽 명조천에서 달려나와 신분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되자 지상의 무욕도시절이 가버린 대신 천상의 무욕도 시절이 온 터여서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과연 하늘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지난 날 소년 행자였던 우식이 제법 어른이 되어 출무성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무욕도 마지막에 우녀와 한동안 있었던 이름없던 선착장 암굴 행자도 우식 만우 뒤에 서 있었다.

"땅의 보배는 일곱가지(七寶)인데 하늘의 보배는 백가지(百寶)입니다"라고 불이가 합두의 천의(天衣) 자락에 뜻힌 갖가지 작은 보석들의 빛에 새삼 감탄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다 천인의 마음 그대로입니다"라고 세 쌍둥이의 하나인 순풍이가 이곳에서는 가장 우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마치 음악인 것처럼 그런 말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제석천신 아닌 천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 선견성에 주재하는 그분이 안 계시어도 우리 하나하나가 그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합두도 한 마디 내세웠다.

"이곳 33천이야말로 여인이 이룬 천상입니다. 제석천이 바로 그 여인의 후신 아닙니까."

효영도 한 마디 거들었다.

"이곳이 아무리 천상이라 해도… 수미산 천상인지라 비록 지상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이기는 하나 33천 전체가 지상으로부터 솟아오른 땅 위에 있으므로 굳이 말하자면 땅 위의 하늘(地居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들은 서로 만난 감회는 뒤로 하고 큰히 천상에서 사는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수가 그런 말들을 끊었다. 말이 말을 끊는 것이었다.

"나는 무욕도로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33천에서 사는 일을 다 마쳐야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옛 동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곳 33천에서는 모든 천인이 평등함으로 33천을 대표하는 제석천에 대해서만 의례적으로 경칭을 삼지만 그밖의 남녀노소의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의 만화나 어린 만우가 여기서는 나이 차이가 없는 한 또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상수가 말을 이어갔다.

"이곳 천인들이 8일 13일 15일마다 모여 진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천상의 회상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도 거기에 가서 이 수미산 정상의 진리와 사바세계의 진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음을 누누히 들었고 나도 그런 말을 이렇게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의 사바세계 무욕도 시절에 나는 진리조차도 진리가 아니므로 숫제 진리 따위를 말하는 일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입을 다물어 묵언으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녀는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입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진리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때 그곳에 모인 천인들이 웅성댔다.

그동안 몸과 마음에 뿌리내린, 곧 바른 마음을 가리키기(直指人心)로서의 말과 글이 끊어진 경계에 대한 저항이 상수의 말에 들어있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말과 글이 끊어진 경계를 말과 글로써 표현하는 모순을 인정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늘 말하고 필요할 때마다 글로 나타내다가 말과 글이 마군(魔軍)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에만 입을 다무는 모순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일까.

상수는 아마 선 수행 자체가 말과 글을 따로 부정하지 않고 그 말과 글을 선의 핵심과 일치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일이야말로 진리의 한복판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의 가장자리에 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곳 수미산 정상에서 이곳 33천의 모든 천인들에게 실컷 말을 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

우녀도 인담도 그 누구도 상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함부로 나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그것도 이제까지의 선 수행자들에게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드린 도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 달마 이래 어느 조사나 선객이 상수처럼 말과 선의 일치를 말한 적이 있었던가. 말과 글은 부정하는 말과 글이 오자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살기를 다하면 무욕도에 다시 내려가 실컷 말하고 실컷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나는 진리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남각이 우뚝우뚝한 옛모습 그대로 말을 내뱉았다.

"지금 무욕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때에야 모두가 눈을 휘둥그래 뜨고 다시 응성대는 것이었다.

"무욕도가 없어지다니."

"무욕도가 없어져?"

"무욕도가?"

"그럴리가…."

상수가 선견성 남쪽하늘의 구름을 헤쳤다. 거기에는 수미산 정상 33천에서 지 지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곳 천인들의 눈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의 여러 군데를 눈여겨보다가 섬부주가 떠있는 곳에 눈길들이 멈췄다.

그러다가 조선반도 서남부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였다.

아니 조선반도 자체가 없다. 일본열도도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바다 건너 청나라도 그 위의 몽골사막도 다 없어진 채 아주 커다란 바다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럴 수가?"라고 인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녀가 그런 인담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바로 3일전 이 수미산 정상의 33천까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꿈을 꾸다가 그 꿈이 동강나 내 몸도 마구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른 곳을 살펴 보았는데 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상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사바세계가 큰 바다로 채워지다니…

"그날밤 저 아래 사바세계에 큰 변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수가 구름바다에 풀썩 주저앉았다.

"세상은 말과 글로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는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달삭거렸다.

대해가 걸죽한 얼굴로 앞에 나섰다.

"자아 선법당 본당으로 갑시다."

"……."

"조금 있다가 그곳에서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 무욕도 건너 해안의 한 미친 사람한테서 들었던 노래를 꺼냈다. 실로 그 기억력이 놀랍다.

세계에 숨어 의지할 데 없으니
산과 물도 장애물이 못된
큰 바다는 티끌보다 작고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허리띠도 풀어 내려놓고
살가죽 벗겨버린 것을 물으라

천녀 상을은 이런 노래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욕도 생각만 하였다.

"아 무욕도가 없어지다니…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진리는 변화의 진리인가."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 영우 소각로 특징 ■

◆ 세라믹 필터 장착!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英 sai사 측정 · 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획득 125893호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상시 A/S반 대기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매립지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때문에 한계에 봉착
이제는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사찰 쓰레기 고민을 매연없이 완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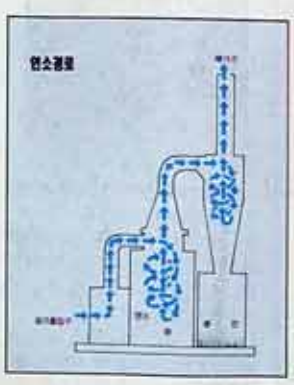


■ 대표모델 : 시간당 소각능력 50Kg

■ 소각대상물
폐지, 폐목, 폐섬유, 폐합성수지(PE, PP),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등
※ 수분 30% 이상의 젖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초기에 연기가 비절수 도 있습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관공사절,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 ·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등





소각로 제조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1
TEL. (0344)64-7236, 62-3488, 62-2470 FAX. 62-7012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2
TEL. (0344)62-9351

"자녀에게 긍정적 기대 심자"

자기충족예언과 일체유심조 ①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4〉



그림 · 이준석

결과의 원인 나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 "모든 사람에게 불성 있다" 믿게 하는 일 인류구원의 길

사회심리학(社會心理學)의 개념인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현대적 해석의 한 측면이기에 우리의 관심을 끈다.

자기충족예언은 자성예언(自成豫言: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도 하며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이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미국의 오크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이 학교는 6학년까지 18개 학급인데 학년초에 검사를 실시하고 학급 담임에게 20%의 아동의 명단을 주며 "검사결과를 보면 여기에 적힌 아동은 학년말에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담임선생은 해당 아동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아동들은 담임선생의 이 말을 확신하고 있었다. 1년후에 이들의 성적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학년초의 예언이 맞는 셈이 되었다. 그런데 실은 학년초에 실시한 검사는 지능검사였고 20%의 아동은 아무나 막 골랐으며, 그 명단을 담임선생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이다.

"너는 1년후에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주위에서 기대하고 이 기대를 아동이 믿으면 아동은 자신이 믿는 성적향상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충족예언은 우리의 전래동화 '3년 고개'에도 나타나 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전해 내려 오는 고개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그 사람은 그 날부터 몸져 누웠다. 이를 본 이웃 사람이 "그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여 주었다. 이 말을 확신한 이 사람은 단숨에 이 고개로 달려가서 여러 번 넘어졌더니 병은 곧 나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을 흔히 본다. 자녀에게 "너는 부자가 되기는 다 틀렸어. 밤만 굶지 않아도 천만 다행이야"라고 주위에서 말하며 이 말을 자녀가 믿으면 평생동안 가난하게 살 확률이 크다. 부모가 자녀를 우수한 자질을 가졌다고 기대하고 그러한 대접과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자녀는 이 기대에 맞추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너는 효자다"라고 부모가 기대하면 이 기대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는 효자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충족예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철저한 불자'라고 말하고 기대하면, 그 사람은 불자로서의 확신을 가지며, 따라서 불자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우수한 자질 가졌다고 인정해주면 의식·무의식적 예언대로 행동"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을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즉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의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될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더 넓혀 생각하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나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믿을 때 불국토(佛國土)를 건설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극단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도덕적인 타락은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의 끔직한 범죄행위와 흡연, 음주, 환각제 복용 등이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행은 연소화, 포악화의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고도산업사회가 빚어내는 잘못된 물질위주, 관능적 향락문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비도덕성이 날뛰고 춤추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이와 같은 비도덕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인색치 않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인류를 구출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불자에게 부과된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 불자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 시키기에 앞서 불자인 우리들 스스로가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충족예언에 따라 그 행동도 불자다워지게 된다. 나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다. 불자는 불자 아닌 사람들의 생활에 비하여 모든 면에 걸쳐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사람을 보고 그 종교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은 철저히 잘못된 말이다. 불교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 도덕적 우월성을 지닐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를 "자기의 사람 됨됨은 자기 스스로 마음 가지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풀이 한다면 사회심리학의 자기충족예언은 일체유심조의 한 면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짐에 의하여 나 스스로가 지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이 마음은 틀림없이 저 사람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만 보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나에게 있지 결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다. 상대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 원인은 상대편도 나를 좋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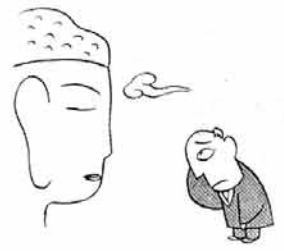
모든 것이 마음 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나는 매주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 길 옆에 정자가 있다. 어떤 날은 정자를 분명히 보고 지나가지만 어떤날은 전연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이때 나는 정자를 보는 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게 된다. 겨울에 춥다고 생각하여 움추리면 더 추워지고 춥지 않다고 가슴을 활짝 펴면 추위를 덜 느낀다. 일체유심조이다.

나의 삶은 나 스스로 지어 나가는 것이며 남이 나의 삶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의 탓으로 돌리는 운명관에 사로 잡히지 말자. 전생의 업도 나의 마음 가짐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나는 일체유심조의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자네의 진면목을 보여줬네."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쓰고있는 면목은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모든사람이 지니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 진수(眞髓)를 일컫는 말로 '불성(佛性)'과 같이 쓰인다.

'본래의 면목'을 중시한 대표적인 조사(祖師)는 육조 혜능(慧能)스님일 것이다. 혜능스님은 천민출신으로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스승인 5조 홍인(弘忍)스님으로부터 가사와 발우를 전해받는다. 이처럼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게되는 계기도 '본래의 면목'과 관련이 있다. 〈육조단경〉에 보면, 혜능은 매우 어리고 누추한

면목(面目)

본래부터 지닌 맑고 깨끗한 성품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로 쓰여

모습으로 홍인대사의 방을 처음 찾았다.

"어디서 왔는가?"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영남이라면 보잘 것 없는 천민지역 사람이군. 그런 곳 사람이 어찌 부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가?"

"사람은 남쪽에서 살기도 하고 북쪽에서 살기도 하며 북쪽 사람은 상류층의 대접을 받으나 남쪽 사람들은 천대받는 소외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성(佛性)이야 남과 북, 부자와 천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성을 얻으러 왔습니다."

면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진실불허(眞實不虛)하다. 둥근달이 맑은 물에 비치면 맑고 아름답게 비친다. 그러나 찌그러진 그릇에 탁한 물을 담아 보면 달은 찌그러지고 더럽게 비친다. 진면목도 그와 같아서 사람마다 면목은 같지만 그 면목을 지키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목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목이 선다"고 한다.

이제부터 면목없는 짓을 하지 말자. 면목을 찾아나서자.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btn 불교TV 32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목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순례지
상해-보타산-영파-항주-황산-구화산-남경-상해
구화산 · 보타산 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구화산 · 보타산코스 : 11월 18일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동마린투어 ☎ (02)711-011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모습 내아픔 아닌것 하나 없어

"미생물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면서 사람까지 왔으니 모두 둘이 아니지요"



그림 · 최주현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佛' 우리 생활은 '敎' "맺어진 인연 나와 둘 아니라고 생각 하세요"

여러 부처님들과 더불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자 근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모두가 '불'이라면 우리 생활은 '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란 머리깎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교나 개신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는 공부입니다. 물에서 놀든 들에서 놀든, 인간으로 됐든 모두 이미 불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 너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이것을 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서는 한발짝도 바깥으로 나설 수 없으면서도 버스가 어디로 도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네 자리 내 자리 하고 싸우고 한마음이 되질 못합니다. 맺어진 인연들에 대해 항상 나와 둘이 아니게 생각하고 내 도량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할까

또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쳐져 둘 아니게 돌아가야 할텐데도 항상 나라는 육신에만 집착하여 한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콤비가 되질 않습니다. 실은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망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몸뚱이를 두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몸뚱이는 생명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승객을 가득 태운 배와 같은 셈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안에도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존재로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콤비가 되어 여여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둘이 아니게 되면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줄 안다면 갖춰가지고 있음을 알며, 또 갖춰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 걸림없이 들이고 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나무는 내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 뿌리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근본을 믿는 겁니다. 자(自)불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근본은 누구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도 모두 직결이 돼 있습니다.

부처님형상과 내형상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몸뚱이가 나다 라고 생각지 마세요. 가령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육신은 차체가 되고 내 뿌리인 참나는 운전사가 되는 셈이니 껍데기를 믿지 말고 운전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운전사를 믿고 의지해야 이쪽 차, 저쪽 차가 다 제대로 굴러가지 껍데기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운전사를 믿을 일이지 스님네들의 고깃덩이를 믿어선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 용어로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그것이 순간순간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보라든가 번뇌라든가 고(苦)라든가 하는 문제를 없애는 데는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라, 만약에 나오는 자리에 새로운 것을 입력한다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게 되고, 그 구멍 부에는 절대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이 자동적으로 풀려 나오는 건데 내가 그러는 줄 알고 속아서 마음에 분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저 나의 진실한 마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마음, 또는 부처님을 섬기되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게, 형상도 내 형상이요 마음도 내 마음이요 생명도 둘 아닌 내 생명이요, 모두가 높이 보지도 말고 얕게 보지도 말고 나와 같이만 보시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뼈 한 무더기를 보시고, 거기다가 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이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답니다. 그랬더니 "내 할아버질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까지 왔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내 어머니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육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전체다' 이겁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듯 인생의 한 철이 꼭 지금의 이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돼지로도 나투시고 작부로도 나투시고 여자 남자를 둘로 보지 않고 어떠한 생물로도 나투셨습니다. 그렇게 나투시는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왜냐? 그렇게 나투시는데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거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나투어 화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여래라고도 하고 부처가 없는 부처가 진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현재도 공했기 때문에 여여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옅반을 했다고 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니 지금뿐이 아니라 미래에도 끝간데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일불이니까요.

자성불을 믿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망망대해에 배 띄운 것과 같고, 이 배 안에 들었을 때는 한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죠. 또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통 속에선 통을 굴릴 수 없지만 통 밖을 빠져나왔을 땐 통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기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맘대로 행하며 행함없이 행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또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같이 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처님들이십니다.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꺼내 쓰지 못하는 것은 이 모습이 난 줄 알고 속아서 헤매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모습은 나의 주인의 심부름꾼 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불교나 개신교나 가톨릭교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바깥으로 기도를 합니다. 상대를 보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을 믿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님을 안다면, 예불을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3)

갈채받는 명배우가 되기싫다?

"영화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라. 비록 하찮은 역을 맡더라도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인생살이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역할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가 한철 연기를 하고 가는 길이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잘 난 배역이든 못 난 배역이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배정받은 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극 중에서 주어진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 내지 못하는 배우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역할이 되었든, 주연급은 주연급대로 조연급은 조연급대로 현실감 있게 잘 해낼 때에 비로소 시청자들은 진한 공감을 느끼고 그 배우의 연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준다. 그리고 그 배우에겐 부와 명성이 주어진다.

비록 하찮은 역할을 맡았다해도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연기자라면 그때에 '뜨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주연급으로 발탁되었다해도 배역을 소화해 내지 못하면 장차 탈락하는 수모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고로 배우라면 누구나 극 중의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의 연기를 하려고 노력한다.

임 금역이든 거지역이든 그것은 한때의 배역이다. 평생을 임금역만 하고 평생을 거지역만 하는 경우란 없다. 역할은 그때 그때에 맞춰 주어지는 것이고 무대는 계속 바뀐다. 배우들도 제게 부여된 역할이 한때의 일인줄을 안다. 그러기에 배우라면 누구나 좀 더 다양한 역을 맡아보기 위해, 좀 더 중요한 배역에 뽑히기를 바라며 지금의 역할에 땀을 쏟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배우가 제게 주어진 역이 조연에 불과하다하여 열심히 연기할 생각은 않고 불평만 늘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분명코 객석의 야유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마침내는 무대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인 생살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잘 난 사람은 잘 난 사람대로 못 난 사람은 못 난 사람대로,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제 배역을 제가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무대는 바뀐다. 평생을 같은 역만 하라는 법이 없고 세세생생 되풀이해서 동일하게 배역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대에서 어떤 내용의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 배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때로는 내 취향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



태 어날 때 받은 역할은 내가 묻어둔 마음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번 먹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나무로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익어 다시 씨앗이 되는 업(業)의 바퀴돌이가 오늘 나에게 이같은 역할을 하게끔 이끈 것이다. 고로 나의 배역은 내가 고른 것이요, 요다음에 내가 맡을 역할은 오늘 내가 예비해 둔 것이 된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르고 취한 것이다. 배역을 담당하는 연출가는 바로 자기의 마음이다. 하느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부모도 아니다. 조직이나 단체의 장(長)도 아니요 동료나 이웃도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어 자신에게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배역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들, 그것의 변화하는 모습들은 다 제 속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의 싸이클을 자기가 만들고 제 모습을 자기가 꾸며간다.

고로 누구라도 더 좋은 배역, 더 중요한 배역을 원한다면 지금 맡은 역할에서 마음을 1백% 쏟아 붓는 멋진 연기를 해내야만 한다. 더 좋은 배역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지금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함은 불변의 법칙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삶, 살아있다는 것은 곧 약동이다. 머무름이 아니라 쉬지 않는 움직임이다. 웅덩이에 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약동하는 삶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맛보는 일이나 다름없다.

명배우에게 보내지는 갈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배역에 충실하지 않는 것, 즉 지금의 역할에 소홀하고 게으른 것은 자기에게 주어질 약동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자 내일의 다른 배역, 더 나은 배역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지금 내 역량을 1백% 쏟아붓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로 무엇을 하려는가. 잡다한 일에 나눠씀으로서 어느쪽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가. 그것이 고통인 줄을 곧 알게 될텐데도?

협찬 : 김 창 배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게 내탓인데 누굴 원망하랴

☞ 17면에서 계속

올리거나 절을 할 때도 단 일 배만 하더라도 천 배 올린 거 못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어느 도량엘 가시더라도 법당에 들어가시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하지 마시고 만 분이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한마음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써 우리 일체가 다 살아나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일거수 일투족을 닥쳐오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불이 하는 거라고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각자 자기 자불의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또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한다면 내 자성불이 관세음이 되고 약사가 되어서 해결하는 거죠.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벌써 둘이 되거든요. 보살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바로 부처님 한 생각에서 나온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이 같이 합해서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 이 소립니다.

참으로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우리들의 삶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지 그 마음이 쓰이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게 진짜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의 세계에 모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마음으로 통신을 하고 육신은 물질계에 뛰고 이렇게 양 개체를 다 가지고 행해야 사람사는 것과 같고 삶에 보람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붙들고 있으니 힘들죠

우리의 육신 속에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잔뜩 들어있는 여기에다 대고 내가 했느니 팔자운명이 어떠니 하신다면 그것이 입력이 돼서 현실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바로 심성과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심성의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천체물리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 일이 있고 육신으로 할 일이 있고 이론으로 할 일이 있고 학술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무조건 정신계는 밀치고 보이는 것만 하신다면 자기가 자기 뿌리를 배신하는 게 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우습게 생각하는게 됩니다. 그러니 하는 일마다 걸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지죠. 바로 찰나전이 과거고 찰나후가 미래입니다. 현실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툴 뿐이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도립니다.

삶은 고(苦)가 아니라고 한 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듣는 것도 고정되게 듣지 못하고 만나는 것도 고정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움죽거리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 안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투면서 찰나찰나 돌아가며,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 한생각에 찰나 전으로 돌아가고 찰나 후로 돌아가고 현실에 공해서 돌아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한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도 함이 없이 이미 여여하게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사는게 힘든 겁니다. 내가 했다고 붙들고 놓질 못하고 속을 태우니 삶이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님을 알아 합해서 쓸 줄만 안다면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음부터 알라, 본래 내마음은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근본은 체가 없어서 보이질 않으니 무효가 되고 또 육신이 정신계를 몰라서 무효라면 어떻게 제구실을 하리까. 정신계와 물질계는 합쳐져야 100%가 된다 이 소립니다. 어느 한쪽만을 취한다면 기울게 되는 것이죠.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둘이 되거든요 보살의 많은 이름
부처님 한생각에서 나온 방편일 뿐

교차로에 서있는 삶

요즘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고 청소년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안되게끔 마음을 많이 내십시오. 또 이 마음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정신계의 한 가운데 말입니다. 거기서, 그 구멍 밖에는 들고 나고 하는 도리가 없으니 거기다 재입력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잘 나오는 것 잘못 나오는 것을, 잘 나오면 감사하게 놓고 잘못 나오면 다시 바꾸어 돌려 놓는 겁니다. 만약에 구정물이 나온다면 새 물로 대치해서 바꿔 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체 만물이 다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오늘 이렇다가도 내일 저렇고, 내일 저렇다가도 모레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아픔을 어떻게 다 대처하시렵니까?

지금 현재에 한 철 사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가 바로 여깁니다.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즉 그 마음이 인간답게 살았는지 짐승같이 살았는지에 따라 다시 차원높은 인간도 되고 짐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차원에 따라서 다음삶이 주어지고 차원이 주어지게 되니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그 모습만 다르고 차원이 낮을 뿐이지 생명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만 하죠, 눈물겹도록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세요. 항상 가정에서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망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떻지, 또 너 때문에 라는 둥 이렇게 하신다면 언제까지나 해결이 안 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금방에 가면 금끼리 모여있고 넝마전에 가면 넝마끼리 모여있고 깡통은 깡통끼리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모여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차원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천 리 길이 떨어져 있어도 차원끼리 만나요. 멀리서 왔어도 배는 배대로 놓으니까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놓아져요. 그런데 네가 잘했니 니가 잘했니 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똑같은 차원끼리 만났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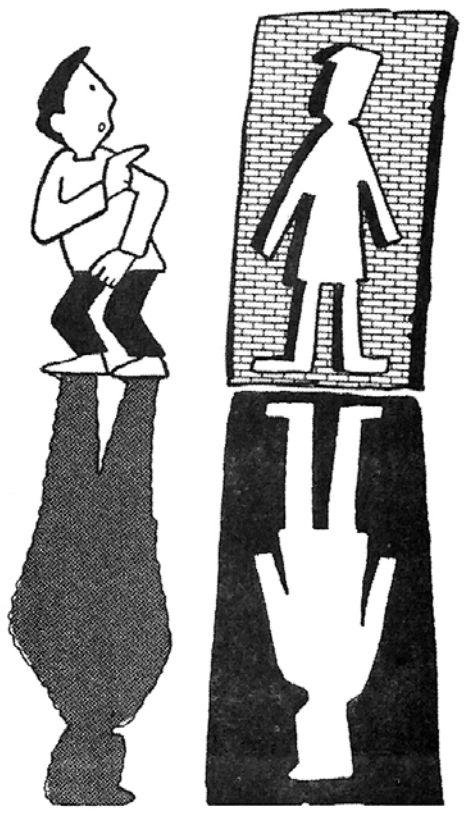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따뜻하면 모든게 풀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내 주인공에다가 '그렇지 않게 당신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한다 이 소립니다.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속썩인다 하더라도 그 애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 탓이죠. 현재만 보니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으면 자식이 그런 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되 놓아야만이 앞서 입력된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게 입력이 돼서 자식과 부모가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하는 그것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면 '그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욕하지 말고 '이 모두가 내 탓이로구나.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주인공 너만이 이것을 알잖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상대방에겐 "춥지는 않았니? 배고프지는 않았니?"하고 부드럽게 해주란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스스로 본인이 마음이 나야 하는 거지 마음이 안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생활 속에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부인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으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때리고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체 만물과 가설이 돼 있고 부모라는 마음과 자식이라는 마음에, 남편이라는 마음에 또는 부인이라는 마음에 가설이 돼 있으니까 항상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놔라,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 얘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는 공부는 안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뭐나 훔쳐 가지고 나가고 이런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 마음 하나면 될 것을 그렇게 허덕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 그렇게 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그동안 나가서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배고프지 않으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든지 "네가 살아가는 것도 네 주인공이 알아서 하겠지. 널 믿는다" 하고 좋은 말로 해주고, 또 부인이 남편을 보고도 그렇고 남편이 부인을 보고도 그렇고,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들어오다가…, 이렇게 봐요, 돈은 살아있지 않은가요? 돈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돈이 생각할 때도 저렇게 싸우는 집에서는 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할 테니까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모든 것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수 있는길

우리 생활 속에서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이 그대로 여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리를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여여치를 않고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나를 버린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불어 같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가 없는 도리를 안다면 하나도 걸릴 게 없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苦·集만 없다면 滅·道도 없고 멸 도가 없다면 여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가 돌부리를 찬다 하더라도 그 돌부리도 내 스승인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소립니다. 일체가 모두 생기지 않았다면 내 어찌 그런 걸 보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내 스승이며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아닌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스님들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과 뜻과 행을 보고 따르라, 이 세가지를 보고 따르고 실천하라고 그랬지 절대 껍데기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부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대신 뚱눠주고 밥 먹어주고 잠 자주고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지는 못하거든요. 지금도 각자 여러분은 자기없는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으니 자기 주장자를 주인공으로 두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일임하고 산다면 아마 삶을 구김살없이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설법을 하신 게 아니라 일체 미생물에게까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게 아니고 그대로 반영돼서 어느 거든지 아니되는 게 없었기에 그래서 부처이자 여래라고 했습니다.

금은 금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모이듯
똑같은 차원끼리 만나는 법
그러니 잘했다 못했다 싸울수 있나요

가르침 대로 행이 따라야

어느 절에를 다니시든지 개신교를 믿든지 또는 가톨릭교를 믿든지 그 믿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공기주머니라면 공기주머니에서 우리가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해서 걸리는 게 많겠죠. 하지만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그 공기주머니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마음을 둥글려서 자유스럽게 펼쳐놓고 일임한다면 어느 것이든지 안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더러 돈이 많아서 불사도 하고 어디어디에 기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닢도 쌓아두고 살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하실 것이고 안계시다면 못할 건데 왜 이 껍데기 심부름꾼이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 쩔쩔맵니까? 안 하겠으면 안하고 주인이 하겠으면 할 것이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불사한다고 해서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오거나, 또 어떤 사람이 거리로 나앉는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불사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이고 제일 급한 불사인데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부처님의 심부름을 그저 잘하든 못하든 진정으로 진실하게, 그저 심부름 하려고 애 쓸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면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걸 믿는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행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을 믿지 마라 한다고 해서 법당의 부처님을 무시해서도 아니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만불이 계셔도 내 마음 속 일불에서 다 나투어 계신다고 가르치고 내 자성불을 믿으라고 하지만 공부를 다 하고보면 법당에 부처님도 그냥 앉아계신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가재를 한 마리 건질래도 내가 가재의 마음이 아니라면 저항력을 느끼죠. 돼지를 건질래도 내가 돼지가 아니되면 돼지는 달아납니다. 같이 한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또 창녀를 건진다 하더라도 창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창녀가 돼야 창녀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느 거를 아니 건지시는 게 없고 아니되는 게 없고 이 도량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두 우리 지구와 더불어 같이 한 도량 아닌 게 없다 이런 소리죠.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전부 나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죠.

오늘 내 이 한마디가 진실되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참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 마음은 일체제불이 다 아실 거고 보이지 않는 이익은 아마도 한치의 에누리 없이 돌아갈 겁니다.

불상 정면에 서면 잘못인지요

문 매일 새벽에 인근 사찰에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처님 바로 정면에 서서 우러러 보며 절을 해왔는데 어떤 분이 '정면에서 하는게 아니니 비켜서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면에서 하는게 잡념없이 일심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잘못된 일인지요.

〈이법임〉

답 좌우로 비켜서시는 게 원칙이고 예의입니다. 우리가 윗어른을 대할 때도 정면으로 마주 대하지 않는 게 예의 이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아닌 부처님께서는 한 발 한 손 한 자리의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일대사 인연으로 삼으신 까닭에 공심으로 부처님과 통하여 중생을 건지시는 도량의 큰 스님들께서는 정면에 서시고 대중스님들이 좌우로 자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래 자기는 공하여서 옆에 서는 것도 없이 서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주인공에 놓으면 업이 녹습니까

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계가 다 업일 것이니 주인공 자리에 되놓아서 업이 녹아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지요.

〈강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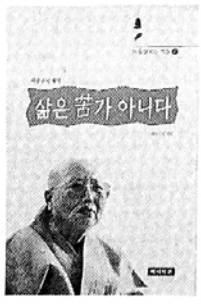
답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이란 본래 붙을 자리가 없어서 찰나찰나 화하여 나투며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신에게서 나오는 대로 잘 생각해서 되 놓으면 됩니다.

나무들이 제 뿌리로 인해 자라나듯이 자신의 업이니 모든 경계도 자신의 주인공만이 해결하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고 맡기면 됩니다.

협찬 이 문 성
University Of Memphis, Memphis, Tennessee.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하도록"
"마음으로 고장난것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삶은 결코 苦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 (02)737-0696

단 신

'불교문화의 이해' 발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최근 청소년들의 문화재애호활동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문화의 이해〉라는 제하의 지도자용 교재를 제작, 선보였다.

〈불교문화의 이해〉는 불교건축 불탑 불상 불구에 대한 단어적 의미와 역사적 유래, 쓰임새를 그림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교재는 당초 전지크기의 교육용 궤도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A4용지에 복사처리해 선보임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02)723-6165

부산대불련 32돌 문화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진현)는 26일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강당에서 북녘어린이돕기 서암스님 초청법회 및 문화제를 가졌다.

32주년 창립기념 대불련제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각 지회 회원들과 청년불자들이 동참해 북녘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또 창립기념행사로 연극공연, 노래경연 등 문화제를 통해 젊은 불자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한껏 펼쳤다.

청보리 봉사단원 모집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청소년 봉사단체인 청보리봉사단 97년 4기 회원을 11월말까지 모집한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활동하고 있는 청보리봉사단은 1995년에 발족해 1천여명의 회원을 배출했다.

회원들은 월~금요일 가운데 봉사 가능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02)421-6077

어린이지도자련·선재모임 '전래놀이 한마당' 현장

"전자오락보다 훨씬 재밌어요"

"오락게임보다 시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고 신기한 놀이들이 많아 즐거워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지만 금방 배울 수 있고, 잔디밭에 마음대로 뒹굴며 점수에 신경쓰지 않아서 좋아요."



◇300여기지의 전래놀이가 펼쳐진 창경궁 잔디밭에서 새싹불자들은 동심(童心)을 마음껏 그려냈다.

닭싸움등 즐기며 1천여 동심 '활짝'
다함께 뒹굴며 협동심·이타심 키워

19일 서울 창경궁 잔디밭.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지구(회장 설봉스님)와 선재연구모임(회장 해관스님) 주최로 열린 '97 어화둥둥-선재전래놀이 한마당'에 참여한 서울·경기지역 34개 사찰 1천여명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기에 동참한 부모 50여명도 연신 흐뭇하고 즐거운 표정이다.

마치 '누가누가 더 재미있게 노나' 경기라도 하듯 6명씩 조를 나눈 새싹불자들은 16가지 전래놀이가 준비된 '모듬놀이마당'을 돌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른다.

투호 콩넣기 탑쌓기 여왕벌닭싸움 지네걸음 긴줄넘기 등 흥미진진한 놀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있는 종목은 인간줄다리기와 돼지씨름.

'인간줄다리기' 게임은 아이들이 서로의 허리를 붙잡고 상대팀의 '인간 줄'을 끊기 위해 끌어당기는 게임. 끊어지지 않으려고 친구 허리를 꼬옥 부둥켜 안아 본다. 결국 앞사람을 붙잡았던 힘 만큼 '콰당'하고 큰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져 버리지만 아이들은 연신 깔깔대며 낙엽 위를 뒹군다.

악동들이 가장 많이 몰린 돼지씨름 놀이. 두 팔을 다리 사이에 넣고 앉은채 몸으로 상대를 밀어 쓰러뜨리는 이 게임에서는 여자어린이들을 사이에 두고 궐치는 남자어린이들의 열띤 구애(?)모습에 부모님들이 그만 참을 수 없는 웃음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했다. 게임 시작부터 눈여겨 봐 둔 여자아이에게 먼저 공격해 보지만 '흑기사'를 자처하는 또다른 남자친구의 공격에 그만 넘어지기 일쑤. 대역습(?)의 현장이 거듭되면서 '나'라는 의미 외에 '모두'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통전래놀이 속에서 협동심을 키워냈다.

선재연구모임의 유지선사무국장은 "서구의 기계적 놀이에 익숙해진 새싹불자들에게 전래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동심을 되찾아 주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잊혀져간 놀이들이 도심속의 사찰, 학교, 가정에서 놀이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전래놀이 한마당은 과외공부며 학원 강습에 잔뜩 웅크려 지내기 쉬운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푸른 가을 하늘아래 동심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김정은 기자

건강 365일 〈5〉 솔잎



〈영재한의원 원장〉

옛부터 스님들이 건강식품으로 애용하는 자연식을 꼽으라면 솔잎을 들 수 있겠다. 솔잎은 우리 신체기관 중 특히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이나 담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몸안의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을 분해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특효가 있다.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에 더 할 나위없는 성약이다.

평소 한의원을 자주 찾던 김노인이라는 분이 있다. 그 분은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수족마비와 언어장애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병원에서 갖가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나를 찾아왔고 나는 솔잎을 권했다. 진맥을 해보니 체질적으로 궁합이 맞았다. 한달 후 김노인의 딸이 전화를 했다. 후두통과 수족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혈압도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5개월 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정도가 됐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약에도 궁합이 있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생선만 먹으면 알러지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남이 먹고 효능이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 솔잎은 '태양인' 체질과 궁합이 맞다. 태양인은 보통 간장이 약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솔잎이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큼 성약이다.

노폐물 분해·혈액 정화작용
중풍 비만 탈모 등 치료효과

간이 허약하면 신경통, 풍기, 습담, 혈액순환 장애를 앓기 쉬운데 그런 환자들에게 솔잎은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또 비만 노인성치매 빈혈 탈모 치료약으로도 우수하다.

복용법 민간요법으로는 솔잎차와 솔잎술을 들 수 있다. 솔잎차는 솔잎을 넣어 끓여 마시면 되고, 솔잎술은 잘게 썬 솔잎 300g과 꿀 1/2컵, 소주 1.8ℓ를 병에 담고 서늘한 곳에서 한달 정도 숙성시킨 다음 솔잎을 걸러내고 하루 3번 소주잔에 한잔 정도씩 마신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7/ 가을호

'불교와 문화'는 우리네 삶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잡지입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문화의 참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보	목조 수각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나무의 아름다움 속으로
지상논쟁	불교사상사 논쟁 시리즈6 조선조 성리학과 불교의 心性論
'97청정운동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백양사, 경주남산, 속초, 논산대회 이모저모
특별기획	종교간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 **틱낱한 스님과 종교평화의 길**
시사칼럼	사랑…그리고 겸손한 정부를 원한다
불교계 진단2	**한국불교학계의 현실과 발전방향**
화보	한국의 미 절제된 미의 세계, 와당(瓦當)
인물포커스	진리를 찾아 근본을 지킨 불교수행자 설잠 스님, 김시습
특집	**현대인과 중독**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중독증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
인터넷 불교	인터넷 중독
지상연수	'97불교신행단체지도자연수
화보	**不然 이기영 박사 1주기 추모특집** 연보, 학문세계, 신행과 사회활동, 동생과 타종교인이 생각하는 이기영 주요논문, 논저목록
생태탐사기	서해안 갯벌을 찾아서
사진으로 보는 생보기행	목조건물의 몸단장하는 법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	최근 3개월간의 단행본, 학위논문, 논문

■정기구독 신청요령■

먼저 아래의 은행계좌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 구 독 료 : 1년(4호간) 32,000원
•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 체 국 012245-0090499-11 농 협 069-01-197161
※ 예금주:(재)대한불교진흥원 지로번호 7630868

불자 세상보기

수능 주술상품 '불티' "믿을건 실력뿐"

부적 티셔츠·요일팬티 등 다양
청소년에 요행심리…정신건강 저해

9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시험날짜가 다가오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이 있으면 매달리고 싶은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일 것이다. 이같은 불안감을 파고들어 돈벌이로 삼는 주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포크 화장지 거울 등 비교적 저렴한 생활용품이 주종을 이뤘던데 비해 최근엔 의류 액세서리 보석 등 값비싼 제품들로 옮겨가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부적티셔츠' '장원급제 교지(합격증)티셔츠' '행운의 열쇠' '12간지 열쇠고리', 행운의 숫자라고 믿는 7이 들어간 7개의 '요일팬티' 등을 갖춰놓은 벌도의 매장을 설치했다. 수험생 또는 수험생 친지가 없는 가정은 없을 터이니 꽤 큰 시장이 되리라는 계산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부적티셔츠는 신통력을 움직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준다는 붉은색 부적이 그려져 있다. 부적티셔츠는 언론보도 이후 청소년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에는 대입합격을 점쳐준다는 뜻도 모르는 일본어 주문이 유행했다. 승용차 뒤쪽에 부착된 영문이름 자를 떼어내는 것도 여전하다. 과거에 아홉번 장원급제하고 문과 하마시에 동시합격한 율곡 이이선생의 합격증을 새겨넣은 장원급제 교지티셔츠는, 그나마 큰 어른의 품격을 간접적으로 전해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술과 미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까지 미신이 스며들어 있다. 후보의 이름이나 성에 같은 글자가 두 개 연이어 있거나 성과 이름의 머리글자가 같아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나 부적 또는 미신을 부추기는 상혼은 요행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요행심리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혼을 부추기는 업자나 점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민의식도 요청된다. 아울러 주술에 빠져드는 사회현상에는 기성종교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둔다.

정성운 기자

돋보기 정진만이 최상의 방편

정진(精進)만이 목표에 이르는 최상의 방편이다. 〈삼혜경〉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정진을 설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지니고 바다를 건너다가 그 보석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말(斗)을 들고 물을 퍼서 기슭에 버리곤 하였다. 해신(海神)이 말했다. '어느 날에 이 물을 바닥낸단 말이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생사(生死)는 치지도외(置之度外·전혀 염두에 안 두는 것)입니다.' 해신은 그 사람의 뜻이 큰 것을 알고, 보석을 돌려주었다. 정진이란 이런 것이다."

"온갖 공덕이 다 정진을 의지(倚支)로 삼으며, 이 정진이 약한 마음을 전환시켜주기도 한다. 만약 정진을 작용시키면 조금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란 없다." 〈복덕태자인연경〉

인터넷 수능정보 제공

교육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교육부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는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역대 수능 기출제문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수능 관련 정보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길잡이'로 명명된 이 에듀넷(국가교육정보망) 웹서비스에는 수험생들의 수능 마무리 정리를 돕는 '수능 정리문제'와 94~97년간의 '수능 기출제문제', 수능시험 정보 등을 담은 '수능관련소식' 등이 실려 있다.

에듀넷 가입문의는 에듀넷 이용자 지원센터 (02)513-2400, 에듀넷 웹주소는 http://edunet.nm-c.nm.kr 또는 http://210.120.14.133이다.

이렇게 들었다

정부는 22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법정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기업 도산'이란 도미노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뒤늦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경제 위기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외에도 지나친 업종 다기화와 과잉투자를 하다 좌초하는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28일 저축의 날을 맞아 알뜰히 모아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경전상의 '재물 모으는' 지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저축 "벌처럼 모아 어려울때 대비"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선생경〉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니라.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 〈복음경〉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별역잡아함경〉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아함경〉

▩덕행을 닦는 총명한 사람은 산마루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집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와 같이 하여 재산을 모은 그는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가장이 된다. 〈장부경전〉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모이기도 전에 수재, 화재 혹은 관청이나 도둑의 약탈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백유경〉

'인간의무 선언' 제정 움직임

'세계 인간의무 선언' 제정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9월 각국의 전직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수반들의 협의체인 인터액션 카운슬(Interaction Council)이 '세계 인간의무 선언' 초안을 작성했다. '선언'초안 요체는 ▲모든 인간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야 하며 ▲남이 나에게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

최근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전문가회의가 열렸다.

인간장기복제 '윤리논쟁'

인간 복제기술과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를 대량생산해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윤리논쟁이 일고 있다.

"앞으로 5~10년 사이에 머리가 없는 복제인간의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 장기(臟器)의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이식장기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이식 때의 거부반응도 줄일 수 있다." 최근 '머리없는 올챙이' 생산 성공과 관련, 영국의 유전학자 패트릭 딕슨박사는 이같이 유전공학이 인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옥스퍼드대 앤드루 린제이교수는 "특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돌연변이 인간을 만들어 장기이식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은 '과학의 파시즘'이고 도덕적인 타락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대선정국 대국민 호소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과 강영훈 前 국무총리 등 각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은 20일 조선호텔에서 대선정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1세기를 앞두고 국정운영의 비전과 실천방안이 뚜렷한 사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 ▲중상모략을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강조했다.

커피아줌마 이웃돕기 1천만원

시장에서 커피행상을 하며 어렵게 모은 1천만원을 이웃돕기에 내놓았다. 서울 영등포시장의 '커피아줌마' 연화자씨. 81년 남편이 어린 세 딸을 남기고 간암으로 숨지자 커피행상을 시작했다. 최근 5천5백만원짜리 전세방을 마련하고 난생 처음 냉장고와 컬러TV를 들여놨다. 연씨는 작년 9월부터 청소년장학금,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등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오고 있다. 연씨는 "시장사람들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고 있다"는 말로 성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점자달력 5천부 무료배포

한화그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98년도용 점자달력 '사랑의 캘린더' 5천부를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달력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의 감수를 받아 탁상용 캘리더에 에폭지 수지로 점자를 입혀 시각장애인은 물론 자원봉사자나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다. 갤러리아백화점 프라자콘도 한화관광 한화증권 한화국토개발 등 한화그룹 각 사업장과 인터넷(http://www.hanwha.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02)729-1324.

국립공원 취사 1백만원 과태료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읍지청은 21일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밥을 짓고 삼결살을 구워 먹는등 취사행위를 한 류모씨 등 등산객 5명에게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읍시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씨 등은 불법취사행위를 하다 검찰과 시청,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특진비 받고 수련의가 수술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2일 3백4명의 환자들에게 모두 2억2천여만원의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전 경희의료원장 유모씨 등 종합병원 의사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에대해 경희의료원측은 "간단한 수술에 한해 대리 집도케 하는 것은 대부분의 병원서 행해져온 관행"이라고 밝혔다.

오염 미국닭고기 검사없이 통관

미국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의 70~90%가 O-157균과 비슷한 사망률을 보이는 캄필로박터균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21일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9월말까지 4천8백여톤(수입닭고기의 40%)이 수입됐으나 식품공전상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균검사없이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캄필로박터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2~5일 후부터 설사 혈변 복통 두통 근육통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충분히 익혀 먹어야 예방이 가능하다.

생활정보

연하우편물 접수 시작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를 '연하 국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으로 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해외 수신자가 연말연시에 우편물을 받아보려면 선편은 11월 하순, 항공편은 12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114안내 불친절 요금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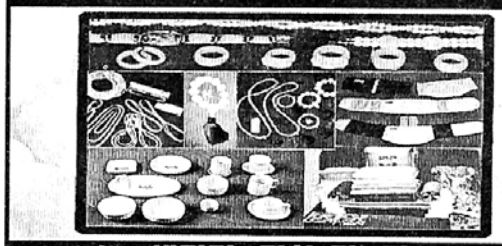
114 안내가 불친절하거나 틀린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또는 해당번호를 찾지 못하면 요금을 환불해준다. 한국통신은 이용자가 080-114에 신고하면 안내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비타민 A E 유방암 예방

비타민 A와 E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유방암이나 다른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 진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미나리, 쑥갓 시금치 등 야채와 김 파래와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다.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히다.
안옥 사용전 1.5㎷ 안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껴안아서 사아만 효과기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안성지방 투병환자의 영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휘호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0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研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시 론

경제공황 벗어나려면

요즈음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한창이다.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하루가 멀다하고 상장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물가는 불안하기만 하다. 주식값은 끝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취업난,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 밑바닥…자금난 심각

비교적 잘 나가던 우리 나라 경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까닭이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수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다. 언젠가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에서 연간 몇 조원의 이익을 올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삼성의 어느 간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 그런 사업이 10개만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유 필 화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

최근에 거의 환상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도 그 안을 살펴보면 인텔, 휴렛-팩커드, 모토롤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수많은 초일류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던 많은 미국회사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이제는 아주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크고 유명한 회사들만이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는 작지만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 '숨은 세계챔피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일류 중소기업군단은 모두 자기분야에서 세계최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세계시장 점유율이 60~80%이고 바로 밑의 경쟁사보다 4~5배나 강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즉 대부분의 한국회사들은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내세울 만한 경쟁우위가 없으며, 인재들의 능력개발에 인색하다. 기업의 체질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조금만 불경기의 찬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불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도 있다.

기업의 목을 졸라매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히 풀고, 각종 불안감·불확실성을 줄여 줌으로써 기업이 신바람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등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경제위기극복의 주역은 역시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는 먼저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초일류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느 경영학자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소개한다.

"숨은 챔피언들의 경영방식은 현대의 경영학, 특히 미국의 경영학이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으며 품질·서비스·혁신 등의 근본원칙을 다른 회사들보다 더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근본원칙의 철저한 실행, 좋은 경영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필자는 또한 〈잡보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키고 싶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태산같이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결국 어려운 때일수록 겸허하게 기업경영의 근본원칙을 더 철저히 실행하고, 최고경영자에서부터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 정성을 들여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지극한 정성의 힘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이는 물론 오로지 딴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매진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다.

모든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자. 그런 조직분위기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을 것이다.

열린마당

'합동징수' 합의 관련 19 해당사찰 의견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로 야기된 종단과 정부의 마찰은 10월 14일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조계종 내에서는 이 합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공원내 19개 합동징수 사찰들은 이번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화설문을 통해 들어봤다. 설문에는 주지스님과 삼직스님들이 응답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장이 대변한 곳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해당 사찰대중 전체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22일 오전 11시에 열린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사진 위)는 '10월14일 합의'를 긍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오후 1시에 열린 관람료위원회는 '부분수정'을 요구하는 등 반론이 거세게 일었다.

설문내용

①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② 관람료와 입장료 인상시 당국과 협의하여 합동징수 한다는 합의(합의사항 제1항)에 대한 의견은?
③ 공원기여도에 따른 입장료 지급때(합의사항 제2항) 귀 사찰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④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검토 추진'에 대한 의견(합의사항 제3항)은?

합의내용 기대 못미치지만 긍정적
관람료인상 정부협의 자율권 상실
입장료 폐지 계속 추진 '한 목소리'

합동징수 19개 사찰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찰과 종단의 자율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찰도 적지 않았다.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곳은 9개사찰, 부분적인 만족과 미흡을 표한 곳은 7개사찰, 잘못된 합의라고 주장한 곳은 3개 사찰로 집계됐다.

부분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나타낸 사찰들은 입장료의 폐지와 관련한 합의사항 제3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즉 폐지가 확실하다는 입장에서는 당분간의 경과조치로 1항과 2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관람료와 공원입장료 조정시의 협의에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율권의 상실이란 의견이 강했으나 입장료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긍정 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는 문제의 핵심이 입장료의 폐지에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공원입장료에서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사찰이 30% 이상을 주장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보유와 경내지 분포등 사찰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공원입장료의 폐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무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 앞으로 총무원의 노력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신흥사 ①환영한다. ②입장료 폐지 전까지의 경과조치로 본다 ③설악산 공원에서 신흥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통일대불의 완공 등을 감안 30%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④폐지는 당연하므로 총무원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월정사 ①합의내용이 불분명하다. ②종단의 자율권이 상실된 감이 있다. ③30%이상 지급받아야 한다. ④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총무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법주사 ①미흡하다. ②자율권을 잃은 것이지만 공단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견제 장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현재 30%를 받고 있지만 '기여도'라는 말은 애매하다. ④이번 합의가 입장료 폐지의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해인사 ①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②자율권의 상실이 분명하지만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③현재 30%지급 받지만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④폐지는 당연하고 폐지 이후의 대책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쌍계사 ①전체적으로 볼때 무리가 없다. ②민원과 공단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③현재 전혀 못받고 있는데 총무원의 적극적인 협의를 기대한다. ④속히 폐지 되도록 종단이 계속 힘을 유지해야 한다.

백양사 ①잘못된 합의다. ②자율성 포기다. ③30%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④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화엄사 ①불씨를 덮어둔 것이다. ②입장료의 폐지가 선행되기 전에는 미봉책일뿐이다. ③문화재 보유나 사찰의 위치등을 감안 30%이상 받아야 한다. ④최대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천은사 ①큰 무리는 없다. ②지역과 사찰의 특성 그리고 공단에 대한 사찰의 견제등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때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③적절한 책정을 기대한다. ④총무원의 계속적인 노력을 바란다.

동학사 ①찬성한다. ②현실적으로 마찰을 없애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30%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④총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폐지될 것으로 본다.

연곡사 ①찬성한다. ②자율성은 다소 제약을 받겠지만 조율은 필요하다. ③30%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④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니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폐지토록 해야한다.

갑 사 ①만족스럽지 못하다. ②자율성의 상실이 염려된다. ③30%이상 받아야 한다. ④상부적인 검토 추진이다. 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야 한다.

신원사 ①찬성한다. ②상호 협의하는 것이 무난하다. ③관광객이 별로 없는 곳이지만 총무원이 잘 조정하리라 믿는다. ④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총무원과 정부가 계속 협의해야 할 것이다.

내장사 ①찬성한다. ②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③경내지의 기여도가 높으므로 현재의 10%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 ④총무원이 계속 추진해 폐지하리라 본다.

백련사 ①부분적으로 만족한다. ②자율권의 상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③기여도라는 말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고 입장료 수입뿐 아니라 공단의 임대료 수입등에도 일정부분 사찰의 기여가 있다고 볼때 현재의 10%보다는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④종단이 좀더 강력히 대응해 폐지시켜야 한다.

대전사 ①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②입장료 폐지를 전제로 한 협의는 필요하다. ③기여도의 산출이 애매하므로 형실성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 ④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므로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구룡사 ① 부분적으로 미흡하다. ②자율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가 맞선만큼 총무원이 잘 대처해야 한다. ③20%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④갑작스런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측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희방사 ①잘된 것으로 본다. ②각 사찰의 입장이 다르므로 협의하여 마찰이 없도록해야 한다. ③경내지의 기여도가 높으므로 30%이상 지급받아야 한다. ④총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도갑사 ①부분적으로 긍정한다. ②입장료의 폐지를 전제로 협의해야 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다. ③현재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합동징수 사찰이 타당성 있게 지급 받을 수있도록 해야한다. ④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총무원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내소사 ①잘된 것이다. ②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③경내지의 기여도가 높으므로 30%이상 받아야 한다. ④원칙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W 300,000~~ ⇒ W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현밀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종단소식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천도법회

인천 마하연포교원(원장 일지)은 19일 인천시립공동묘지에서 '제1회 야외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지장재일법회를 겸해 마련된 이날 천도법회에서는 인천시립공동묘지에 안치된 5만3천여기의 연고 및 무연고 영혼들을 천도해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태고종

독립기념관서 영산대재



총무원(원장 인곡)은 2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민족대화합과 남북평화통일기원 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국재(國齋)로 치러진 법회는 시련, 괘불이운 이어 본행사인 영산대법회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의 영산대재가 펼쳐졌다.

이날 법회에는 보성 종정스님, 인곡 총무원장, 덕암, 운제 스님 등 종단원로와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박유철 독립기념관장, 각당 정치인 등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했다.

석왕사 청동대범종 타종

춘천 석왕사(주지 편백운)는 17일 호국안민을 기원하는 청동대범종 조성기념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범종은 높이 1.85m, 폭 1.45m에 무게가 1천관이나 되는 대형범종으로 불사 7년만에 완성됐다.

이날 타종식에는 인곡 총무원장, 배계섭 춘천시장, 김진선 강원부지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용화사 대웅보전 낙성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9일 대웅보전 낙성식 및 봉불점안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대웅보전은 전통양식에 48평 규모로 3년여 공사끝에 완공됐다.〈사진〉

이날 낙성식에는 총무원장 인곡스님, 원효종 종정 법흥스님, 조계종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화은사 553존불 봉안

충북 보은 화은사(주지 곽수산)는 22일 부처님 점안식 및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대웅전은 1백18평 규모로 6년여 공사끝에 완공됐으며, 5백53존불과 관음존상을 모셨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주병직 충북도지사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통리원 추기강공 개최

통리원(원장 성초)은 21, 22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진기 51년도 추기 강공을 개최했다.

이번 강공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진호국가 불사'(바른 것을 세워 나라사랑, 진리사랑하자의 뜻)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

선대열반 스승 추념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22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선대 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추념불사에는 유가족 50여명과 종단스승 1백80여명 등 모두 2백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각해 총인을 비롯한 종단간부의 훈향정공, 헌공다례, 추념강도 순으로 진행됐다.

총지종

예산심의·교리연구 발표

통리원(원장 법공)은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총지사에서 제50회 강공회를 개최했다. 종단 스승과 종무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공회는 첫날 재단이사회에 이어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열반 승직자 추선불사 등으로 진행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해인사 지구촌 승려 참선도량 **금산사** 미륵 10선운동 전개

21세기 새가람 '탈바꿈'

21세기 포교를 위한 새로운 신앙형태가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02년 개산 1천2백주년을 맞는 합천 해인사는 참선수행 도량으로, 1999년 개창 1천4백주년을 맞는 금산사는 미륵 10선(善)운동을 통한 생활실천도량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개산 1천2백주년과 고려대장경 이운 6백주년이 맞는 2002년을 대비 △세계각국 승려들의 참선 수행터 △지구촌 시대의 모든 불교도들의 귀의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는 이를위해 초심자의 교육및 참선수행의 이론 습득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불교수련원을 건립한다. 또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21세기에 맞는 대불및 만불전을 건립하고 성보박물관과 수련원, 대장경연구소, 도서관등을 포함한 해인불교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주지 보광스님은 "해인사는 그동안 수행면에서 한국불교의 모범이 됐지만 신행 포교 연구 등 사찰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불사는 한국불교의 진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99년 개창 1천4백주년을 앞두고 '미륵도량 중흥불사 추진위원회(가칭)'를 11월초 발족한다. 특히 금산사는 한국불교미륵신앙을 복원한다는 차원으로 '미륵 10선 운동'을 펼친다. 미륵 10선운동은 △삿된 행동을 하지말라 △부드러운 말로 중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99년에는 '금산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점찰법회, 육운법회,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기념행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98년 5월 미륵신앙의 발생과 사상적 특징,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역사, 새로운 신앙운동으로서의 미륵신앙 등의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금산사지(誌)도 발간한다.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21세기 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상적정립이 불가피하다"며 "미륵신앙운동을 복원해 새로운 신앙형태를 창출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중근 기자〉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1300년만에 동상 귀향

中정부 불국사 봉헌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이 1천3백여년만에 동상으로 고향인 경주로 돌아온다.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11월 4일 무설전에서 '지장보살 김교각상 한중 합동봉안식'을 갖고 자비의 화신으로 다시 온 스님의 뜻을 기리게 된다.

이번에 봉안될 김교각상은 연꽃무늬 받침대를 포함, 전체높이 3.2m, 무게 2.8톤 규모의 청동불상으로 중국의 안휘성 정부가 지난해 조성해 불국사에 봉헌했다.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은 "이번 교각스님의 봉환은 한국이 낳은 중국불교의 최대고승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국사는 무설전에서 보살계수계산림법회도 봉행한다.



◇중국서 조성 1천3백년만에 고향 경주에 돌아온 지장보살 김교각스님 성상.

위덕대 내년 10개학과 증설

컴퓨터 공학등…신입생 440명 증원

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내년도 입시부터 10개 학과를 증설하고 4백4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키로 했다. 이번 98학년도 증원증과 확정안은 지난 14일 교육부로부터 '98학년도 정원자율화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위덕대는 22일 10개학과 신설에 4백명을 증원하고, 전기공학과의 정보통신공학과는 각 20명씩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의 '98학년도 증원증과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설학과는 국제관계학과, 사회복지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경영학과(야), 영어학과(야) 등 비이공계 6개학과와 건축공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야), 정보통신공학과(야) 등 이공계 4개학과 등이다.

위덕대는 또 내년부터 경영대학원을 신설하고 석사과정, 연구자과정, 단기과정의 신입생도 선발키로 했다.

홍콩 프로그램 전시회 btn, '석굴암' 등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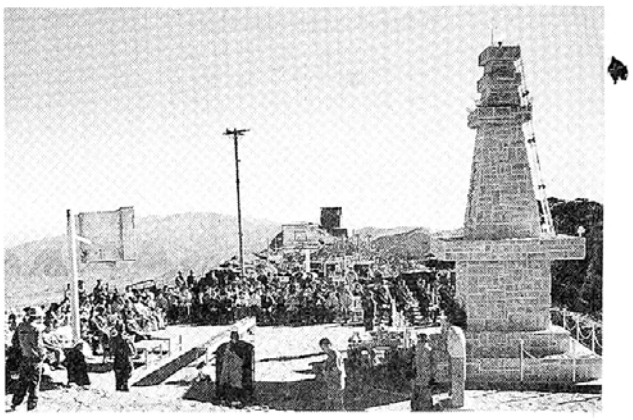
불교TV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프로그램 판매시장인 97 MIP-ASIA전을 통해 '고려대장경'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와 공동부스를 마련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불교TV는 '고려대장경' 외에도 '한국의 명찰' '발우공양' '석굴암' '출가! 새로운 탄생' '예불' '영상포엠 내원사'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경주 월명재 행사 다채 판소리·영산회상 등 공연

'도솔가' '제망매가'를 지은 신라 월명스님의 예술혼을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경주 월명재 추진위원회(위원장 경수·정토법당)는 18일 첨성대에서 제5회 월명재를 봉행했다. 이날 월명재에서는 추모재를 비롯 월명스님 이야기(윤경렬), 달빛밟기, 영산회상·판소리공연(동국대 국악과), 강강술래, 풍물놀이 한마당 등이 펼쳐졌다.



휴전선 최고봉에 통일대탑 6·25당시 최대의 격전지, 휴전선 155마일중 최고봉인 가칠봉(해발 1242m)에 통일을 기원하는 대탑이 세워졌다. 강원 양구 백두산부대 도솔사(주지법사 정연태)는 21일 해수스님(대한불화증 증정)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대탑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통일기원대탑은 기단폭 5m, 높이 8.5m의 규모로 건립됐다.

"현대인 중독증 삼독심 원인"

'불교와 문화' 가을호

술과 담배는 물론 고스톱, 인터넷 등 현대인들의 중독현상은 약물중독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런 현대인의 중독양태를 계간 〈오늘의 불교와 문화〉 가을호가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술·인터넷·고스톱 몰입 자성 깨달으면 자연 해소

"현대인의 중독증은 약물에 의한 신체적 기능장애에서 자제력을 잃고 특정한 일에 몰입, 헤어나지 못하는 정신 사회적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공종원씨(조선일보 논설위원)가 본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중독현상이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중독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공위원은 또 "현대인의 중독현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三毒), 즉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연유하며, 그 삼독심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이룰 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약물에 의존 중독증을 치유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자 불성을 깨달아 자신을 조절하고 서로 협조해 나가면 중독증은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가 저질문화에 중독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집착으로 청정한 상태의 마음, 즉 불성(佛性)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불교방송 가을철 프로개편

'라디오 매거진' 등 생활·시사물 강화

불교방송이 11월3일부터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생활 정보 시사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마음을 비우고' 등 3편이다. 매일 오전 5시45분에 방송될 '마음을 비우고'(PD 한지윤)는 기존의 '참선이야기'를 경전 속의 선 강의에서 탈피해 현대화된 생활선으로 변형시켜 청취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고, '정연수의 라디오 매거진 1·2부'(PD 김학주)는 생활경제 패션 뉴미디어 재테크 시테크 주택 레저 기상 교통 정보 등을 총망라한 종합 정보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전 7시15분부터 출근시간을 책임진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25분에 방송될 'BBS 교양강좌'(PD 조은정)는 매달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 강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11월에는 박완일씨의 강의로 준비한다.

송 前상무 공소사실 부인 BBS 횡령 변호인 신문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피의자 김선도 송병욱씨의 변호인 심문이 20일 서울지검 서부지청 805호 심문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서 송병욱씨는 비자금 조성 지시, 대구 청주 방송 장비대금 8억5천만원 결재 사실, 어음할인 내용등의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김선도씨는 송씨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을 했고 어음 할인도 송씨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세계인의 상표 SANYO

반갑다! 최첨단 안마의자!

두들겨 주고, 주무르고, 피로를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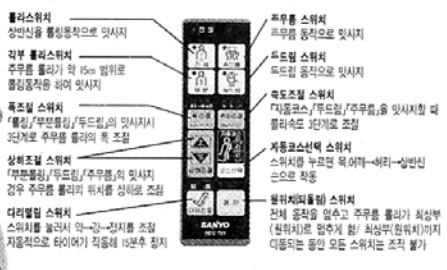


모델명:HEC—751(HD)

우리몸 6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일본 산요 침대형 안마의자

세계 중·상류층 인사들이 격찬한 산요 안마의자로
도시의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쌓인 피로를 그날에 풀으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안마의자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 가정 필수품입니다.

■기능



■사양
- 두드림맛사지/ 주무름맛사지/ 두드림, 주무름 혼합맛사지
- 전문지압사의 리드미컬한 손놀림에 가장 근접한 인체공학 안마
- 3가지 자동코스(목, 허리, 상반신)(15분)/ 3단속도조절/ 최고급 빌로드 쿠션 등받이 각도조절/ 진동식 다리맛사지 등 첨단 기능
- 크기 폭68㎝×길이96㎝×높이109㎝
- 무게 31㎏ / 전압 220V / 원산지 일본 / 공급원 (주)태경그린

※ 일본 의료용 기구 승인

₩3,300,000 ▶ 할인가 ₩2,740,000

전국 어디든지 배달과 A/S를 해 드립니다

우리몸 6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콤퓨러 안마의자

콤퓨러 안마의자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신경통·관절염·자식 걱정 등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선물로, 날마다 자식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부모님께 편안한 휴식과 깊은 수면을 드립니다.

30% off

■기능
- 주무름 기능 — 전문 지압사의 손놀림으로 좌우상하로 누르고, 조이고, 당겨줍니다
- 등줄기 두드림 기능 — 등 전체를 기법에 두드려 줍니다. (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등줄기 맛사지 기능 — 등줄기 전체를 주무르듯 펴 줍니다.(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부분 등줄기 맛사지 기능 — 원하시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펴 줍니다. (자동상하운동)
- 두드림 기능 — 주먹으로 두드리는 기능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 — 원하는 등받이 각도를 리모콘으로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용 바퀴 부착 — 이동도 자유자재, 청소할 때도 편리합니다
- 자동 코스 맛사지 기능 — 전문 지압사의 맛사지 순서와 동일한 코스 맛사지입니다. (3가지 자동코스)
- 타이머 내장 — 약15분 작동후 자동 정지됩니다. 적절한 사용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재질 고급레져 / 220V 전용 / 원산지 대만 / 공급원 (주)태경그린



모델명:TS-6301

₩1,980,000 ▼ 할인가 ₩1,380,000

판매원 한양M&C
서울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803호
전 화: (02)737-8891(대)

조계종

사찰관제시스템 추진

1차 70여곳…내무부와 시설비지원 협의

최근 사찰방화와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첨단 관제 장비인 DCTV(개방회로TV)의 설치를 통한 사찰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문화부(부장 원학)는 DCTV 사찰관제시스템의 1차적 설치대상을 관람료사찰 및 주요 사찰등 70여곳으로 정하고 내무부와 시설비 지원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이 설치하기로한 DCTV는 기존의 CCTV에 비해 설치비가 30% 이상 저렴하고 관제능력도 뛰어나 관제사항이 자동 녹화되며 비상상황 발생시 관리자의 호출기나 휴대전화로 자동 연결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열감지센서나 소리 충격 감지센서로 다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도난이나 방화등 이상 행동이 자동 감지되어 관리자에게 비상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가스총이나 소화탄이 발사되어 도난과 방화를 막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총무원은 이 관제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3개 건물과 경내에 설치할 경우 5천 내지 6천만원정도 들게된다고 밝히며 "내무부와 협의하여 사찰에 설치할 경우 최고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은 우선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비 지원을 확보한 후 설치사찰을 선정하고 해당 사찰들의 주지회의를 통해 설치 절차를 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옥천사 후불탱화 도난

경남 고성 옥천사 대웅전 후불탱화가 21일 새벽 도난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건륭9년(1744)에 제작된 석가모니부처님의 영산회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옥천사소장유물 1백19점과 함께 경남유형문화재 제99호로 일괄 지정돼 있다.

청진-인사동 전통거리 조성

해장국골목으로 유명한 청진동 일대가 전통거리로 본격 재개발됨에 따라 청진동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조계사와 인근 조계타운이 도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재개발계획에 따르면 청진동을 19개 지구로 나눠 종로구청 앞 중심부에 1천여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포함한 전통거리가 들어선다.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

남원시 철골조 조성계획 '물의'

남원 용담사 석불입상(보물 제42호) 보호각 건립과 관련 사찰측과 남원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남원시가 석불 보호각을 주변환경이나 미관을 고려치 않은 채 철골조로 조성하려는데다 사업예산 일부를 다른 곳에 전용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고건축양식을 주장하는 사찰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사업에 1억7천만원(국비 1억2천만원, 시·도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석불입상 주변 석축 기단정비 및 보호각 설치에 사용하도록 시달해 놓았다. 그러나 남원시는 석불보호각을 법당양식이 아닌 우수방지용 철재지붕(주유소식 건물)형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예산 중 일부를 요사채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찰측은 올해 1월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여지껏 미뤄오다 느닷없이 철골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국사 경내 제2 석굴암 짓는다

합성수지이용 원형복사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보존과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불국사 경내에 석굴암의 실물과 똑같은 제2석굴암을 조성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불국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2석굴암은 불국사 공동화장실 앞에, 합성수지를 이용해 불상과 조각들을 원형 그대로 복사해 만들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마련되는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승인신청을 낼 예정이다.

불국사측의 제2석굴암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바 있고<본지 130호 18면 참조> 이미 약 1억원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석굴암 암주 법달스님은 "월산큰스님도 생전에 절대 반대하신 사안으로, 굳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연구자료집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고 밝혔다.

원심회 · 천마재활원 · 소쩍새마을 등

장애인 가을나들이 '한창'

가을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야외 나들이가 늘고 있다.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1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수화기초 25기 중급18기 학생들과 원심회 회원모두가 참가하는 이번행사는 그윽한 산사의 정취속에서 신심을 돈독히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은 25일 해운대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등반대회에 참석했다. 장애인등반대회는 부산 태종대 태종산에서 개최됐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 원생 1백여명은 21일 원주사회복지 대축제에 참가하여 놀이한마당에서 마카레나춤을 선보이며 신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육군 3사관학교내 법당 호국사 상량식이 23일 봉행됐다. 호국사는 대구경북 5교구본사의 지원속에 12억4천만원을 들여 지상1층 지하1층 연건평 2백50평 규모로 세워진다.

3사관학교 법당 '호국사' 상량

매년 7천여명의 초급장교를 양성배출하는 영천 제3사관학교(교장 강종필) 법당인 호국사 상량식이 10월23일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성천스님(불국사 부주지) 전재균사장(영천시)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미(니) 호칭 '수자' '선재' 유력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사미(니)의 호칭이 '수자'(修者)나 '선재'(善財)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모든 사미(니)는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 증명서가 있어야만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됐다.

기초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미(니)에 대한 호칭을 수자와 선재 두 가지로 확정하는 한편 자문위원단에 자문을 구해 최종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단에서 두 가지 호칭을 모두 거부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른 호칭을 논의해야 한다.

목탁소리

실종된 '신행단체 미래상'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지난 18~19일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중앙신도회 주최 제1회 전국신행단체대표자 수련대회가 열렸다. 3월 창립 이후 교구본사신도회장을 비롯 주요신행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급 신도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계획이어서 불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는 시작부터 실망으로 바뀌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은 입제시간은 교통형편상 그럴 수 있다고 본다. 6백여명의 인원이 일시에 모였으니 어느 정도의 혼잡도 예상됐던 일이었지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1백여명의 참가자들이 공양처로 발길을 돌린 것은 신행단체대표자 수련대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급신도회의 미래를 전망할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주제의 기조발제자가 불참했고, 가까스로 사회자가 기조발제 대신 주제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발제를 대신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신도교무금의 중앙신도회 기금으로 지원, 사찰운영의 신도회 참여 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총무원에 건의키로 하고 끝을 맺었다. 둘째날 예정됐던 자유토론 및 대표자 간담회는 시간지연으로 아예 취소됐다.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수련대회 목적은 끝내 실종되고 말았다. 예정에 없던 수련원 소개시간을 끼워넣은 것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었다.

"불교가 한 사회체제에서 존립의 근거나 존립해야 할 타당성을 갖고자 할 때에는 불교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규명없이는 불교에 기반한 행동양식 또한 도출될 수 없으며, 이는 자기 기반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죽비소리에 다름아닌 이같은 소리가 중앙신도회에 들리기까지는 아직 먼 것같다. 죽비소리는 반향없이 스러지고 있을 뿐이다.

'KBS '특종비디오저널 - 서울대출신 9명 출가'

흥미위주 편성…진실접근 부족

"시청자를 바보로 아나…" PC통신 등 항의 빗발

"KBS 제작진은 시청자를 바보로 아나보다…."

"이 방송은 그들의 출가를 사이비종교신자들의 집단적인 도피현상인양 빗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했다."

KBS 2TV가 21일 방영한 '특종비디오저널-서울대 출신 9명 출가, 절로 들어간 사연'(PD 김영환)에 대해 PC통신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항의중 일부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스님들의 출가동기를 마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도피성 가출인 양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출가한 9명중 유일하게 일묵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출가동기를 순수한 수행심으로 마무리했지만, 출가에 대해 부정적인 부모들의 모습과 '집단 출가했다'는 표현 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칫 불교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 또 이 프로그램이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하듯 출가자들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가십거리로 취급한 화면구성 등 불교를 마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로 매도해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9명의 출가를 물질만능사회에 대한 경종으로 본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감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출신…'이 방영된 직후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긴급모임을 갖고 24일 KBS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모니터회는 항의공문에서 "수행자를 흥밋거리로 다루고 부모 친지 얘기를 빌어 '억울하다' 내지는 본의 아니게 '끌려간 것처럼 프로그램의 포맷을 잡은 것은 시청자의 수준을 무시한 것이며 수행자를 언론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 성토하고 "이러한 방송으로 말미암아 해당 출가자들의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작진들의 책임"이라며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언론사들이 출가와 같은 종교문제를 주제로 선택할 때는 종교학자나 불교인의 도움말을 인용하는 등 신중한 제작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CBS 불교비하방송 방송위로부터 경고

기독교방송(CBS) 대담 프로그램에서 '무슨 놈의 부처가 구원을 시키느냐' '불교, 유교도…사탄에 의해 조정된 것들' 등의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TV(KCTS)도 설교 프로그램에서 '불교는 십자가를 망치로 두드려 만든 것' '불교는 방관하는 종교' 등 불교비방성 발언을 빈번하게 방영해 불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뉴스 & 뉴스

비리의혹 법사에 경위서

군승단(단장 이치영법사)은 21일 최근 소장파 법사들이 제출한 군승단 개혁 건의서와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의서에 비리의혹 해당자로 거명된 법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제의 건의서는 지난 9월 '군승단을 걱정하는 후배법사 일동' 명의로 군승단 부단장과 운영위원 등 3명에게 보낸 것으로, △통일대불 불전함 사건 △불합리한 인사조치 △군법당 불사 관련 잡음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군법당 불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위는 "군승단 내부 사안이니 만큼 자체적으로 무리없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불련등 10여단체 토론회

최근 2~3년간 더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불교운동진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동체한마당이 11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마련된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을 비롯 교계 10여개 단체는 8일 △불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이 과제와 전망 △재가불교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불교운동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9일에는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교운동연대를 위한 공동체한마당'을 가질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 가을강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11월 6일부터 12월18일까지 송위지교수(한국외대 철학과)를 초청하여 '경전을 통해 보는 현대인의 삶'을 주제로 가을강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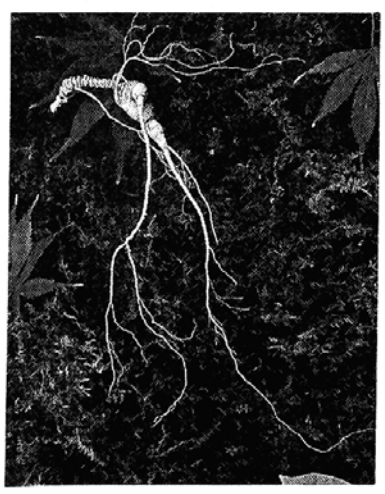
이강좌는 개인·가정·사회의 윤리와 불교와 정치·경제 등이 개설된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謹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서업부

건강한 몸 · 집중력 증진

내부로부터의 혁명

인체에너지의 비밀과 그 활용법을 밝힌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뇌내물질을 조정하고,
인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한다.



- 건강 · 수명과 기와의 관계는?
- 뇌만을 다스림은 응급처방이고 복뇌(오장육부)를 다스림이 근원처방이다.
- 알파파 뇌파를 일으키고 엔돌핀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 피라밋구조의 비밀과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 잠재의식, 기에너지의 비밀은?

● 홍명지음/신국판/368쪽/7,500원

도서출판 은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전화 02)720-9372,3 일반서점총판 만나서적/전화 02)267-7385

인터넷방송 '佛心' 항해

불교프로그램 불자 네티즌에 인기

M2 중광스님 선화 · 달마상등 전시

KBS 황룡사 · 무령왕릉 동화상 감상

BUDDHISM KOREA 불교 종합포교망 추진중



◇인터넷방송인 M2에 나오는 갤러리의 중광스님 작품전.

무한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끝나지 않는 방송'을 추구하는 인터넷 방송에도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불자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M2 7월에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독립 인터넷 방송국 'M2'(http://www.m2station.com)를 방문하면 중광스님의 간결하면서도 불교적인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다. M2의 디지털 갤러리에는 '종이에 먹'을 비롯한 중광스님의 그림 24점, 행위예술 사진 4점, 달마상 등 조각품 4점 등 총 32점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M2는 주로 콘서트나 음악 토크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8월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의 북돕기 현황도 방송으로 선보였다.

M2의 개국 이후 공중파 방송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지금은 KBS(http://kbsnt.kbs.co.kr), MBC(http://www.mbc.co.kr), SBS(http://www.sbs.co.kr), EBS(http://edunet.nmc.nm.kr), YTN(http://www.ytn.co.kr) 등 5개에 달하는 방송사에서 TV,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 올리기에 이르렀다.

KBS KBS 인터넷 방송을 방문하면 동영상으로 KBS 프로그램을 기호에 따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큐멘터리로는 '10대 문화유산 시리즈' 중 '황룡사'와 '무령왕릉' 두편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 '황룡사'는 그래픽 황룡사의 세부 요모조모를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신라시대 황룡사의 웅장한 모습과 9층탑의 신화를 재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MBC MBC에서는 다큐멘터리 '700년전의 약속' '황새' 등 역사와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 '뚝도'나 '일식생중계'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항시 접속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BUDDHISM KOREA 불교방송에서도 불교TV와 불교계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 'BUDDHISM KOREA'를 추진하고 있다. 'BUDDHISM KOREA'는 불교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 외에도 교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본사의 부다피아와는 링크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기타 교계 신문사와는 신문을 인터넷 상에 올려주는 형식으로 'BBS Magazine'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정보' 코너에는 한국의 사찰, 불교역사 · 인물, 인명록 등을 담고, '불교단체' 코너는 불교 법인 및 신행단체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현재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은 불교포교에 첨단 정보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한 몫 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BUDDHISM KOREA는 앞으로 이미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다른 방송들과 어떤 식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불교를 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는 차세대 포교전략이 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禪味 깃든 황남채 개인전

11월1일까지 김내현화랑…시화집도 펴내



◇황남채作 '길'

길

누군가 내게 물었다
길을 가는 사람이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세상 가는 곳마다
모두 길이었으므로.

누군가 내게 물었다
길을 아는 사람이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길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누군가 내게 물었다
깨어있는 사람이냐고
나는
망설였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깨어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화가 황남채씨가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담동 김내현화랑(02-543-3267)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황씨 특유의 유연한 선과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을 사용한 '그리운 것은 서쪽에 있다' '설산' '길' 등 30여 작품이 전시되어 마치 선화(禪畵)와도 같은 감동과 메시지를 안겨준다. 황남채씨는 전시회에 맞춰 그림과 시를 엮은 시화집 〈달빛찾기〉도 펴 냈다.

주부신행담

자비의 법륜 ② · 〈끝〉

초파일 제등행렬에 참석 참회의 눈물 흘리는 남편 나는 거기서 부처님 모습을…



그림 · 이준석

"우리 애가 고아야? 어떻게 주부가 자식을 과자 한봉지 달랑 들려 옆집에 내팽개쳐 두고 절에가서 매일 살다시피 할 수가 있어? 귀가 시간은 또 어떻고?" 도대체 나보다 일찍 들어 온 날이 며칠이야."

남편은 기분이 상하다 못해 몹시 분한듯 큰 소리를 쳤다.

남편이 전날 밤엔 아무 말이 없길래 안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러나 '절에 가는게 뭐가 잘못됐냐'며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여러차례 "매일같이 늦도록 절에 매달리다가는 미치거나 큰 광과리 두드리는 무당이 된다고 하더라"면서 주위에서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절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절에 그만 다니겠다는 내말을 기다리는 눈치더니 이내 "참피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며 신세한탄을 했다.

"자! 어쩔거야. 살림을 계속할 거야? 아니면 머리 깎고 절로 떠날거야? 양자 택일해."

그렇다고 남편이 절에 다니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멀다하고 몸져 눕던 내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우연찮게 병줄을 놓았다는 것을 남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고마움이 떠오르기보다는 내가 잘못될 것 같은 우려가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스님 말씀이 당신은 칼같이 무서운 외고집 성격을 지녔으니 어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남편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스님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화를 삭이는 기색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던 날 밤 도둑이 들었었는데 나는 아이들이 내 눈치를 살피느라 방에 와 본 것으로 알았다. 도둑의 왜소한 뒷모습을 큰아들로 착각했던 것이다.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도둑이 다시 올 것 같아 두려웠다.

그즈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등행렬이 있었다.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남편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에 매달리게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못이기는 척 승락을 했다. 남편은 그날 난생 처음 제등행렬을 구경했다. 우린 어느 곳이 좋을까 망설이다 연단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스님들이 교대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독송하더니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을 소리맞춰 독송했다. 남편은 연신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아 들을 수 없군"이라며 불평을 늘어 놓았다.

그런데 종각일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아제 아제 바라아제…' 진언을 연거푸 송하는 순간에 불평을 늘어 놓을 때만 간간히 입을 때던 남편이 '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따라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년에는 우리도 제등행렬에 함께 참여합시다.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부럽구료."

군중 속에 서 있는 남편 에게서 나는 얼핏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목탁을 치며 마지막 불자가 광장을 다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에 있던 불경을 뒤적이게 되었고, 경전을 조금씩 조금씩 염송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많은 법문을 접하면서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남편을 통해 체험했다. 또 광소에는 불평만 늘어놓던 주위 환경 모두를 점점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남편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은 태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되어 부정적이고 불신으로 가득차 교만했던 내 마음을 부숴 일깨웠던 것 같다.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어쩌면 불보살이 휘두른 뜨거운 무쇠바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절에 나가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김선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살아있는 法語 , 살아있는 佛教史料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봉행

진주 한마음 선원 상량식



한마음 진주선원 불사계획안

부처님의 가르치신 은혜를 갚고 모두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자비광명속에 안주케 하고자
「여래의 집」을 마련하여 상량식을 봉행하고자 함을
시방삼세 일체제불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고합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9일(음 10月 10日) 오전 11:00
- 장 소 : 진주 한마음 선원
- 연락처 : TEL. 0591)746-8163, 44-1321 FAX. 746-7825

진주 한마음 선원 사부대중 삼배 올림